

명심보감

추적 편저 | 이민수 역 '명심(明心)'은 마음을 밝힌다는 뜻이고, '보감(寶鑑)'은 '보경(寶鏡)'과 같은 말로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명심보감》은 《동몽선습》과 더불어 우리 조상들이 학문을 시작함에 있어 늘 함께 했던 필독서이다. 한학자 이민수 선생의 매끄러운 번역과 흥미로운 예담(例談)을 통해 오랜 인성교육(人性教育)의 기반을 엿볼 수 있다.



명심보감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명심보감》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신원과 (주)헤럴드 회장 홍정옥 님의 개인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솔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주신 고 이민수 선생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신복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해제 (解題)

명심보감 신석 (明心寶鑑 新釋)

1. 이 책은 중국 선철(先哲)들의 명구(名句)를 모은 것으로, 그 자료는 경사자집(經史子集) 그 밖의 여러 책에서 적취(摘取)한 것이다.

편찬 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펴 오래 전부터 한문 초학자의 도의교본(道義敎本)으로 널리 애용되어 온 책이다. 내용을 보면, 현대인의 안목에는 혹 고루하다는 흠을 잡힐지는 모르나 기계문명의 발달과 정비례하여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현대인의 도의심 양양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그리고 값있게 요구되는 때가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이 책의 원 제목은 《명심보감(明心寶鑑)》이다.

‘명심(明心)’이란 명륜(明倫)·명도(明道)와 같은 어형(語形)으로서, 즉 ‘마음을 밝게 한다’는 뜻이요, ‘보감(寶鑑)’이란 보물(寶物)·보경(寶鏡)·진보(珍寶) 등 성어(成語) 중의 보경(寶鏡)과 똑같은 말이다. 보감(寶鑑)을 책 이름으로 쓴 것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인 것 같고, 이 책이 발간된 뒤에 역대 의 《국조보감(國朝寶鑑)》 또는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이 나왔으며 근래에 이런 것을 본떠서 《가정보감(家庭寶鑑)》 같은 책의 면목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명심보감》에다가 ‘신석(新釋)’이란 두 글자를 더 붙인 것은 원문을 평이하게 풀이한 외에 주석을 달았고 예담(例譚)으로 옛 이야기를 들어 증거를 대기도 했기에 역자가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다.

3. 이 책의 편저자(編著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옛사람 누군가가 이 책을 편찬해서 문도(門徒)들에게 가르치는 교재(教材)로 썼던 터로 구태여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근자에 와서 환정(桓亭) 김종국(金鍾國)선생은 이것이 고려 충렬왕 때 노당(露堂) 추적(秋適)이란 분의 저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세상에 흔히 유행되고 있는 작자미상의 고래(古來)의 것을 원본으로 했을 뿐이다.

4. 이 신석본(新釋本)은 역문을 맨 앞에 실어 이것으로 주문(主文)을 삼고 다음으로 원문과 주석을 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목에 가서는 예담(例譚)을 붙였으며 매편(每篇)이 끝날 때마다 총론(總論)을 써서 설명을 붙였다.

※편집자 주 | 《명심보감》은 그 역사성과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판본과 저자 논란이 분분한 책 중 하나다. 이 책의 역자인 이만수 선생은 번역 당시 상황을 반영, '편저자는 명확치 않으나 고려 말 문신 추적(秋適)이 썼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1393년 명나라 문신 범립본(范立本)이 지은 책을 추적이 들여와 다시 역였다는 의견, 2) 추적의 생몰년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추적이 지은 책을 범립본이 유교 경서의 명언을 덧붙여 다시 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 이후 국내에서 애독된 《명심보감》을 추적이 역였다는 점 만큼은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올재 클래식스> 편집부에서는 지은이라 명시하지 않고 엮은이로 소개하였음을 밝힌다.

차례

해제 (解題)	5
계선편(繼善篇)	9
명편(天命篇)	20
순명편(順命篇)	26
효행편(孝行篇)	33
정기편(正己篇)	43
안분편(安分篇)	66
존심편(存心篇)	73
계성편(戒性篇)	84
근학편(勤學篇)	94
훈자편(訓子篇)	101
성심편(省心篇) 상(上)	107
성심편(省心篇) 하(下)	131
치정편(治政篇)	152
입교편(立教篇)	160
치가편(治家篇)	173
안의편(安義篇)	179
준례편(遵禮篇)	184
언어편(言語篇)	190
교우편(交友篇)	195
부행편(婦行篇)	202
팔반가(八反歌)	210



계선편(繼善篇)

계선편(繼善篇)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화를 준다.”

하였다.

子曰 爲善者は 天이 報之以福하고 爲不善者は 天이 報之以禍니라.

-
- 공자(孔子): 이름은 구(丘), 자(子)는 중니(仲尼). 중국 주(周) 영왕(靈王) 21년 서기전 551년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鄉)에서 태어남. 세계 삼성(三聖)의 한 분으로 유학(儒學)의 교조(敎祖). 삼천 명의 문제(門弟)를 교육시켰고 시경(詩經) · 서경(書經)을 산술(刪述)했음. 《논어(論語)》는 그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예담] 조선(朝鮮) 선조(宣祖) 때 정협(鄭協)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 장가를 들어 새로 지은 옷을 입고 동무들과 함께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다녀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가에 떨고 있는 거지를 발견하고 자기 새 주의(周衣)를 벗어 입혀가지고 가동(家童)을 시켜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게 했다.

이 아이는 크면서 매우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또한 힘이 장사였다. 때마침 임진왜란을 당해서 왜적을 피해 나루를 건너 피난하게 되었다. 나룻배는 한 척 뿐인데 건너갈 사람은 수백 명이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허둥지둥 그 배에 타고 중류(中流)에 이르자 마침내 배가 뒤집혀 몰사했는데 유독 정협의 가족만은 그가 길러준 거지 아이가 얹은 여울목을 찾아 업어 건네서 무사히 난을 피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 정협이 소시에 베푼 착한 행실의 인과(因果)라고 일컬었다. 과연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보답으로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이와 반대 로 자손의 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화를 받는다는 것은 비단 정협에게만 있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 중국 한(漢)나라 소열제(昭烈帝)가 죽음에 임하여 아들인 후주(後主) 선(禪)에게 조칙(詔勅)을 내려 말하기를,
“악한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漢昭烈이 將終에 勅後主曰 勿以惡小而爲之하고 勿以善小而不爲하라.

-
- 한(漢): 중국 왕조(王朝)의 이름. 전한(前漢)의 시조는 유방(劉邦)으로서 항우(項羽)와 함께 진(秦)을 쳐서 멸망시키고 뒤에 또 항우를 쳐서 천하를 통일함. 여기에서 말한 한(漢)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촉한(蜀漢)을 말함.
 - 소열제(昭烈帝): 성은 유(劉), 이름은 비(備), 자는 현덕(玄德). 한(漢)나라의 황족(皇族)으로 당시 기울어지는 왕조를 다시 회복하려 하였으나 그 나라가 위(魏)의 조비(曹丕)에게 망하게 되자 촉에서 스스로 황제(皇帝)의 자리에 올라 한(漢)나라 계통을 계승하고 위(魏) · 오(吳)와 대항했다.
 - 후주(後主): 유비(劉備)의 아들. 이름은 선(禪). 유비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으나 위(魏)에 항복하여 나라가 멸망함.
 - 조칙(詔勅): 조서(詔書). 임금의 명령을 쓴 글.

●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마음이 저절로 싹터 일어난다.”
하였다.

莊子曰 一日不念善이면 諸惡이 皆自起니라.

-
- 장자(莊子): 이름은 주(周).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송(宋)나라 사람으로 노자(老子)의 도(道)를 펴서 도가(道家)의 기초를 이룩함. 그의 글을 《남화경(南華經)》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의 호(號)를 남화진인(南華真人)이라 부른 까닭임.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착한 것을 보거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본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행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마치 귀먹은 것처럼 못들은 체하라.”

또 말하기를,

“착한 일은 탐내서 자기가 행하도록 하고 악한 일은 절대로 즐겨하지 말라.”

太公이 曰 見善如渴하고 聞惡如聾하라. 又曰 善事는 須貪하고 惡事는 莫樂하라.

-
- 태공(太公): 성은 강(姜), 이름은 여상(呂尚). 주나라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멸망시켰다.

● 마원(馬援)이 말하기를,

“한평생 착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착한 것이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 동안 악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악한 것은 스스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하였다.

馬援이 曰 終身行善이라도 善猶不足이요 一日行惡이라도 惡自有餘니라.

-
- 마원(馬援): 후한(後漢) 사람으로 광무제(光武帝)를 도운 유명한 장수.

●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고 해도 그 자손이 반드시 이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이요,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고 해도 그 자손들이 반드시 다 읽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남모르는 동안에 음덕(陰德)을 쌓아 두어서 이것으로 자손을 위하는 계책을 세우느니만 같지 못하다.”하였다.

司馬溫公이 曰 積金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守요 積書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讀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하여 以爲子孫計니라.

-
- 사마온공(司馬溫公): 이름은 광(光), 자는 군실(君實), 온공(溫公)은 그의 시호(諡號). 중국 북송(北宋) 때의 유명한 학자요, 정치가임.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지었음.

[예담] 양녕대군(讓寧大君)은 태종의 아들이자 태종의 뒤를 이을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태종은 양녕보다도 충녕에게 더 뜻을 두었다. 이 눈치를 챈 양녕대군은 아우 충녕대군을 위해 세자의 자리를 양보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요, 또 아우 충녕대군은 인물이 영특하여 가히 백성을 다스릴 기질이 있음을 간파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요 아우의 사람됨을 인정하더라도, 세자의 자리는 바로 다음의 왕위를 계승할 자리인 만큼 인간이면 누구나 미련이 없을 리 없으려만 양녕대군은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자 거짓 미친 체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결국 태종은 세자 양녕의 실덕(失德)을 이유로 폐하고 충녕을 맞아 새로 세자에 책봉하니, 이분이 바로 저 유명한 세종대왕이다.

실덕함을 이유로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긴 하였지만, 그의 심경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알았다. 세자의 자리를 충녕에게 물려준 뒤 일생을 풍류(風流)를 즐기며 살았지만 한 번도 남에게 적악(積惡)을 한 일이 없으며 항상 관후(寬厚)한 몸가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녕대군 자신이 풍류로 일생을 보내며 생활이 넉넉할 리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의 후손 이지광(李趾光)에 이르러서는 끼니를 걱정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루는 중이 동냥을 왔으나 무엇 하나 줄 만한 것이 있을 리 없는 이지광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먹고 있던 죽을 권하였다.

주인의 형편과 마음씨를 헤아린 중은 감사한 마음으로 죽 대접을 받은 후,
“정에 넘친 주인장의 대접을 받은 조그마한 보답으로 운수나 보아 드리리다. 저 사당 앞에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이 훤히 트이도록 하면 운수 또한 훤히 트일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는 총총히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지광은 그 중으로부터 색다른 위엄 같은 것을 느꼈으므로 그의 말대로 사당 앞의 나무들을 전부 베었다. 그리고는 이를 뒤의 일이었다. 당시의 임금 영조(英祖)께서 왕릉에 성묘차 그 근처를 지나다가 다 쓰러져가는 양녕대군의 사당을 바라보고,

“저 사당이 다 쓰러져 가는데 누구의 사당이냐?”하고 물었다.

시신(侍臣)이 양녕대군의 사당임을 아뢰자 왕은 그 자손을 불러오도록 명하였다. 사당 앞의 나무를 베어버린 때문에 이것이 왕의 눈에 띄었고 이로 인해서 이지광은 영조의 앞에 불러나가게 되었다. 이지광을 본 영조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궁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왕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양녕대군께서 만일 세자의 자리를 사양하시지 않았다면 지금은 나와 그대의 처지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즉시 아산 현감(牙山縣監)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지광은 조상의 유덕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 이것은 양녕대군의 음덕이 명명한 속에서도 복을 지시한 것이 되려니와, 또한 이지광이 지나가는 중에게 베푼 적덕의 보답이 아니겠는가.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은혜와 의리를 넓게 베푼 것이다. 인생이란 어디서든지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은 맺지 말 것이다. 외나무다리,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회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景行錄에 日 恩義를 廣施하라. 人生何處에 不相逢가. 讐怨을 莫結하라 路逢狹處에 難回避니라.

• 경행록(景行廣): 책 이름. 중국 송(宋)나라 때 저작.

[예담] 신릉군(信陵君)은 중국 위(魏)나라 소왕(昭王)의 막내아들로서 당시의 위왕과는 이복형제간이었다.

왕족이라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때의 사회상이었지만 신릉군은 나면서부터 천성이 겸손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존대하며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신이 뛰어나 못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또 어진 사람을 보면 신분의 고하(高下)나 직업의 종류를 가림 없이 머리 숙여 존경함을 잊지 않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이때 같은 위나라 서울에 수문관(守門官) 노릇을 하는 후영(侯嬴)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집은 비록 가난하여 생활이 말이 아니나 성품이 곧고 의협심이 강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러 받든다는 소문이 퍼져 마침내는 신릉군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신릉군이 물론 아니었다. 그는 즉시 후영을 찾아가 절하여 뵈고 가르침 받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듣던 소문과는 단판으로 신릉군을 대하는 후영의 태도는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신릉군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후영의 태도를 못마땅히 생각하였으나 신릉군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를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환대함을 마지 않았다. 그럴수록 후영의 태도는 점점 더 불손해 갔으며 그가 추천한 주해(朱亥)란 사람 역시 장거리에서 힘깨나 쓰는 백정으로서 예의범절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무뢰한같이 보였으나 신릉군은 역시 그들을 모두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후영·주해 두 사람을 욕함은 물론 신릉군의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움을 비웃기까지 하였으나 신릉군은 못들은 척 조금도 주위 사람들의 힐책에 아랑곳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신릉군의 매부요 조(趙)나라의 정승인 평원군(平原君)이 보낸 사람이 급히 달려와 그의 편지를 신릉군에게 전했다. 진(秦)나라의 많은 군사가 조나라를 에워싸고 치기를 급히 하여 조나라와 매부·누이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렸으니 급히 구원병을 보내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신릉군은 몸이 달아 급히 왕에게 아뢰어 조나라를 구해줄 것을 역설하였으나 위왕의 태도는 냉담하였다. 가볍게 움직였다가는 위나라마저 위태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릉군의 말을 일소에 부쳤다.

평원군에게서는 잇따라 사태의 위급함을 알리고 원병을 한시라도 빨리 보내줄 것을 독촉하는 글이 날아오고 나중에는 신릉군의 신의 없음을 꾸짖는 글까지 보내는 것이었다.

의리를 생명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신릉군은 평원군과의 평소의 교분이나 남매간의 정을 생각할 때 그대로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생각다 못한 그는 단신으로라도 조나라에 들어가서 평원군과 사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나려 하였다.

이때 후영이 조용히 입을 열어 신릉군에게 묘책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공자(公子)께서 단신으로 조나라에 가신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니 좋은 방법은 위왕의 병부(兵符)를 훔쳐내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진비(晉鄙)를 속여 병권을 빼앗아서 조나라를 구하는 길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왕의 침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위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여희(如姬)라는 여인 하나뿐이온 바, 여희로 말하자면 전에 그 부친이 억울하게 남에게 맞아 죽었을 때 공자께서 그 범인을 잡아 원수를 갚아주신 일로 해서 공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여자이오니 그에게 부탁하면 일이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진비에게 가실 때 혹 진비가 말을 선뜻 들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니 주해를 데리고 가시면 쓸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후영의 계교를 들은 신릉군은 그 길로 궁궐에 들어가 가만히 여희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 여희는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부친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을 만나자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청을 들어 주었고, 후영의 말대로 선뜻 응하지 않는 진비를 기골이 장대한 주해가 없어서 마침내 신릉군은 진비의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 군사를 쳐 조나라를 구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그가 전일에 베풀었던 여희 · 후영 · 주해 등에 대한 은혜를 보답 받은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그가 끼친 음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내게 착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나는 착하게 대할 것이요 내게 악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나는 또한 착하게 대해야 한다. 지난날에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딴 사람도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莊子曰 於我善者라도 我亦善之하고 於我惡者라도 我亦善之니라. 我既於人에 無惡이면 人能於我에 無惡哉인저.

● 동악성제(東岳聖帝)가 내린 훈계에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비록 금시에 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비록 금시에 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봄 동산의 풀이 그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키가 크는 것과 같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

람은 마치 칼을 가는 숫돌이 금시에 갈리어 달아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날이 갈수록 이지러지고 적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東岳聖帝 垂訓에 曰 一日行善이면 福雖未至나 禍自遠矣요 一日行惡이면 福雖未至나 禍自遠矣니라. 行善之人은 如春園之草하야 不見其長이나 日有所增이요 行惡之人은 如磨刀之石하야 不見其損이나 日有所虧니라.

-
- 동악성제(東岳聖帝): 도가(道家)에서 존경하는 신(神)의 이름.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마치 자기가 따라가도 다 행하지 못할 것처럼 서둘러서 행하고 악한 일을 보거든 마치 끓는 물을 만지는 것처럼 멀리 피하라.”

하였다.

子曰 見善如不及하고 見不善如探湯하라.

[총론] 이 계선편(繼善篇)에서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화를 준다(福善禍至)는 굳은 신념에서 착한 일 하기를 권장(勸獎)하는 옛날의 아름다운 말들을 모아서 수록했다.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繼善)” 이것은 이 책 전반에 흐르는 주지(主旨)이기도 하지만 이 계선편에서 이것을 더욱 강조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

“하루라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착한 일을 보거든 이것을 행하라.”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나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나 나는 착하게 하라.”

이렇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착한 일을 권한 것이 이 계선편이니 이 편은 역시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될 것이다.

천명편(天命篇)

천명편(天命篇)

●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 이치를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
하였다.

子曰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이니라.

● 소강절(邵康節) 선생이 말하기를,

“하늘의 듣는 것이 고요해서 소리도 없이 푸르고 푸를 뿐 어느 곳에 가 찾을까 하였더니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 있구나.”
하였다.

邵康節先生이 曰 天聽이 寂無音이라 蒼蒼何處尋고 非高亦非遠이라 都只在人心이
니라.

-
- 소강절(邵康節): 이름은 웅(雍), 자는 요부(堯夫), 강절(康節)은 그의 호. 중국 북송(北宋)때 유명한 학자. 상수론(象數論)을 제창함.

[예담] 고려 때 이야기다. 평장사(平章事) 벼슬로 있는 김영관(金永寬)에게 평량(平亮)이라는 종(奴)이 있었다. 그리고 평량의 아내는 역시 소감(少監) 벼슬에 있는 왕원지(王元之)의 종(婢)이었다.

평량은 농사를 지어 가산이 제법 부유해지자 뇌물을 쓰고 온갖 수단을 부려 종의 신분을 면하여 보통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자기 아내만은 여전히 왕원지의 집 중 문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하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자 왕원지가 벼슬에서 떨어져 가세가 많이 못되게 되자, 평량은 돈을 듬뿍 만

들어 왕원지에게 주면서 시골로 내려가 살라고 은근히 전했다. 살 수 없이 된 왕원지는 영문도 모르고 행장을 수습해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평량은 산길에 미리 숨어 있다가 왕원지의 가족을 몰살시켰다. 자기 아내의 종문서를 도려내기 위하여 문서의 임자들을 몰살시킨 것이다. 결국 주인이 없어진 종이 있을 리 없어 평량의 아내는 호지부지 종의 신분을 면하게 되었다. 그 뒤로 평량은 더욱 재산을 모아 두 아들에게 벼슬을 사서 시켰고, 심지어는 양반의 집 딸을 맞아 며느리로 삼기에 이르렀다. 평량 내외로서는 더할 수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순한 방법으로 얻은 지위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연한 일이 단서가 되어 이 일이 탄로 나 어사대(御史臺)에서 규탄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로 평량 내외는 사형을 받았고 두 아들은 벼슬자리에서 내쫓겨 절도(絶島)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한 것만은 좋았지만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참혹한 죄상을 저지르고서야 어찌 하늘이 무심할 수 있으랴. 하늘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결코 악한 자에게 복을 주지는 않는 법이다.

● 현제(玄帝)가 내린 훈계에 말하기를,

“사람들끼리 사사로이 하는 말이라도 하늘이 들을 제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제 마음을 속이는 일이라도 귀신의 눈으로 볼 적에는 번개와도 같이 밝게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玄帝 垂訓에 日 人間私語라도 天聽은 若雷하고 暗室欺心이라도 神目は 如電이라.

• 현제(玄帝): 도가(道家)에서 받드는 신(神).

●《익지서(益智書)》에 말하기를,

“나쁜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히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벤다.”
하였다.

益智書에 云 惡罐이 若滿이면 天必誅之니라.

• 익지서(益智書): 송(宋)나라 때 저작한 교양서적.

●장자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서도 이름을 세상에 나타낸 자는 다른 사람이 그를 해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
하였다.

莊子曰 若人作不善하여 得顯名者는 人雖不害나 天必戮之니라.

●외를 심은 데에서는 외가 날 것이요 콩을 심은 데에서는 콩이 날 것이니, 하늘이 넓고 넓어서 영성한 듯 하지만 결코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種瓜得瓜요 種豆得豆니 天網이 恢恢하여 疎而不漏니라.

[예담] 고려 때 이행검(李行儉)은 전법사(典法司)의 벼슬에 있었다. 성미가 곧아서 그는 그릇 된 일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당시 정화원비(貞和院妃)는 임금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갖은 방자와

무례한 짓을 많이 했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백성들을 잡아다 종을 만들기 일쑤였다. 이러던 중에 피해를 입은 백성 하나가 전법사에 호소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오.”

그러나 전법사의 판서(判書)로 있는 김서(金僖) 등은 정화원비의 세력을 무서워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라 해서 법을 무시하고 그 백성을 종으로 단정시키고 소장(訴狀)을 기각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이행검이었다.

“불가한 일ियो. 어찌 법을 어길 수가 있단 말ियो? 권도(權道)로 법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यो.”

하고 끝까지 법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말이 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며칠 안 되어 이행검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반대파의 김서 등은 “옳지. 이 기회에 이 일을 처리하자.”

하여 마침내 부라부라 사건은 처리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법을 어겨 일을 거꾸로 처리한 김서는 그날 밤 하늘에서 큰 칼이 내려와 자기들 전법사의 관리들의 목을 베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신기가 불편하더니 등창이 나기 시작해서 며칠만에 죽고 그의 동료들도 모두 병이 들어 죽었는데 오직 이행검만이 화를 면하고 다시 벼슬을 계속했다.

법을 어기는 자, 곧 하늘을 어기고 하늘에 죄를 진 자는 살 길이 없다. 사람이 그를 죽이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다.

● 공자가 말하기를,

“악한 일을 해서 죄를 하늘에 지게 되면 빌 곳이 없다.”

하였다.

子曰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니라.

[총론] 이 천명편(天命篇)에서는 위의 계선편에 이어서 역시 착한 일을 해야 잘된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했고 그 위에 천도(天道)의 엄연(嚴然)함을 증명하는 가언(嘉言)들을 수록했다. “하늘이란 과연 있는가? 천도(天道)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남의 악한 행동을 듣고 얼핏 입버릇처럼,

“그 사람 하늘이 무섭지도 않던가?”하는 말, 이것은 곧 하늘이 있고 없고 간에 나쁜 짓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생각이 머리에 젖어 있어서 그저 무심한 사이에 서라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름다운 습성을 나타내는 때문인 것이다.

어렸을 적에, 몹시 심한 천둥이 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나는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던 그 순진한 마음, 이것이 곧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양심, 선심, 곧 천도(天道)가 아니겠는가?

순명편(順命篇)

순명편(順命篇)

● 공자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하였다.

子曰 死生은 有命이요 富貴는 在天이니라.

[예담] 황희(黃喜)라면 조선 세종(世宗) 때의 명신이요 훌륭한 정치가이며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던 사람이다.

비록 한 나라의 재상이지만 재물을 탐함이 없는 사람인지라 한 평생을 청백리(清白吏)로 지낸 관제로 살림이 말할 수 없이 궁핍하였다.

재상의 집인 만큼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였으므로 황희의 생활이 몹시 어렵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마침내는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본래부터 황희의 청렴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세종이었지만 그토록 정도가 지나친 줄은 미처 몰랐었다. 가까운 신하를 가만히 불러 황희의 생활 내막을 자세히 알아본 왕은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이 이상 곤궁한 생활 속에 그대로 던져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재정적으로 돕기로 결정하였다. 왕은 어느 날 황희를 불러 새벽에 남대문이 열리면서부터 저녁에 닫을 때까지 이 문으로 드나드는 물건은 모두 사서 주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하루 종일 계속해서 비가 퍼부어 물건을 팔러 들어오는 장사치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두워 집에 돌아가려고 할 즈음에 한 시골 노인이 계란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나마 황희에게 주려고 소임을 맡은 신하가 즉시 그 계란을 사서 왕의 명대로 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저녁 늦게 마지막으로 모처럼 만난 이 계란도 모두 끓어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늙은 정승 황희는,

“재물은 내가 타고난 바 아니다.”

하고 조금도 서운해 하는 빛이 없었다. 그렇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운명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고 운명에만 맡기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서 노력은 힘껏 하고 나서 다음으로 운명과 하늘을 믿으라는 것이다.

● 모든 일에 분수가 이미 정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이 바쁘게 군다.

萬事 分已定이어늘 浮生이 空自忙이니라.

[예담] 옛날 변방 지역에 살던 한 노인이 치던 말이 하룻밤 동안에 멀리 달아나 버렸다. 이를 안 동네 사람들은 노인에게 아끼던 말이 달아났으니 얼마나 아까우냐고 위로하는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로 해서 오히려 복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아까워할 까닭이 뭐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달아났던 노인의 말이 다른 준마(駿馬) 한 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동네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없어졌던 말과 함께 또 새 말까지 생겼음에 축하의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또 얼굴에 기쁜 빛도 없이, “이게 또 무슨 화가 될 징조나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리 기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의 아들이 들여온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쳐 그만 불구자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몰려와, 노인을 진심으로 위로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담담한 표정으로,

“글쎄요. 자식놈이 다리를 다쳤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야 없지만 이것이 혹 무

슨 복이 될는지 모르지요.”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범하자 몸이 성한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려 나가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여 모두 전사하였으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불구자였으므로 이런 큰 화를 면했다 한다. 이러한 고사를 세상에서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하여, 사람의 운수는 그 화복(禍福)을 알 수 없는 것이며 인력으로 억지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흔히들 쓰고 있다.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화는 요행으로는 면치 못할 것이며 복은 한 번 받으면 두 번 다시 구할 수 없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禍不可倖免이요 福不可再求니라.

●때가 오면 바람이 왕발(王勃)을 등왕각(滕王閣)까지 보내 주어 글을 지어 이름을 높이게 하듯이 일이 잘 되게 하고 운수가 나쁠 때는 벼락이 천복비(薦福碑)에 떨어져서 이때까지 애쓴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時來에 風送滕王閣이요 運退에 雷轟薦福碑라.

-
- 왕발(王勃): 중국 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유명한 시인(詩人).
 - 등왕각(滕王閣): 중국 남창(南昌)땅에 있던 이름난 누각(樓閣).
 - 천복비(薦福碑): 중국 강서성(江西省) 천복사(薦福寺)에 있던 비석.

[예담] 중국 당나라 때 남창(南昌) 장강문(章江門) 위에 있는 등왕각(滕王閣)에서 천하의 글 잘하는 선비들이 모여 글재주를 자랑할 기회가 왔다. 등왕각의 서문을 지으라는 것이다. 이 소식을 산신령의 현몽으로 알게 된 나이 어린 선비 왕발(王勃)은 길이 멀어서 도저히 제 시간에 참석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창(南昌)에서 배를 타자 뒤에서 붙여주는 순풍이 어찌나 왕발이 탄 배를 빨리 몰아주었던지 하룻밤 동안에 700리 길을 가서 이 글자리에 참석하여 글을 지어 장원한 것이 바로 유명한 등왕각서(滕王閣序)이다. 이로부터 왕발의 이름은 갑자기 천하에 떨치게 되었으니, 때가 왔기에 바람이 불어 주어 왕발을 이 글자리에 보내서 성공시킨 것이라고 한다.

천복비(薦福碑)는 이북해(李北海)가 비문을 짓고 구양순(歐陽詢)이 글씨를 쓴 유명한 비석이다. 구래공(寇萊公)이란 문객(門客) 한 사람이 몹시 곤궁하게 지내므로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천복비의 비문을 종이에 박아다 주면 수고한 공으로 후한 보수를 주겠다.”

고 했다.

이에 그 문객은 천신만고로 수천 리 길을 가서 겨우 내일 아침이면 천복사에 도착하게 되었을 제, 그날 밤 갑자기 벼락이 그 비석을 쳐서 깨뜨려버렸다.

이리하여 구래공의 문객의 계획은 하룻밤 동안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 열자(列子)가 말하기를,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병이 있고 병어리라도 집은 호화롭고 부자로 살 수 있으며,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재질을 가진 사람도 도리어 빈궁하게 사는 수가 있다. 이로 보면 사람의 모든 일은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의 사주팔자(四柱八字)에 미리 정해진 것이니 따지면 모두 운명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列子 曰 痴聾啞도 家豪富요 智慧聰明도 却受貧이라 年月日時該載定하니 算來에 由命不由人이라.

-
- 열자(列子): 이름은 어구(禦寇), 열자(列子)는 존칭. 중국 전국시대 사람으로 그의 저서 《열자(列子)》 八권이 있음. 그 뒤 당(唐)나라 때에 그를 도교적인 칭호로 충허지덕진인(沖虛至德眞人)이라 부르고 그의 저서를 《충허진경사(沖虛眞經)》이라고 부름.

[총론] 순명편(順命篇)은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死生有明, 富貴在夫)”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하늘에 거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사람의 궁하고 달하게 되는 것(궁달(窮達))은 결국 운명에 달린 동시에 죄를 저서 오는 화는 절대로 요행으로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효행편(孝行篇)

효행편(孝行篇)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네. 가엾으신 아버지 어머니여, 나를 낳으시기 애쓰시고 수고하셨네. 그 은덕 갚으려면 높은 하늘처럼 끝이 없네.” 하였다.

詩에 曰 父兮生我하시고 母兮鞠我하시니 哀哀父母여 生我劬勞쌔다. 欲報之德인댄 昊天罔極이로다.

-
- 시경(詩經):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詩集)으로 오경(五經)의 하나. 처음에는 다만 시(詩)라고만 일컫다가 송(宋)나라 때 이후로부터 《시경(詩經)》이라고 부름. 옛날 임금의 민정(民情)을 알기 위하여 각 지방의 가요(歌謠)를 채집(採集)시킨 것으로, 원래는 3,000여 편이나 되던 것 중에서 공자가 305편을 뽑았다고 함. 민요(國風(國風))가 반 넘어 차지하고 의식(儀式)(小雅·大雅)·제전(祭典)(頌)의 노래도 있음.

[예담] 도씨(都氏) 소년은 집이 몹시 가난했다. 날마다 솥을 지고 장에 가서 팔아다가 쌀과 고기를 사서 혼자 있는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다.

어느날, 그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장에 가서 솥을 팔아 한 되 양식과 고기 몇 점을 사가지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두울 무렵이나 되어 산길에 접어들자 난데없는 소리개가 날아오더니 지게 뒤에 매달은 고기 뭉치를 떼어가지고 물고 날아가 버렸다. 소년은 발버둥 치며 울다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소리개는 그 고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 집 뜰에 갇다 놓았다.

어느날 어머니는 때안된 감(柿)이 먹고 싶다고 한다. 겨울철에 감이 있을 리 없어 소년은 공연히 감나무 밑을 헤맸건만 제철이 아닌 감을 얻을 길이 없다. 허희탄식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날은 어느덧 저물어 앞이 캄캄한데 난데없는 큰 범 한 마리가 앞을 막아서더니 제 등에 업히려는 시늉을 한다. 소년은 하는 수 없

이 범의 등에 업혀 갈기를 잔뜩 붙들고 있노라니 범은 소년을 등에 업은 채 삼시간에 백 리 길을 달려 어느 산촌 한적한 인가 앞에 내려놓고 들어가 보라는 눈짓을 한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긴 소년은 그 집 문을 두드려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다. 그런데 그 집은 마침 제삿날이라 조금 후에 제사를 마치고 음보 상이 나오는데 때 아닌 홍시(紅柿)가 상에 올라 있다.

소년은 하도 신기해서 반색을 하고 물었다. 이 심동(深冬)에 웬 홍시(紅柿)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마침 우리 아버지 제삿날인데 평소에 아버님께서 홍시를 좋아하셨기에 해마다 감 200개씩을 굴 속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서 제사에 쓰려면 요행 대여섯 개밖에 성한 것이 남지 않더니 이번에는 웬일인지 성한 놈이 15개가 넘으니 참 이상한 일이로군요.”

하고 주인은 사뭇 신기한 듯이 말한다.

그러나 더욱 이상히 여긴 것은 도씨 소년이다.

소년은 자기 어머니가 때 아닌 홍시를 찾기로 부질없이 감나무 밑을 헤매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범이 나타나서 여기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얘기를 대강 하고는,

“어려운 부탁이오나 몇 개만 저를 주시면 갖다가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주인도 마음 속으로 기특히 여겨,

“이것은 필시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해서 범을 시켜 내 집까지 데리고 온 것이로다.”

하고 서슴지 않고 홍시 20개를 싸서 주니 소년은 주인을 작별하고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웬일일까? 소년이 타고 온 범은 그때까지 그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만난 개 모양으로 꼬리를 치고 등을 내밀어 역시 업히기를 청한다.

이리하여 소년은 홍시 20개를 가지고 집에 도착해 어머니께 드리니 어느덧 새벽 닭이 울더라는 얘기다.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은 이런 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닐까?

● 공자가 말하기를,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데는 보통 거처할 적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하는 데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병이 들었을 적에는 지극히 조심하는 마음을 다하고 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 엄숙한 마음을 다할 것이다.”

하였다.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라.

[예담] 조선 중종(中宗)의 비(妃) 장경왕후(章敬王后)는 세자 인종(仁宗)을 낳은지 7일 만에 별세했다. 그래서 인종은 계모 문정왕후(文貞王后)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문정왕후는 투기가 많은 간악한 여자로서, 전실 소생 인종을 죽이고 자기의 소생을 임금으로 올려 앉히려고 갖은 모략을 썼다.

인종이 장성해서 성혼하자 빈궁(嬪宮)과 함께 동궁(東宮)에서 거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계모 문정왕후는 인종 부부를 죽이려고 음모한 끝에 한 번은 산 쥐를 여러 마리 잡아서 꼬리에 기름 묻힌 솜 심지를 달고 밤중에 불을 붙여서 동궁 쪽으로 몰아 보냈다. 그래서 깊은 밤중에 동궁에는 까닭 모를 불이 났다. 잠자던 인종은 화재에 놀라서 깨기는 깨었으나 몸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불에 타 죽으려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타 죽을 테니, 당신이나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인종은 이렇게 아내에게 권했다. 그러나 남편과 생사를 같이 할 빈궁은, 세자마마께서 귀하신 몸을 피하셔야지, 저만 살면 무엇 합니까?”

하고 울면서 남편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 전에도 어머님께서 나를 죽이시려 했을 때, 내 몸을 피한 것은 부모님께 불미한 소문이 미칠까 해서 내가 살았던 것으로 조금도 내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밤중이니 내가 타 죽더라도 어머님께 아

무런 불미한 지목도 가지 않을 게 아니오? 어머님 마음을 편히 해드리고 왕실의 내분을 없게만 한다면 이 또한 효도이고 세자로서 할 일이 아니겠소?”

하고 꼼짝도 안하는 것이었다.

이 때 동궁에 배치되었던 하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인종 부부를 구출하려고 야단법석이었다. 마침내 중종이 와서 우는 음성으로 급히 불렀다.

“백돌아! 백돌아! 어서 뛰어나오너라 백돌아!”

백돌이란 인종의 아명(兒名)이다. 하도 급한 바람에 중종은 세자의 체면도 돌볼 여가가 없이 어렸을 때의 이름을 불러댔던 것이다.

이리하여 인종도 마침내 그 죽음의 불 속을 헤치고 빈궁과 함께 뛰어나왔다.

인종이 등극한 뒤에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그때 인종은 경복궁으로 사신을 안내하고 부왕(父王) 중종이 거쳐하던 궁전을 사신에게 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명나라 사신은,

“전하는 하늘이 낸 큰 효자올시다.”

하고 칭찬했다.

인종은 30세에 등극했으나 왕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아마 인종 부부간에 생리적 결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간악한 계모에게라도 그토록 효성이 지극한 인종이었기에 계모 소생의 아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아들을 낳지 않도록 비방을 쓴 것이라고 당시 세상 사람들은 말했던 것이니, 효자의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마땅히 이래야 할 것이다.

●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먼 곳에 가서 놀지 않으며 놀더라도 반드시 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하였다.

子曰 父母在어시든 不遠遊하며 遊必有方이니라.

● 공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부르시면 예! 하고 대답할 뿐 군말이 없고 마침 밥이 입에 들었으면 이것을 토하고 달려간다.”

하였다.

子曰 父命召어시든 唯而不諾하고 食在口則吐之니라.

[예담] 노래자(老萊子)는 중국 주(周)나라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겨 모시는데 따를 사람이 없었으니, 부모가 잡수실 음식물은 언제나 부드럽고 맛이 있는 것을 널리 구해 드리고, 부모가 입을 옷은 가볍고 따뜻한 것을 사다 드렸으며, 부모의 마음이 편하도록 언제나 얼굴빛을 화평하게 가졌다.

노래자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아직도 건재하니 노래자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부모에게 안보이게 하기 위하여 눈부신 오색 색동으로 옷을 지어 입고, 어린애처럼 부모 앞에서 춤을 추는 등 갖은 재롱을 피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 또 부모 앞에서는 자기의 늙었던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느 날 부모께 올리려고 음식상을 손수 가지고 가던 노래자는 노쇠한 탓으로 발을 헛디디어 그만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그는 자신의 늙고 기력 없음을 감추려고 마치 어린애처럼 소리 내어 울었으니, 그 우는 소리가말로 참으로 지극한 효심의 자연 발로였다고 한다.

그 뒤 초(楚)나라의 정사는 어지러워지고 말았으니, 이를 본 노래자는 마침내 몽산(蒙山) 남쪽에 은거하여 발을 갈면서 《노래자(老萊子)》라는 책을 지었다 하나 이 책이 세상에 전하지는 않는다.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기 자식도 역시 자기에게 효도하니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했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기를 바라리오.”
하였다.

太公이 曰 孝於親이면 子亦孝之하니 身既不孝면 子何孝焉이리오.

● 또 말하기를,

“효도하고 순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다시 효도하고 순하게 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다섯 가지 시역(弑逆)을 범한 사람은 자기도 다시 다섯 가지 시역(弑逆)을 범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믿지 못하거든 오직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고 떨어져서 조금도 어기고 옮기는 일이 없이 제자리에 떨어진다.”
하였다.

孝順은 還生孝順子요 五逆은 還生五逆子라. 不信커든 但看簷頭水하라. 點點滴滴不差移니라.

• 오역(五逆): 임금 · 아버지 · 어머니 · 할아버지 · 할머니 등 다섯 사람을 죽인 죄.

[예담] 승상 황수신(黃守身)은 저 유명한 현상(賢相) 황희(黃喜)의 아들이다. 그가 젊었을 적의 이야기다. 어느 예쁜 기생에게 반해서 공부도 집어치우고 집에도 잘 들르지 않고서 열흘에 7·8일은 그 기생의 집에 가서 뒹굴었다. 황희는 백방으로 타이르고 꾸짖고 했으나 수신(守身)은 다만 그 아버지 면전에서 만 “예! 예!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말할 뿐, 돌아서기가 무섭게 이내 기생의 집으로 달아나곤 한다.

그야말로 하우불이(下愚不移)요 실로 막무가내였다.

어느 날 황희는 미리 수신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의관을 정제하고 밖에 나가 기다리다가 수신이 대문 가까이 다가서자 마주 나가 맞으면서 큰 손님으로 대접했다. 수신이 깜짝 놀라,

“아버님! 이 어인 까닭이십니까?”

하고 의아해 하자 황희는 태연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식으로 너를 대해도 네가 종시 듣지 않으니 이는 네가 아무래도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즉 불가불 너를 손님의 예로 대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머리를 숙여보였다. 수신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머리를 조아려 피를 흘리면서,

“죽을죄를 졌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애걸했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부터 그는 사랑하던 기생을 한 번도 찾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여 조금도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효성이 지극하여 전에 없던 효자가 되었다.

어느 날 술이 몹시 취해서 기생집 앞을 지났는데 밤중에 눈을 떠서 보니 전에 다니던 기생의 방이었다. 술이 깨어 까닭을 물어보니 술이 취해서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전에 가던 집이라, 그 기생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수신은 칼을 빼어 말을 베이고 즉시 집으로 돌아온 후 명심하여 그 아버지에게 효성을 기울였다.

“착한 사람의 아들에 효자가 많다.”

과연 황희 부자에게 해당되는 말인 듯하다.

[예담] 순손(順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연대와 살던 곳은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중엽(中葉) 때의 사람인 듯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남의 일을 돌봐주면서 근근이 연명해 살아갔다. 곤궁한 살림을

계속 하면서도 그들 부부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은 지극했다.

순손에게는 이런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 어린 아이는 순손이 자기 노모에게 드리려고 간신히 마련한 음식을 곧잘 먹어버리기가 일쑤였다.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한두 차례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런 경우를 당한 순손은 생각다 못해 아내와 의논하는 것이다.

“여보 큰일이로구려. 풍돈을 모아 간신히 마련해 온 음식을 저 어린 것이 번번이 먹어 없애니 이결 어떡하면 종단 말ियो? 아이는 다시 낳을 수도 있지만 늙은 어머니는 한 번 돌아가시면 영영 그만이 아닌가? 어린 것만 없으면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의논하고서 순손 내외는 철모르는 어린 것을 업고 뒷산 후미진 곳으로 올라갔다. 어린 것을 땅 속에 생매장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땅을 한 길이나 파고 보니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종(鐘)이 하나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순손 내외는 하도 이상해서,

“여보, 이런 신기한 물건이 나왔으니 이것은 아마 이 아이의 복인가 싶소. 그대로 데리고 갑시다.”

하고 어린 것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 내외는 이 신기한 종을 대들보에 달고 한 번 쳐보니 그 소리 웅장하여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당시 임금의 귀에까지 이 소리가 들려 연유를 묻고, 이내 순손 내외의 효성을 알게 되어 이것을 가상히 여긴 임금은 후하게 상을 주어 마음껏 노모를 봉양하게 해주었다.

어머니를 위하여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오늘날의 윤리관으로 보아서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으나 당시의 순손 내외의 그 지극하고 간절한 효성만은 깊이 찬양할 만하다.

[총론] 이 효행편(孝行篇)은 부모의 높은 은덕(恩德)과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밝히고, 종시 일관 인과론(因果論)적인 입장에서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라야 자기 자신도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둘 수 있다는 가언(嘉言) 등을 수록했다.

옛날로부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백 가지 행동의 근본이라(孝爲百行之本)”느니, “효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착한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 말이 있어, 이 효도야말로 인간 행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정기편(正己篇)

정기편(正己篇)

●성리서(性理書)에 말하기를,

“남의 착한 것을 보거든 나도 착한 일을 했는가 찾아보고,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자기도 악한 일을 했는가 찾아보라.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性理書에 云 見人之善이어든 而尋己之善하고 見人之惡이어든 而尋己之惡이니 如此라야 方是有益이니라.

-
- 성리서(性理書): ‘성리(性理)’란 사람의 성품과 하늘의 이치를 말한 것으로 성리학(性理學)은 이런 것을 의논한 유교철학(儒敎哲學)임. 중국 송(宋)나라 주렴계(周濂溪) · 장횡거(張橫渠) · 정호(程顥) · 정이(程頤) · 주희(朱熹) 등이 제창(提唱)한 학설(學說)이니, 이것을 기록한 글이 바로 성리서(性理書)임.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해 줄지언정 남에게 용서를 받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大丈夫 當容人이언정 無爲人所容이니라.

[예담] 염파(廉頗)는 조(趙)나라 장군인 동시에, 제(齊)나라를 쳐서 이긴 공으로 조나라 재상의 자리에 올라 명성이 원근에 떨쳤다.

때마침 인상여(蔣相如)란 이도 같은 재상으로서 염파 장군의 윗자리에 있었으나

염파는 그를 몹시 마땅치 않게 여겼다.

“나는 이 나라의 장군으로 적의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은 큰 공이 있지만, 저까
짓 상여(相如)야 가만히 앉아서 구변으로만 한몫을 보면서도 지위는 오히려 나보
다도 위에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는 미친한 출신인데 내가 제 아랫자리에 있
다니? 내 거리에서 만나면 단단히 창피를 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상여는 될 수 있는 대로 염파를 만
나려 하지 않았고 조정 모임에도 항상 병을 핑계하고 염파와 자리를 같이하지 않
았다.

그 후 어떤 날, 외출을 가간 인상여는 저 편에서 염파가 탄 수레가 이쪽을 향하여
줄 달음질쳐 오는 것을 보고 곧 수레를 옆 골목으로 돌려 염파를 피했다.

이것을 본 상여의 하인이 몹시 불쾌히 여겨 말했다.

“염파 장군은 욕지거리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데 어찌 승상께서는 그를 두려워 피
하십니까? 재상의 높으신 몸으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듣자 상여는 하인에게 반문한다.

“염파 장군과 진왕(秦王)은 어느 쪽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야 물론 진왕이 훌륭하고 위엄이 천하에 진동하지요.”

상여는 빙그레 웃고 말한다.

“그것 보아라. 그 위엄 있는 진왕의 의사를 꺾고 못 신하들을 욕 보여 감히 우리 조
왕(趙王)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인상여가 아니냐? 그렇거늘 내 아무
리 못난 사람이기로서니 어찌 한낱 염파 장군을 두려워하여 그를 피하겠느냐? 생
각해 봐라! 저 강대한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감히 침입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우
리들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속담에도 두 호랑이가 싸우면 반드시 한 마리는 죽
고 다른 한 마리는 상처를 입는다는데, 만일 우리 두 사람이 싸웠다가 한 사람이
죽거나 상처를 입게 된다면 이 조나라를 누가 지키겠단 말이나? 내가 염파 장군을
피하는 것은 나랏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루는 때문이다.”

뒤에 이 말을 들은 염파는 크게 뉘우쳐 몸소 인상여를 집으로 찾아 사과하는 것이
었다. 미친한 인간이 장군의 관대한 의사를 모르고 버릇없이 굴었사오니 지난 일

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침내 자기가 인상여만 못한 것을 깨닫고 그 뒤로부터 문경지교(勿頸之交)를 맺고 서로 깊이 사귀었다는 이야기다.

대장부는 마땅히 사람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용납할 아량(雅量)이 없이는 출세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보여준 교훈이 아니겠는가?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내 몸이 귀하다고 하여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가 크게 되었다고 해서 남을 업수이 여기지 말고 또 자기의 용맹을 믿고서 적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 하였다.

太公이 曰 勿以貴己而賤人하고 勿以自大而蔑小하고 勿以恃勇而輕敵이니라.

● 마원(馬援)이 말하기를,

“남의 허물 있는 것을 듣거든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는 들을지라도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다.” 하였다.

馬援이 曰 聞人之過失이어든 如聞父母之名하야 耳可得聞이언정 口不可言也니라.

[예담] 사람들은 흔히 남의 홍보기를 좋아한다. 남의 잘못을 보거든 그 거울에 자기를 비쳐 자기도 또한 그러한 잘못이 없는가를 반성해봄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보면 오히려 자기의 허물까지 잊어버리고는 그 흉을 보

기에 급급해하고 급기야는 신바람이 나서 떠드는 일이 허다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선 효종의 아우이며 인종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麟平大君)은 다음과 같은 시조로써 그 마음을 훈계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 전혀 잊고 남의 흥 보는구나.
남의 흥 보거라 말고 제 허물을 고치고저.”

[예담] 《파우스트》를 쓴 시성(詩聖) 괴테가 어느 날 부육관(傳育官)인 소레와 함께 바이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궁정 내의 어느 귀부인의 모습을 보았다. 공원 안에는 별로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방이 조용하여 그 부인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만 알았던지 같이 걷던 남자와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행실이 곧고 정숙하기로 널리 알려진 부인인지라 그러한 행동을 보는 사람에게는 꽤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상대자가 그의 남편이 아니고 엉뚱한 다른 남자가 아닌가! 소레는 금방 얼굴빛이 변하더니 볼멘 소리로 그 광경을 보았느냐고 괴테에게 물었다. 그곳을 같이 거닐던 괴테가 못 보았을 리 없을 것이고 그러한 질문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레는 이렇게 말문을 열어 부인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평해보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괴테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보기는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잘못된 과실을 듣고 이것을 모른 채한다는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되도록 우리는 남의 과실을 숨겨주고 남의 잘한 일을 선전하는 미덕(美德)을 길러야 한다.

●소강절(邵康節) 선생이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를 헐뜯는 말을 듣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남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말며, 남의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여기에 곧 대꾸하지 말고 다만 남의 착한 일을 했다는 말을 듣거든 여기에 응답하고 또 따라서 기뻐할 것이다.”

하였다. 그가 지은 시(詩)에 말하기를,

“착한 사람 보기를 즐거워하고 착한 일 듣기를 즐거워하고 착한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남이 잘못된 것을 듣거든 가시 둔한 나무를 등에 진 듯이 싫어하고 남의 착한 일한 것을 듣거든 난초(蘭)·혜초(蕙)를 찬 듯이 기뻐하라.”

하였다.

邵康節先生이 曰 聞人之謗이라도 未嘗怒하며 聞人之譽라도 未嘗喜하며 聞人之惡이라도 未嘗和하고 聞人之善則 就而和之하고 又從而喜之니라. 其詩에 曰 樂見善人하고 樂聞善事하고 樂道善言하고 樂行善意하고 聞人之惡이어든 如負芒刺하고 聞人之善이어든 如佩蘭蕙니라.

[예담] 중국 제(齊)나라 정승을 지낸 추기(忌)는 키와 몸집이 커서 외모가 그럴 듯 해 보였다. 그는 은근히 자기 풍모에 자신을 가졌으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당시 풍채 좋기로 나라 안에서 제일이라는 성북(城北)에 사는 서공(徐公)과 자기를 비교해보고도 싶었다.

그는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물었다.

“나의 풍채가 성북에 사는 서공과 비하여 어떠하오?”

“그야 서공의 풍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대감의 풍채에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대답을 들은 추기는 이번에는 침을 불러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침의 대답 역시 약속이나 한 듯이,

“원, 대감도. 서공이 누구길래 감히 대감의 풍채에 비긴단 말씀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이 때 마침 손님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다시 그 손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 손님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자기의 얼굴에 더욱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난 뒤 우연히 서공이 그를 찾아왔다. 추기는 그를 반가이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하며 가만히 그와 자기의 용모를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는 자기보다 풍채가 훨씬 좋은 것 같았다.

추기는 여기에서 크게 깨달은 바 있어 그 이튿날 왕을 찾아갔다. 그는 그간에 있었던 자기의 아내와 첩, 그리고 찾아온 손님이 자기의 풍채를 똑같이 칭찬하던 말을 왕에게 아뢰고,

“신의 용모가 서공만 못함에도 이같은 대답이 세 사람의 입에서 꼭 같이 나온 것은 신의 아내는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의 편을 든 것이요, 첩은 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요, 손님은 선에게 긴한 청탁이 있어서 온 터이라 거짓 그리 대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미루어볼진대 왕께서는 지방이 천리이신 존엄하신 터에 궁녀나 좌우 시신(侍臣)이 누가 감히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왕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로 본다면 왕은 지금까지 수 없는 거짓말만 듣고 지내오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깨닫고 즉시 영을 내려 신하나 백성들 중에서 직언으로 왕의 잘못을 간하는 사람에게 크게 상을 내리게 하니, 이로부터 국세는 더욱 떨치게 되었다.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이것은 정말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언제나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데서만이 자기 몸을 옹गे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나를 지나치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반드시 나를 해치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나의 스승이다.

道吾善者は 是吾賊이요 道吾惡者は 是吾師니라.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보배가 되는 것이요, 일에 삼가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부적(符籙)이 된다.”
하였다.

太公이 曰 勤爲無價之寶요 慎是護身之符니라.

-
- 부적(符籙): 불가(佛家)나 도가(道家)에서 재앙을 막기 위하여 만든 종이.

●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자기의 삶을 잘 보호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자기 몸을 잘 보호하는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니, 욕심이 없기 오히려 쉽다 하겠으나 자기 이름이 세상에 나는 것을 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景行錄에 曰 保生者は 寡慾하고 保身者は 避名이니 無慾은 易하나 無名은 難이니라.

[예담] 어진 정사를 베풀어 나라 안에 굶주리는 백성이 없이 처처에 격양가를 부르며 태평성대를 누리던 중국 요(堯) 임금 때 이야기다.
요 임금이 자기의 뒤를 이을 어진 인물을 사방으로 구하던 중 허유(許由)란 사람이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재주가 월등한 인재란 것을 알고 기산(箕山)(지금의 河南省 登封縣 동남에 있는 산)에 숨어 사는 그를 집으로 찾아갔다.

집이라야 겨우 바람을 가릴 수 있는 쓸쓸한 오두막집에 임금이 행차를 한 것이다. 그러나 허유는 무뚝뚝한 어조로,

“나랏일이 자못 바쁘실 터인데 이 먼 곳을 나심은 웬일이십니까?”

자기를 찾아온 손님, 임금님께 향한 첫 마디 말을 던졌다. 요 임금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일찍부터 높은 이름을 들어왔으나 찾아 뵈움이 오히려 더디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과인은 이미 늙고 또 힘이 부족하니 주인께서 이 천하를 맡아 주셔야 창생(蒼生)들이 배부르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굴빛이 일변한 허유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디론지 달려가는 것이었다. 임금을 자기의 외딴 집에 남겨둔 채 달다 쓰다 말 한 마디 없이 집을 나선 허유가 다른 곳은 영천(潁川)이란 개울가였다. 영천 개울가에 온 그는 급히 냇물로 귀를 닦아내었다. 닦고 또 닦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귀를 닦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 그때 소에게 물을 먹이러 그곳에 왔던 소부(巢父)가 이 광경을 보고는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갑자기 귀는 왜 그렇게 요란하게 닦느냐고 사람이 옆에 와도 모른단 말인가? 여보게 허유! 귀에 무슨 똥이라도 묻었단 말인가?”

소부도 역시 속세를 등지고 이 근처에 와서 나무 위에 집을 얹고 숨어 사는 은사였다.

허유는 그제서야 소부가 와 있음을 알고는,

“말 말게나 이 사람아! 그런 정도의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야 무슨 걱정이겠나?”

하며 여전히 귀를 닦는 동작을 쉬지 않으며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나? 속 시원하게 말이나 좀 하게나.”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허유는 마지못해 하며 입을 열었다.

“아, 글썄 요 임금이 오늘 우리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천하를 나더러 맡으라 하지 않겠나? 그런 더러운 말을 이 귀로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이 더러움을 말끔하

게 씻어낼 수 있을는지?”

“아니 뭐! 뭐라구? 에이! 그 더러운 귀를 닦은 더러운 물을 하마터면 우리 소에게 먹일 뻔했군.”

소부는 부라부라 넷물 상류를 향해서 급히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다. 세상에 “자기 몸을 보존하려는 자는 이름을 피한다.”

했지만 천하를 준다는데 이것을 더럽다 하여 버렸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그렇기에 사마천(司馬遷)은 자기가 쓴 《사기(史記)》에서,

“내 기산(箕山) 위에 올라가니 거기 허유(許由)의 묘가 있다고 하더라(余登箕山 蓋有許由塚云).”

하여, 허유의 실존 인물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허유의 이 사실은 다른 역사에도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성 싶다.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세 가지의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첫째, 젊었을 때는 혈기(血氣)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색(女色)을 경계하는 것이요, 둘째로 몸이 장성한 뒤에는 혈기(血氣)가 바야흐로 굳세어지기 때문에 남과 싸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요, 셋째로 늙은 뒤에는 혈기(血氣)가 벌써 쇠약해지는 때문에 재물을 탐하는 것을 경계한다.”

하였다.

子曰 君子有三戒하니 少之時엔 血氣未定이라 戒之在色하고 及其壯也하얀 血氣方剛이라 戒之在鬪하고 及其老也하얀 血氣既衰라 戒之在得이니라.

• 군자(君子): 도(道)를 닦아 인격이 훌륭한 사람.

●손진인(孫真人)의 《양생명(養生銘)》에 말하기를,

“너무 몹시 성을 내면 기운을 상하게 되고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정신을 손실하게 된다. 정신이 피로하고 보면 마음을 수고롭게 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여기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 슬픈 것이나 기쁜 것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음식도 양에 알맞게만 먹어라. 자주 밤에 술을 마셔서 취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첫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하였다.

孫真人 養生銘에 云 怒甚偏傷氣요 思多太損神이라. 神疲心易役이요 氣弱病相因이라 勿使悲歡極하고 當令飲食均하며 再三防夜醉하고 第一戒晨噀이라.

• 손진인(孫真人): 도가(道家)의 선생.

• 양생명(養生銘): 생명을 기르는 데 유의하는 글. ‘명(銘)’이란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는 뜻.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음식을 담박하게 먹으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꿈을 꾸어도 편안하다.” 하였다.

景行錄에 曰 食淡精神爽이요 心淸夢寐安이니라.

●마음을 정하여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定心應物이면 雖不讀書나 可以爲有德君子니라.

●《근사록(近思錄)》에 말하기를,

“화나는 것을 참기를 마치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나는 것을 막기를 마치 터져 나오는 물을 막는 것처럼 하라.”

하였다.

近思錄에 云 懲忿을 如救火하고 窒慾을 如防水하라.

●《이견지(夷堅志)》에 말하기를,

“여색(女色)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 피하기를 날아오는 화살 피하듯 하라. 속이 비었을 제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밥을 적게 먹어라.”

하였다.

夷堅志에 云 避色如避讐하고 避風如避箭하라. 莫喫空心茶하고 小食中夜飯하라.

• 이견지(夷堅志): 송(宋)나라 때 홍매(洪邁)가 지은 책. 주로 신선(神仙)과 귀신에 관한 일을 기록했다.

[예담] 김유신(金庾信)은 15세 때에 화랑이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할 뿐 아니라 온갖 무술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주위 사람들은 그가 장차 커서 훌륭한 무인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가 태어난 당시 신라는 청소년들에게 심신(心身)을 단련하고 무술을 연마하도록 하여 장차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역군을 양성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화랑도다. 그가 17세 되던 해에 고구려와 말갈이 국경을 자주 침범해 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는 중악(中嶽)의 석굴에 홀로 들어가 비상한 술법을 익히게 해줄 것을 하늘에 빌었다.

이렇게 하기 나흘째 되던 날, 홀연히 한 노인이 그 앞에 나타났다.

“여기는 험준한 산 속이라 사나운 짐승이 많은데 어찌하여 이런 위험한 지경에 들어왔는고?”

깜짝 놀란 소년 김유신은,

“저는 신라 사람인데 나라의 원수를 보고 그대로 참을 수 없어 이를 무찌를 힘을 제게 주십사 하고 여기에 왔사오니 부디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였다.

소년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인 그 노인은 삼국을 통일할 비법을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김유신의 무예는 일취월장,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의 이러한 정신과 무술은 후에 삼국 통일의 대업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일찍이 방탕한 시절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술과 여자에 빠지고 한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 김유신이 마음을 두고 사귀는 여자에 천관(天官)이란 여인이 있었다. 그는 천관에게 혹한 바 되어 하루도 그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말을 달리고 활을 당기는 순간에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천관의 아리따운 자태였고 낭도(郎徒)들과 국가의 앞날을 의논하다가도 옥을 굴리는 듯한 천관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것 같았다.

이를 알아챈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은 아들을 불러 크게 꾸짖었다.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네가 일개 여인에게 혹하여 가문을 더럽히니 이게 웬일이란 말이나!”

어머니의 호된 꾸중을 듣고 김유신은 흐느껴 울며 다시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골똥히 무엇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가 탄 말이 전일의 습관대로 천관의 집으로 발을 옮겼다.

오랜만에 찾아온 그를 보고 천관이 달려 나오며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자기의 말이 자기를 태우고 찾아온 곳이 바로 천관의 집임을 안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말의 목을 베고 말았다. 이로써 그는 여색에 탐혹됨이 없이 훗날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색 피하기를 원수같이 하라!”

과연 김유신은 이 명언을 그대로 실천한 자이다.

●순자(荀子)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하지 말 것이다.”

하였다.

荀子 曰 無用之辯과 不急之察을 棄而勿治하라.

• 순자(荀子): 이름은 황(況). 중국 전국시대의 조(趙)나라 사람.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학자임.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좋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살피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살피볼 것이다.”

하였다.

子曰 衆이 好之라도 必察焉하며 衆이 惡之라도 必察焉이니라.

- 술이 취한 중에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君子)이고 재물을 가지고 분명히 가리는 것은 대장부(大丈夫)이다.

酒中不語眞君子요 財上分明이 大丈夫니라.

- 모든 일을 행하는데 너그럽게 하면 자기에게 오는 복(福)이 저절로 많아진다.

萬事從寬이면 其福自厚니라.

[예담] 음애(陰崖) 이자(李紆)는 조선 중종(中宗) 때 사람으로 벼슬이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일찍이 한충(韓忠)·남곤(南袞)과 더불어 북경(北京)에 사신으로 가는데 도중에 남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남곤(南袞)은 그때 이름난 소인(小人)으로써 자기 편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해치고 있는 판이었다.

동행하고 있던 한충은,

“저놈이 죽지 않으면 뒷날 조정에 어진 선비라고는 씨가 없을테니 죽게 내버려두라.”하고 조금도 구해줄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李紆)는 지성껏 그를 구호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죽는 것이야 낸들 아까울 게 있으리오만 만리타국에 함께 오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내버려둔단 말인가?”

하고 열심히 간호한 결과 다행히 남곤은 객사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후 남곤은 세력을 잡았다.

소위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선비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는데, 이자(李紆)만은 자기를 살려준 은덕으로 해서 죽이지 않고 파직만 시켜서 내쫓았다.

만일 그때 한충과 같이 남곤의 병을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이자 역시 도저히 그에게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은 분명하다.

이자(李紆)는 또한 소인(小人) 김안로(金安老)와도 인척(姻戚)관계가 있고 또 주계군(朱溪君) 밑에서 함께 공부를 한 동문생(同門生)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정계에 나서자 김안로와는 일마다 상처가 되어 안로(安老)는 어느 때고 그를 해치려고 버르고 있었다.

기묘사화에 이자가 파직 당하고 용궁(龍宮) 땅에 와 있는데 마침 김안로가 좌의정(左議政)으로 그 근처의 선영(先塋)에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자(李紆)를 찾게 되었다.

사실 김안로는 이자에게서 무슨 트집을 잡아 끝내 죽여 버리려던 심산이었다.

이런 속셈을 미리 알아차린 이자(李紆)는 얼굴에 일부러 괴화탕(槐花湯)을 발라 중병 환자처럼 차리고 이불을 쓰고 누웠으니 안로(安老)는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손을 잡고 위로하며 거짓 눈물까지 흘려 작별했다.

안로가 밖에 나와 종자(從者)들을 보고 말하기를,

“음애(陰崖)의 병이 저러하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

하고 만족해 했다.

만사를 너그럽게 처리했기 때문에 큰 화를 면한 본보기의 이야기다.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남의 마음을 헤아려보고자 하거든 먼저 자기 마음을 헤아려 보라.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니 입속에 피를 물고 남에게 뽀고자 하면 먼저 자기 입을 더럽혀야 한다.”

하였다.

太公이 曰 欲量他人커든 先須自量하라. 傷人之言은 是自傷이니 含血噴人이면 先汚其口니라.

- 공연히 희롱하고 놀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직 부지런한 사람만이 공을 세울 수 있다.

凡戲는 無益이요 惟勤이 有功이니라.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남의 외 밭에는 들어가지 말 것이요, 과일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太公이 曰 瓜田에 不納履요 李下에 不正冠이니라.

- 《경행록 (景行錄)》에 말하기를,

“마음은 편안하게 갖더라도 몸은 항상 수고로워야 하고 도는 즐겨하더라도 마음 속에는 걱정이 있어야 한다. 몸이 수고롭지 않고 보면 게으른 폐단이 생기기 쉽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없고 보면 주색(酒色)의 음탕한 데로 흐려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것은 수고하는 데서 생겨서 항상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은 걱정하는 데서 생겨서 언제라도 싫지 않은 것이니 모든 일에 편안하고 즐겁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 걱정과 수고로움을 잊을 수 있으리오?”

하였다.

景行錄에 曰 心可逸이언정 形不可不勞요 道可樂이언정 心不可憂니 形不勞면 則怠惰易弊하고 心不憂면 則荒淫不定故로 逸生於勞而常休하고 樂生於憂而無厭하나니 逸樂者は 憂勞를 豈可忘乎아.

● 귀로는 남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말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短點)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않아야만 거의 군자(君子)라고 할 것이다.

耳不聞人之非하고 目不視人之短하고 口不言人之過라야 庶幾君子니라.

● 채백개(蔡伯喈)가 말하기를,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蔡伯 曰 喜怒는 在心하고 言出於口하나니 不可不慎이니라.

• 채백개(蔡伯喈): 이름은 웅(邕), 백개(伯喈)는 그의 자(字). 후한(後漢) 영제(靈帝) 때 학자.

● 재여(宰予)가 낮잠 자는 것을 보고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彫刻)을 할 수가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아올린 담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하였다.

宰予晝寢이어늘 子曰 朽木은 不可彫也요 糞土之牆은 不可汚也니라.

● 재어(宰予): 자는 자아(子我).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사람으로 공자의 높은 제자.

● 자허원군(紫虛元君)의 《성유심문(誠諭心文)》에 말하기를,

“복(福)이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德)은 자기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데서 생기고 도(道)는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명(命)은 화평하고 마음을 밝게 갖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또 근심이란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부리는 데서 생기고, 화(禍)라는 것은 부질없이 재물을 몹시 탐하는 데서 생기고, 과실은 경솔하고 몸을 거만하게 갖는 데서 생기고, 죄는 모든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눈을 경계해서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고, 입을 경계해서 남의 단점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경계해서 재물을 탐하거나 공연히 성내지 않도록 하고, 몸을 경계해서 나쁜 친구를 따라 다니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말을 쓸데없이 지껄이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임금이나 위사람을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德)이 있는 이를 잘 받들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무식한 사람은 모든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무슨 물건이나 순리(順理)로 자기에게 오거든 이것을 막지 말고, 물건이 이미 가버렸거든 좇으려고 하지 말라. 자기 몸이 남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여 이것을 억지로 바라지 말고 무슨 일이나 이왕 지나가 버렸거든 이것을 생각할 것이 없다.”

하였다. 다음으로 말하기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둡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옳게 세운 계획도 어찌다보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 남에게 손해를 보이려다가 마침내 손실을 보는 수도 있고, 너무 세력에만 의존하다 보면 화가 따라오는 수가 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자기 기운으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언제나 절약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망하는 법이고,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잃기 마련인 것이다. 그대에게 내 평생 경계할 것을 권하노니 모든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보살피도록 할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거울이 내려다보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땅의 신령이 언제나 살피고 있다.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죽어 저세상에 가도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살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직 바른 것을 지켜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하였다.

紫虛元君誠諭心文에 曰 福生於清儉하고 德生於卑退하고 道生於安靜하고 命生於和暢하고 患生於多慾하고 禍生於多貪하고 過生於輕慢하고 罪生於不仁이니라. 戒眼하야 莫看他非하고 戒口하야 莫談他短하고 戒心하야 莫自貪嗔하고 戒身하야 莫隨惡伴하라. 無益之言을 莫妄說하고 不干己事를 莫忘爲하고 尊君王孝父母하고 敬尊長奉有德하고 別賢憂愚恕無識하고 物順來而勿拒하여 物既去而勿追하고 身未遇而勿望하고 事已過而勿思하라. 聰明도 多暗昧요 算計도 失便宜니라. 損人終自失이요 依勢禍相隨라. 戒之在心하고 守之在氣니라. 爲不節而亡家하고 因不廉而失位니라. 勸君自警於平生하나니 可歎可警而可思니라. 上臨之以天鑑하고 下察之以地祗라. 明有三法相繼하고 暗有鬼神相隨라. 惟正可守요 心不可欺니 戒之戒之하라.

• 자허원군(紫虛元君): 도가(道家)에서 받드는 신(神).

• 성유심문(誠諭心文): 문장의 이름. 정성껏 마음을 계유(戒諭)하는 글이라는 뜻.

[예담] 중국 제후국(諸侯國) 오(吳)나라의 정승 원앙(爰盎)은 자기 밑에 있는 종사관(從事官)이 시녀(侍女)와 간통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원앙은,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시녀(侍女) 한 사람 때문에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를 죄줄 수도 없으니 차라리 모른 채하는 것이 옳겠다.”

하여 그 일을 불문에 붙인 채 그대로 넘겨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종사관은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남몰래 도망해 버렸다. 원앙은 이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 종사관을 찾아다가 옛날 자리를 그대로 주고 도리어 공공연하게 시녀를 내주어 데리고 가서 살도록 했다.

“너는 이 여자 하나만을 사랑하지만 나는 이 여자 이외에도 많은 시녀들이 있으니 상관없다. 너는 사랑하는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

하여 종사관을 안심시키고 일을 잘 보도록 타일렀다.

그 후 원앙은 오왕(吳王)과 틈이 생겨서 정승의 자리를 그만두고 한(漢)나라로 가서 벼슬을 하다가 한왕(漢王)의 명령으로 오국(吳國)에 가니 오왕은 이 기회에 원앙을 죽여 버리려고 군졸 5백명을 풀어 그의 숙소를 포위하고 원앙을 잡으려 했다.

이 때 오국의 병권을 잡고 있는 대장 하나가 술을 한독 가져다가 군졸들에게 퍼먹여 그들을 모두 뿔아떨어지게 해놓고서 원앙의 숙소에 들어가 원앙에게 말한다.

“상공(相公)께서는 빨리 도망하십시오. 오왕께서 상공을 죽이려고 군졸들을 풀어 숙소 주위를 포위하고 있으니 형세가 몹시 위태합니다. 날이 새기 전에 어서 피하십시오.” 한다.

원앙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망을 할 수 있겠소. 그리고 당신은 대관절 누구시기에 이 긴박한 처지에 감히 나한테 내통을 하시오?”

“상공께서는 세월이 오래되어 소인을 잊으셨나이까? 저는 상공께서 주신 시녀를 데리고 사는 그 당시의 종사관이었고 지금은 대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제 뒤만 따르십시오. 군졸들은 지금 독주를 먹여 쓰러지게 해 놓았으니 이 틈에 어서 도망하십시오. 대장은 원앙을 인도하여 서남쪽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오자 날

랜 말 한 필을 주면서 손짓하여 어서 가라고 서남쪽을 가리킨다. 원앙은 말을 달려 날이 새기 전에 100여리를 달아나니 이튿날 아침에야 오왕은 원앙이 달아난 것을 알고 뒤를 쫓게 했으나 따르지 못하고 말았다.

은덕을 배풀면 자연히 복이 돌아온다. 만일 전날에 시녀와 내통한 것을 알고 종사관을 죄주었더라면 이런 곤경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으랴?

[총론] 이 정기편(正己篇)에서는 일상생활(日常生活)에 반성을 다하고 군자(君子)는 혼자 있을 때에 행동을 삼가(愼獨)는 일에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서 희로(喜怒哀)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을 것과, 맑고 청렴하고 담백(淡泊)한 생활을 권장하는 의미의 가언(嘉言)들을 수록했다.

6

안분편(安分篇)

안분편(安分篇)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자기가 처하고 있는 것에 족한 것을 알면 즐거운 것이요 재물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면 자연 근심이 된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知足이면 可樂이요 務貪則憂니라.

[예담] 신라(新羅) 제2대 임금 남해왕(南解王)의 사위는 석탈해(昔脫解)였다.

남해왕이 죽자 남해왕의 아들인 태자(太子)는 자기 매부(妹夫)인 석탈해(昔脫解)에게 왕위를 사양하려고 한다.

이는 석탈해가 당시 대보(大輔)의 자리에 있어 공로가 클 뿐 아니라, 인격이 어질고 근실하여 임금될 만한 덕망이 있으니, 마땅히 이런 사람을 왕위에 올려놓아야만 신라의 국체가 흥륭(興隆)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탈해는 그대로 왕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가지 핑계로 굳이 사양한다.

“왕위란 거룩하고 지극히 존엄한 자리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자리에 오른단 말ियो? 태자가 마땅히 선왕(先王)의 자리를 계승해서 왕위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왕위를 양보하여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다.

석탈해는 한 가지 꾀를 내어 태자에게 말했다.

“내가 듣건대 옛날로부터 이(齒)가 많은 사람은 덕망(德望)이 있다 하였으니 어디 누가 이가 많은지 세어봅시다.”

그는 평소 태자의 이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여 왕위를 사양할 구실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들이 각각 턱을 베어 물어 보니 석탈해가 예측한대로 태자의 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대로 왕위에 올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이 되었다.

그러나 유리왕은 죽을 때 자기의 두 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하기를,
“석탈해는 우리 신라 조정의 중신(重臣)이요 왕가(王家)의 인척(姻戚)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동안 수많은 공을 세워 왔다. 나에게 비록 두 왕자가 있기는 하지만 탈해에게 비교해 보면 모두 용렬해서 임금이 되어 어려운 정사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내가 죽은 뒤에는 탈해에게 이 자리를 계승하게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석탈해는 제4대 왕이 되었다. 그는 왕위에 있는 23년 동안에 허다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하지만 석탈해는 종시 이 왕위가 타인에게 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여 불안하게 생각하던 나머지 결국 유리왕(儒理王)의 태자에게 도로 돌려보내서 제5대 파사왕(婆娑王)을 삼았던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위를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일삼은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유리왕과 석탈해의 아름다운 일화를 들을 때 가슴이 흐트해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왕위를 양보하는 석탈해야말로 자기의 죽한 바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 “죽한 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비록 가난하고 천한 데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죽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아무리 부자가 되고 귀(貴)하게 되어도 역시 근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知足者は 貧賤도 亦樂이요 不知足者は 富貴도 亦憂니라.

-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한갓 정신만 손상하는 것이 되고 부질없이 움직이는 것은 도리어 화를 불러오게 된다.

濫想은 徒傷神이요 妄動은 反致禍니라.

- 자기의 족한 것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고 그 칠 곳을 알아 항상 그치고 보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知足常足이면 終身不辱하고 知止常止면 終身無恥니라.

[예담] 조선 정조(正祖) 때 일이다.

정승 부인 윤씨(尹氏)는 당시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던 김재찬(金載瓚)의 어머니다. 어느 날, 김재찬이 대궐에 들어갔다 나와서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으니 그 어머니가 이유를 물었다.

“실은 이번에 청나라 사신이 왔는데 저희 황제에게 바칠 백은(白銀) 5천 냥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기한은 사흘 밖에 없는데 지금 국고에는 그 절반쯤이나 있을까 말까 하고 지방 감영(監營)에서 가져와도 여러 날이 걸릴 것입니다. 국가의 면도 그렇고 외교상 중대 문제라 그러합니다.”

“호조판서가 그만한 융통도 못하는가? 내 대줄 테니 근심마라.”

“어머님이 어떻게 그 큰 보화를...”

김재찬은 안심이 안되었다.

어머니는 2년 전에 판 집을 다시 사자고 했다. 어머니 말씀이라 하는 수 없이 시세의 배나 되게 집값을 물고 다시 사들였다. 당장 사야 한다가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집주인도 호조판서가, 더구나 집값을 많이 물고 사자니까 두말 없이 그날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윤씨는 하인들에게 그 집 부엌을 파도록 명령했다. 부엌 바닥에서 커다란 은독이 세 개나 나왔다.

그 마제은(馬蹄銀)에는 명나라 연호가 새겨져 있었다.

김재찬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윤씨에게 영문을 물었다.

“5천 냥을 얻은 청국 사신에게 갖다 줘라. 이것은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때 군용 품으로 가져왔다가 두고 간 것이니까 결국 제 돈 제가 찾아가는 격이 되었구나. 내가 이 집에 때 부엌을 수리하다가 은독을 발견했으나 도로 물어버렸었다. 그때는 형세가 어려웠었지만 공으로 생긴 걸 어찌 쓰겠느냐? 지금 생각해도 천만 잘한 일이었다. 만일 그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봐라. 돈쓰기에 급급해서 책을 멀리했을 테고 그랬으면 어떻게 판서가 되었겠느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것을 썼으니 청나라 사신에게 주고 남는 것은 국고금으로 헌납하도록 해라.”

김재찬은 어머니 분부대로 했다. 이 사실을 안 정조(正祖)는 크게 탄복하여 마지않았다.

그렇다. 공으로 생긴 돈은 쓸 것이 못된다. 윤씨부인의 이러한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집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국가에도 매우 유효한 행동이 되었던 것이다. 만일 윤씨로 하여금 당시의 생활을 부족하게 생각하여 이 마제은을 파내서 썼더라면 국가에 유공한 일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집의 흥망이 어찌 되었을지 장담 못할 일이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무슨 물건이 가득히 차면 줄어들게 마련이고 겸손하게 하면 이익을 본다.”

하였다.

書에 日 滿招損하고 謙受益이니라.

- 서경(書經): 중국 고대(古代)의 훌륭한 임금들의 나라 다스리던 큰 법도를 기록한 책. 《시경(詩經)》과 함께 유명한 경전(經典)의 하나.

● 격양시(擊壤詩)에 말하기를,

“자기 분수에 편안하게 하면 몸에 욕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일의 돌아가는 기틀을 알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로워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난 인간이 될 것이다.”

하였다.

擊壤詩에 云 安分身無辱이요 知機心自閒이라. 雖居人也上이나 却是出人間이라.

-
- 격양시(擊壤詩): 송(宋)나라 때 소옹(邵雍)이 지은 시(詩).

[총론] 여기에서는 자기 신분(身分)의 분수를 알아 허탄한 것을 바라지 말고 부질 없이 호화로운 사상누각(沙上樓閣) 같은 향락(享樂)보다는 실질적이며 정신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명언(名言)들을 들었다.

“매사에 분수를 알라!”

이 옛말을 안분편(安分篇)에서 우리는 다시금 배울 수 있다.



존심편(存心篇)

존심편(存心篇)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좁은 방에 앉았어도 큰 길을 다니는 것처럼 하고 마음 갖기는 말 여섯 필을 부리는 것처럼 조심조심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것이다.”

景行錄에 云 坐密室을 如通衢하고 馱寸心을 如六馬면 可免過니라.

●격양시(擊壤詩)에 말하기를,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을 만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공자(孔子) 같은 이는 젊은 시절에 당의 제후(諸侯)에 봉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밤중에 일어나 앉아 자기 마음으로 근심만 한다.”

하였다.

擊壤詩에 云 富貴를 如將智力求면 仲尼年少合封侯라. 世人은 不解青天意하고 空使身心半夜愁라.

• 중니(仲尼): 공자(孔子)의 자(字).

●범충선공(范忠宣公)이 자제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남의 잘못하는 과실을 책망하기는 분명히 하는 것이 제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데에는 어두운 법이다. 그

러니 너희들은 마땅히 남의 과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책망하고 자기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성현(聖賢)의 경지(境地)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

하였다.

范忠宣公이 戒子弟曰 人雖至愚나 貴人則明하고 雖有聰明이나 恕己則昏이니 爾曹는 但當以責人之心으로 責己하고 恕己之心으로 恕人則不患不到聖賢地位也니라.

-
- 범충선공(范忠宣公): 이름은 순인(純仁), 자는 요부(堯夫), 북송(北宋)의 명신(名臣)인 범중엄(范仲淹)의 아들로 철종(哲宗) 때의 재상.

● 공자가 말하기를,

“아무리 총명하고 생각하는 것이 투철하더라도 어리석은 것처럼 자기 몸을 지켜나가고, 아무리 자기가 세운 공덕(功德)이 천하를 덮을지라도 사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지켜 나가고, 자기의 용기와 힘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겁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 몸을 지켜나가고, 아무리 사해(四海)를 차지할 만큼 부자가 되더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몸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子曰 聰明思睿라도 守之以愚하고 功積天下라도 守之以讓하고 勇力振世라도 守之以怯하고 富有四海라도 守之心謙이니라.

[예담] 중국 오랑캐 나라인 흉노(匈奴)의 이야기다.

흉노의 목특(胃頓)이라면 흉악한 침자로 알려져 있으나 목특에게는 이러한 일화가 있다. 동호(東胡)라는 이웃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귀국에 용마(龍馬)가 있다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하고 청해왔다.

목특이 이것을 내어주려 하자 좌우 신하들은,

“그것은 국보(國寶)인데 어찌 경솔히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하고 반대한다.

그러나 목특은,

“아무리 국보라 하지만 그건 한개 말에 지나지 않는데 뭇을 그리들 야단인가?”

하고는 내어주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동호는 목특의 만만한 꼴을 안지라 이번에는,

“대왕에게는 비빈(妃嬪)과 희첩(姬妾)이 많다니 한 사람만 양보해 보낼 수 없으실
까요?”

하고 청해왔다.

이번에도 신하들은,

“이것은 우리 국왕(國王)을 모욕하는 언사이오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펄펄 뛰었으나 목특은,

“그건 한개 천첩에 관한 일인데 과히 시끄럽게 생각할 게 없다.”

하고는 미희(美姬) 하나를 화장시켜 내어주는 것이었다.

이번에 또 동호(東胡)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토지를 달라!”

하고 강요했다.

좌우의 신하들은 이번에는 차라리,

“그까짓 불모(不毛)의 땅을 좀 베어 주기로서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으레 목특이 이것을 내어주려니 했으나 일은 판판이었다.

“아무리 불모의 땅이라도 내 나라 땅인데 나라의 땅을 어찌 한 치인들 남에게 내어
줄 수가 있을까보냐?”

이렇게 역정을 낸 목특은 불시에 군사를 동원시켜 질풍迅雷처럼 동호를
공격하니, 천만 의외에 당하는 일이고 아무런 준비도 없던 터여서 동호는 그대로

앞아서 망하고 말았다. 남에게 교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면 망하는 법이다. 이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이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소서(素書)》에 말하기를,

“자기가 주기는 박하게 하고 후하게 받으려고 바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보답(報答)이 없고, 자기 몸이 귀하게 된 뒤에 천했을 때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지위가 오래 가지 못한다.”

하였다.

素書에 云 薄施厚望者는 不報하고 貴而忘賤者는 不久니라.

-
- 소서(素書): 한(漢)나라 황석공(黃石公)이 지었다 하나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은 후인(後人)이 지은 것으로써 그 저자(著者)는 분명치 않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것을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물건을 주었거든 뒤에 뉘우치지 말라.”

施恩勿求報하고 與人勿追悔니라.

[예담] 손사막(孫思邈)이 말하기를,

“담력(膽力)은 크게 갖고자 하더라도 마음만은 작은 양 항상 조심스럽게 하고 지혜는 넓고 둥글게 갖고자 하더라도 행동하는 것은 반듯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孫思邈이曰 膽欲大而心欲小하고 知欲圓而行欲方이니라.

-
- 손사막(孫思邈): 당(唐)나라 사람으로 도교(道教)를 믿었고 의술(醫術)이 유명했다.

● 긴장한 생각은 마치 전쟁에 나아가는 날과 같이 하고 몸조심하기를 항상 다리(橋)를 건너가는 때와 같이 하라.

念念要如臨戰日이요 心心常似過橋時니라.

● 법을 무서워하면 언제나 즐거운 것이요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되는 것이다.

懼法朝朝樂이요 欺公日日憂라.

● 주문공(朱文公)이 말하기를,
“입 지키기를 마치 병마개 막아놓듯하고 욕심을 막기를 성 막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朱子曰 守口如瓶이요 防意如城이니라.

-
- 주문공(朱文公): 이름은 희(熹). 자는 원희(元晦). 문공(文公)은 그의 시호(諡號). 남송(南宋)의 유명한 학자로서 근세유학(近世儒學)인 성리학(性理學)을 대성(大成)했다(1130~1200).

- 자기 마음으로 남을 저버림이 없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을 것이다.

心不負人이면 面無慙色이니라.

- 사람은 백 살 사는 사람이 없는데 공연히 천 년의 계획을 세운다.

人無百歲人이나 枉作千年計니라.

- 구래공(寇萊公)의 《육회명(六悔銘)》에 말하기를,

“벼슬할 적에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고 보면 벼슬이 떨어질 때 이것을 뉘우치게 되고, 부자로 살 적에 검소하게 쓰지 않고 보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를 뉘우치게 되고, 재주를 젊었을 때 배우지 않고 보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학문을 써먹게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되고, 술 취했을 때 아무 말이나 했다가는 깨고 난 뒤에 뉘우치게 되고, 몸 성할 적에 휴양하지 않았다가는 병든 뒤에 후회하게 된다.”
하였다.

寇萊公의 六悔銘에 曰 官行私曲失時悔요 富不儉用貧時悔요 藝不少學過時悔요 見事不學用時悔요 醉後狂言醒時悔요 安不將息病時悔니라.

• 구래공(寇萊公): 이름은 준(準), 북송(北宋) 진종(眞宗) 때의 재상.

●《익지서(益智書)》에 말하기를,

“차라리 아무 연고가 없이 집이 가난하게 지낼지언정 연고가 있으면서 집이 부자가 되지는 말 것이요, 차라리 아무런 연고가 없이 초가집에 살지언정 연고가 있으면서 훌륭한 집에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몸에 병이 없이 조밥을 먹고 살지언정 병이 있어 가지고 좋은 약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益智書에 云 寧無事而家貧이언정 莫有事而家富요 寧無事而住茅屋이언정 不有事而住金屋이요 寧無病而食羸飯이언정 不有病而服良藥이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아무리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이것이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을 먹어도 오히려 향기가 난다.

心安茅屋穩이요, 性定菜羹香이니라.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남을 잘 꾸짖는 사람은 사람과 사귀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곧잘 용서하는 사람은 종시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責人者는 不全交요 自恕者는 不改過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자기가 충성하고 효도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남이 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알 것이지요,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서 만족스러이 자기 일신만 위하는 사람은, 자기 일신은 비록 편안할는지 몰라도 그 자손의 앞날에 대해서 어찌될 것인지 알겠는가?

夙興夜寐하여 所思忠孝者는 人雖不知나 天必知之요 飽食煖衣하여 怡然自衛者는 身雖安이나 其如子孫에 何요.

●제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의 효도는 그야말로 더 이를 나위 없이 꼭진한 것이 될 것이고, 제가 차지하고 있는 부귀(富貴)를 보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임금을 받든다고 한다면 충성 아닌 때가 없을 것이다. 또 남의 과실을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고, 자기 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그 사귀을 온전히 할 것이다.

以愛妻子之心으로 事親이면 則曲盡其孝요 以保富貴之心으로 奉君이면 則無往不忠이요 以責人之心으로 責己면 則寡過요 以恕己之心으로 恕人이면 則全交니라.

●네가 계획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뒤에 뒤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네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가르쳐준들 무슨 유익한 점이 있겠는가? 이익을 취할 마음만 갖는다면 이는 올바른 도(道)에는 어긋나는 것이고 제 사사로운 뜻이 굳고 보면 공사(公事)를 망치는 것이다.

爾謀不臧이면 悔之何及이며 爾見不長이면 教之何益이리오. 利心專則背道요 私意
確則滅公이니라.

- 일이란 만들면 더 생기는 것이고 줄이면 적어지는 것이다.

生事事生하고 省事事省이니라.

[총론] 사람은 언제나 겸손함과 양보함과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자기에겐 잘못이 있는지 언제나 반성(反省)을 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사를 운명에 순종하고 어기지 마라. 가난을 이기는 생활에 만족하라는 교훈이 이 존심편(存心篇)의 줄거리이다.

계성편(戒性篇)

계성편(戒性篇)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한 번 엇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성품도 역시 한 번 방종(放縱)해지고 보면 다시 본 마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막으려면 반드시 독을 쌓아서 막아야 하고 성품을 바로잡자면 반드시 예법(禮法)으로 억제해야 한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人性이 如水하여 水一傾則不可復이요 性一縱則不可反이니 制水者는 必以堤防이요 制性者는 必以禮法이니라.

[예담]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이야기다.

주매신(朱買臣)이란 사람은 집이 어찌나 가난하던지 나이 40에 손수 나무를 베어다가 팔아서 겨우 호구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글 읽기를 좋아해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나 장거리로 나무를 팔러 가나 쉴 때에는 언제나 책을 펴들고 읽었고,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나 책을 펴들고 읽으면서 걸었다. 나무 지계를 지고 책을 읽으면서 다니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미친 사람 같기도 해서 어린 아이들은 주매신의 이 꼴을 보고 수십 명씩 모여들어 조롱하곤 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이 꼴을 보고 몹시 창피하게 생각했던지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가 바쁘게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어댄다.

“여보! 나무를 팔면 나무나 팔 일이지 웬 책을 길거리에서도 읽는단 말ियो? 당신은 어린애들이 놀려대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시오?”

그러나 주매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다.

“허참! 나무는 등에 젖고 책은 손으로 들고 읽는데 무슨 상관이 있단 말ियो? 나는 공부 아직 미숙해서 공명(功名)을 이루지 못한즉 죽기 한하고 글을 읽으려는 것인데 창피가 무슨 창피란 말ियो?”

주매신의 고집은 대단해서 그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도 여전히 글을 읽으면서 산으로 올라갔다. 며칠 이 거동을 보고만 있던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다.

“난 아무래도 창피해서 당신과 살 수 없으니 딴 데로 가겠소.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오.”

“여보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이건 모두 장래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고생인데 조금만 참고 견디어 봅시다. 용하다는 사주쟁이가 그러는데 나도 50만 되면 출세를 한다 하니 몇 해만 참아 봅시다.”

“원 별놈의 사주쟁이가 다 있소. 나이 40이 넘고서도 이 꼴 이 모양인데 언제 출세를 한단 말이오. 모두 부질없는 말이니 나는 나 갈 데로 가겠소.”

이리하여 그 부인은 남편의 애끓는 만류도 듣지 않고 표연히 떠나가고 말았다.

그 후 주매신은 과연 50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내 벼슬길에 터져서 일약 회계태수(會稽太守)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회계(會稽)에서는 새로 부임하는 태수를 맞기에 고을 안을 소제하고 길을 닦고 야단이었다. 주매신의 전 아내의 남편도 길 닦는 데 인부로 나왔었는데 그 아내가 마침 점심밥을 가지고 나왔다가 태수의 행차가 지나므로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옆으로 숨었건만 태수는 어느 틈에 옛날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태수는 잠시 수레를 멈추어 옛 아내를 수레 뒤에 싣고 부중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그 아내가 지난날의 과실은 있지만 지금껏 수절하고 산다면 다시 맞이할 생각마저 가졌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새로운 남편이 있단 말을 듣고 웃으면서, “그렇다면 하는 수 없소. 나가서 잘 사시오.”

하여 돌려보냈다.

그 여인은 울며불며 다시 살기를 애원했다. 태수는 하인을 불러 물 한 동이를 떠오라 하여 옛 부인 앞에 물을 쏟고 나서,

“자! 이 물을 다시 퍼 담아서 한 동이가 찬다면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소.”

하고 말했다.

엎지른 물이 다시 담아질 리가 없다. 태수는 다시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일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저 옆지른 물과 같은 것이요, 부인은 소원대로 나와 헤어졌으니 이제 무슨 후한이 있겠소?

● 한때의 화나는 것을 참아 이기고 보면 앞으로 백일 동안 근심할 것을 면하게 된다.

忍一時之忿이면 免百日之憂니라.

[예담]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연회를 베풀어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던 어느 날 밤의 일이다.

술이 여러 순배 돌아 바야흐로 주흥이 도도하고 흥취가 한창일 즈음 돌연 촛불이 꺼져 방안이 깜깜해지고 말았다. 이때 왕의 곁에는 애첩이 그를 모시고 술을 권하고 있었는데 주위가 깜깜해서 바로 옆 사람도 분별할 수가 없는 틈을 타서 어느 신하 하나가 왕의 애첩에게 입을 맞추었다. 왕의 애첩은 너무도 불시에 당하는 일이라 영겁결에 그 신하의 갓끈을 잡아 떼고 급히 왕에게 아뢰었다.

“불이 꺼진 틈을 타서 어느 무례한 놈이 소첩에게 해괴한 짓을 하였습니다. 소첩이 그 놈의 갓끈을 잡아 떼었사오니 빨리 불을 켜고 그 놈을 잡아 엄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은 큰 소리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갓끈을 땔 지어다. 만일 갓끈을 떼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크게 벌하리라.”

하고 영을 내렸다. 왕의 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하들은 하나 빠짐없이 갓끈을 떼어 버렸다. 나중에 불을 켜으나 누가 왕의 애첩에게 입을 맞춘 사람인지 가려낼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일이 있는 지 2년이 지난 후 진(晉)나라가 초나라로 쳐들어왔다. 군력이 초나

라 보다 훨씬 강한 진나라는 싸우는 곳마다 초나라 군사를 무찌르고 승승장구 진격을 거듭하여 초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급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초나라 장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진나라 군사의 진중이 어지러워지며 한 장수가 그리로 달려들더니 진나라 장수를 차례로 베고 해쳐 나가니, 진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여 많은 군사를 잃고 길을 다투어 도망하기에 바빴다.

진나라 군사를 쳐 멀리까지 쫓아 보낸 그 장수는 다시 돌아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그대는 대체 누구인데 이런 위급한 지경에 나를 도와 적을 무찔렀는고?”

“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수년 전 연회석상에서 갓끈 땀 일을 기억하고 계시옵니까? 바로 신이 그 때 죄를 지은 놈이옵니다.”

그 장수는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그 때 자기의 지은 죄를 벌하여 줄 것을 말하며, 자기는 그 길로 산에 들어가 왕을 위하여 보답할 일을 생각하고 무술을 익혀 오던 중 오늘과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장수의 말을 듣고 난 왕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공을 치하하고 후히 상을 주었다.

2년 전 초나라 장왕이 잠시 동안의 분을 참지 못하고 애첩의 입을 맞춘 그를 잡아 처벌했던들 오늘의 위기를 면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초나라 장왕은 일시의 화남을 참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나라의 근심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 “참을 수 있는 대로 또 참아 이기고 경계할 수 있는 대로 경계하라. 만일 매사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조그만 일이라도 견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다.”

得忍且忍이요 得戒且戒하라. 不忍不戒면 小事成大니라.

●“어리석고 흐린 사람이 남을 꾸짖고 성내고 하는 것은 모두 사리에 통치 못한 까닭이다. 마음 위에 일어나는 분노를 더하지 말고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은 오직 꺾기의 바람으로 여기라.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집집마다 있는 일이고 덥고 서늘한 것은 곳곳이 일반인 것이다. 옳음과 그릇됨은 본래 일정한 모습이 없어서 마침내는 전부가 헛것이 되는 수가 많다.”

愚獨生嗔怒는 皆因理不通이라. 休添心上火하고 只作耳遙風하라. 長短은 家家有요 炎涼은 處處同이라. 是非無相實하여 究竟摠成空이니라.

●자장(子張)이 장차 길을 떠나고자 하여 공자(孔子)께 작별하면서 말하기를,
“원컨대 몸을 닦는 요점을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공자가 말한다.

“백 가지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니라.”

자장(子張)이 다시 묻는다.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자가 다시 대답하기를,

“천자가 일을 참으면 온 국가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고, 제후(諸侯)가 참으면 자기
가 다스리는 땅이 커질 것이고, 관리가 참으면 제 지위가 올라갈 것이고, 형제간에
참으면 그 집이 부귀(富貴)를 누릴 것이고, 부부(夫婦)가 서로 참으면 일생을 함께
해로(偕老)할 것이고, 친구끼리 서로 참으면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
이고, 자신이 혼자서 참으면 화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子張이 欲行에 辭於夫子할새 願賜一言爲修身之美한대 子曰 百行之本이 忍之爲上 아니라. 子張이 曰 何爲忍之니이고. 子曰 天子忍之면 國無害하고 諸侯忍之면 成期大하고 官吏忍之면 進其位하고 兄弟忍之면 家富貴하고 夫妻忍之면 終其世하고 朋友忍之면 名不廢하고 自身忍之면 無禍害니라.

-
- 자장(子張): 성은 전손(顓孫), 이름은 사(師), 자장(子張)은 그의 자(字)이다. 공자의 제자로써 특히 언변이 훌륭했다.
 - 천자(天子): 황제(皇帝)의 별칭(別稱).
 - 제후(諸侯): 중국 봉건시대(封建時代)에 천자(天子)로부터 봉토(封土)를 받은 여러 임금.

●자장(子張)이 다시 묻기를,

“만일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한다.

“천자의 몸으로써 만일 참지 않는다면 온 나라 안이 빈 터가 되어버릴 것이고, 제후(諸侯)가 참지 않으면 자기 몸뚱이까지 없어질 것이다. 관리의 신분으로써 만일 참지 않는다면 매사에 법에 걸려 죽게 될 것이고, 형제끼리 참지 않는다면 각각 헤어져 살게 될 것이고, 부부가 서로 참지 않는다면 자식을 외롭게 할 것이다. 친구끼리 참지 않는다면 정의(情意)가 소홀해질 것이고 자기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장(子張)이 감탄해 말하기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는 것이란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로군요. 그러하오니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또한 참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子張이 曰 不忍則如何니이꼬 子曰 天子不忍이면 國空虛하고 諸侯不忍이면 喪其軀하고 官吏不忍이면 刑法誅하고 兄弟不忍이면 各分居하고 夫妻不忍이면 舍子孤하고 朋友不忍이면 情意疎하고 自身不忍이면 患不除니라. 子張이 曰 善哉善哉라 難忍難忍이여 非人이면 不忍이요 不忍이면 非人 이로다.

●“자기 몸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남을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屈己者는 能處重하고 好勝者는 必遇敵이니라.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욕하더라도 착한 사람은 전연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로울 것이요 욕하는 자의 입은 공연히 뜨거워서 열이 끓어 오를 것이다.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도로 제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하였다.

惡人이 罵善人이어든 善人은 摠不對라. 不對心淸閒이요 罵者는 口熱沸니라. 正如人睡天하여 還從己身墜니라.

● 내가 만일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일부러 귀먹은 체하여 따지지 말 것이다. 비유컨대 이것은 마치 불이 공중에서 타서 끄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혀 네 입술과 혀만 놀릴 뿐이다.

我若被人罵라도 洋囀不分說하라. 譬如心燒空하여 不救自然滅이라. 我心은 等虛空 커늘 摠爾翻唇舌이니라.

● 모든 일에 인정을 베풀어 남겨두고 보면 앞으로 오는 날에 좋은 닻으로 나를 데 하게 된다.

凡事에 留人情이면 後來에 好相見이니라.

[총론] 이 계성편(戒性篇)에서는 우선 참는 것(忍)이 덕(德)이 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사람은 매양 자기 마음의 불을 꺼서 분노(憤怒)를 누르고 매사에 인정을 베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들이 흔히 들어오던 옛 이야기로, 중국의 장공예(張公藝)의 고사(故事)가 있다. 장공예는 구세(九世)를 한 집에서 동거(同居)했다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 장공예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이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구세(九世)를 동거하는 나의 비결은 오로지 가슴 속에 참을 인자(忍字) 백 개를 써서 간수하는 것 뿐이오.”

하는 것이었다.

과연 그의 이 비결은 적중하여 직계·방계의 수백 명 식구가 한 집에서 살면서도 한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화기에 찬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근학편(勤學篇)

●공자가 말하기를,

“넓게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하며 질실하게 질문해서 생각을 가까이하면 어진 행동이 자연 그 속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

子曰 博學而篤志하고 切問而近思면 仁在其中矣니라.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사람이 학문을 배우지 않는 것은 마치 아무런 재주도 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훌륭해지면 마침 상서로운 구름을 해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상쾌한 기분일 것이다.”

하였다.

莊子曰 人之不學은 如登天而無術하고 學而智遠이면 如披祥雲而睹青天하고 登高山而望四海니라.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옥(玉)을 다듬지 않고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고서는 의(義)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禮記에 曰 玉不琢이면 不成器하고 人不學이면 不知義니라.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배우지 않으면 마치 어둡고 어두운 밤중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였다.

太公이 曰 人生不學이면 如冥冥夜行이니라.

[예담] 차운(車胤)은 중국 진(晉)나라 때 이부성(吏部省) 대신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몹시 고생을 하였다. 그런 중에도 그는 책읽기를 좋아하여 낮이나 밤이나 책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잔불을 켜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녁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내고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그것은 반딧불(螢火)을 많이 모아 주머니에 넣어서 등 대신으로 쓰는 것이다. 그가 살던 남평(南平)이란 곳은 반딧불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손강(孫康)이란 사람은 겨울에 눈(雪)빛으로 책을 읽었다는데 그와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이른바 ‘형설(螢雪)의 공(功)’이란 말의 유래다.

● 한문공(韓文公)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써 고금(古今)의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나 소에 옷을 입힌 것과 같다.”

하였다.

韓文公이 曰 人不通古今이면 馬牛而襟裾니라.

• 한문공(韓文公): 이름은 응(愔), 자는 퇴지(退之), 호(號)는 창려(昌黎), 문공(文公)은 시호(諡號)이다. 중국 당(唐)나라 때 유명한 학자로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으뜸이며 유학(儒學)의 부흥(復興)을 꾀했고 벼슬이 이부시랑(吏部侍郎)에 이르렀다.

● 주문공(朱文公)이 말하기를,

“집이 만일 가난하다 하더라도 가난하다고 해서 학문을 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집이 만일 부자로 살더라도 부자라고 해서 학문을 게으르게 하지 말 것이다. 가난 하더라도 부지런히 배우면 출세를 할 수가 있고 부자로 살면서도 더욱 더 부지런 하게 공부하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다. 오직 배운 사람만이 높이 될 수가 있고 배운 사람치고 성공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학문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또한 이 세상의 귀한 존재이다. 그런 까닭에 배우면 군자(君子)가 되고 배우 지 않으면 소인(小人)이 되는 것이니 앞으로 배우는 자는 마땅히 저마다 힘쓸 것이다.”

하였다.

朱文公이 曰 家若貧이라도 不可因貧而廢學이요 家若富라도 不可恃富而怠學이니라. 貧若勤學이면 可以立身이요 富若勤學이면 名乃光榮이니라. 惟見學者顯達이요 不見學者無成이니라. 學者는 乃身之寶요 學者는 乃世之珍이니라. 是故로 學則乃爲君子요 不學則爲小人이니 後之學者는 宜各勉之니라.

[예담] 양충의(梁忠義)는 나이 40이 되도록 까막눈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양눌재(梁訥齋)는 대제학(大提學)으로 당시 제일 가는 문장이었을 뿐더러 정치(政治)·경제(經濟)·군사(軍事) 등에 막힐 것이 없을 만큼 이름이 있는 터였다.

그러나 양충의는 가감역 초사(假監役初仕)도 못했다.

그는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은 문형판서(文衡判書)가 되는데 자기는 대제학의 손자로서 아무데도 못쓸 무식꾼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또 글 읽으라는 할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철없이 놀기만 했던 지난날이 한없이 후회되었다. 할아버지께도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깨달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내가 문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손을 펴지 않으리라.”

그날부터 왼손을 꼭 쥐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하여 몇

해 동안 불철주야 공부한 결과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뒤에 손을 펴보니 손톱이 자라서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 있었다.
그의 벼슬은 판서(判書)를 지나 좌찬성(左贊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가 북한산성(北漢山城) 중흥사(中興寺)에서 해포를 공부하다가 그의 장인에게
글을 보냈는데,

書榻燈光暗, 硯池水色清,
篁城吾所願, 兼望楮先生.

“책상에 등잔불 어둡고, 벼룻물에 물빛 맑아라.
황성땅 내 가고 싶어 하는데 껌하여 저 선생 보고 싶어라.”
하였다.
그 장인은 사위가 늦게야 글이 성취됨을 보고,

梁忠義四十, 讀書山堂, 嗚呼晚矣.
“양충의 나이 40에 산당에 와 글을 읽으니 아하! 늦고 늦었도다.”
하였다.

● 휘종황제(徽宗皇帝)가 말하기를,
“배운 사람은 벼(稻)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쭉(蓄)과 같도다. 벼와 같은 곡식은
나라의 훌륭한 양식이요 세상의 큰 보배로다. 쭉과 같은 풀은 밭갈이하는 이도
미워하고 김매는 자의 걱정거리로다. 사람이 만일 배우지 않으면 다음 날에 마치
얼굴을 대는 듯 속이 답답할 것이니 뉘우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하였다.

徽宗皇帝曰 學者는 如不如稻하고 不學者는 如蒿如草로다. 如禾如稻兮 國之精糧

이요 世之大寶로다. 如蒿如草兮여 耕者僧嫌하고 鋤者煩惱로다. 他日面牆에 悔之已老니라.

-
- 휘종황제(徽宗皇帝): 중국 북송 제8대 임금. 이름은 길(佶). 예술을 좋아하고 자신이 유명한 화가였다.

●《논어(論語)》에 말하기를,

“배울 것은 한이 없으니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힘쓰고 이미 배운 것은 오직 잊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하였다.

論語에 曰 學如不及이요 惟恐失之니라.

-
- 논어(論語): 주로 공자(孔子)의 말과 행한 일을 그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수집해서 편찬한 책. 사서(四書)의 하나. 사서(四書)란 논어(論語) · 맹자(孟子) · 중용(中庸) · 대학(大學).

[총론]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고 여기서는 거듭거듭 강조했다. 과연 인간의 영달(榮達)이나 완성(完成)은 온전히 면학(勉學)에 있는 것이다.

“소년(少年)은 이로(易老)하고 학난성(學難成)하니, 일촌(一寸)의 광음(光陰)인들 불가경(不可輕)이라. 지당(池塘)의 춘초몽(春草夢)이 깨기도 전에, 계전(堦前)의 오엽(梧葉)들이 이추성(已秋成)이라.”

하는 옛 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것을 요구했는지?

훈자편(訓子篇)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손님이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가문(家門)이 낮아지고 시서(詩書)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들이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賓客不來면 門戶俗하고 詩書無敎면 子孫愚니라.

• 시서(詩書): 중국의 고전인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여기선 학문의 대칭(代稱)으로 말한 것이다.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일이 비록 적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할 것이요, 자식이 비록 여질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였다.

莊子曰 事雖少나 不作이면 不成이요 子雖賢이나 不敎면 不明이니라.

[예담]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기만 어려운 줄 알지, 가르치기가 더욱 어려운 줄을 모르는 수가 많다.

옛 사람은 태교(胎敎)라고 해서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까지 하였지만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가르치려면 어려서부터 간단 없는 주의와 성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가정도 가정이려니와 우선 주위의 환경(環境)이 제일이다.

아이들이란 민감(敏感)해서 좌우 환경에 동화(同化)되기 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모(孟母)의 삼천지교(三遷之敎)라는 것이 여기서 생긴 것이다.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처음 이사 가서 살던 곳은 상점가로서 전후좌우가 모두 상인(商人)들이었다. 이 속에서 자라나는 맹자는 자연 상인들의 하는 꼴을 배워서,

“자! 이것 사시오! 이것 사시오!”하고 외치는 소리를 흉내 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자식 가르칠 곳이 아니라 생각하여 이사를 갔더니 그곳은 마침 상여도가 가까운 곳이라서 맹자는 상여를 메고 상여 소리 하는 흉내만을 낸다.

이곳도 자식 가르칠 곳이 못된다고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맹자를 데리고 이사 갔더니 그곳은 가까이 글방(書堂)이 있어 맹자는 책 펴놓고 글 읽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옳다! 여기서 살면 자식을 가르칠 만하겠다.”

마음먹고 맹자를 이곳에서 가르쳐 마침내 위대한 아성(亞聖)으로 만들어 놓았다.

“자식이 아무리 어진 바탕을 가졌으나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이것은 참으로 자손의 교육을 권장하는 금언(金言)이 아닐 수 없다.

●《한서(漢書)》에 말하기를,

“상자 속에 가득히 황금(黃金)을 채워 두는 것이 자식에게 경서(經書) 한 권 가르쳐 주느니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千金)을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한 가지 재주를 가르쳐 주느니만 못하다.”

하였다.

漢書에 云 黃金萬籩이 不如敎子一經이요 賜子千金이 不如敎子一藝니라.

- 한서(漢書): 중국 후한(後漢)때 반고(班固)가 지은 전한(前漢)의 역사.
- 천금(千金): 막대한 돈. 1금은 열 냥(兩)의 무게. 천금(千金)이면 금이 만 냥(萬兩)어치가 되는 셈.

● 지극한 재미는 글 읽는 것 만한 것이 없고 지극히 요긴한 일은 아들 가르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至樂은 莫如讀書요 至要是 莫如教子니라.

● 여형공(呂榮公)이 말하기를,
“집안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에 엄한 스승과 벗이 없고서 능히 성공하는 사람은 적다.”
하였다.

呂榮公이曰 內無賢父兄하고 外無嚴師友요 而能有成者는 鮮矣니라.

-
- 여형공(呂榮公): 이름은 희철(希哲), 자는 원명(原明). 중국 북송(北宋) 때 학자이다.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남자로써 배우지 않으면 장성해서 반드시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며
여자로써 배우지 않으면 장성해서 반드시 추하고 거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였다.

太公이 曰 男子失教면 長必頑愚하고 女子失教면 長必羸疎니라.

●남자가 장성하거든 풍악과 술 먹는 것을 배우지 말고 여자가 장성하거든 돌아다니며 놀지 말도록 하라.

男年長大면 莫習藥酒하고 女年長大면 莫令遊走니라.

●엄한 아버지는 효도하는 아들을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도하는 딸을 길러낸다.

嚴父는 出孝子하고 嚴母는 出孝女니라.

●귀여운 자식에게는 매를 많이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많이 주느니라.

憐兒엔 多與棒하고 憎兒엔 多與食이니라.

●세상 사람이 모두 구슬과 옥을 사랑하건만 나는 자식과 손자의 어진 것을 사랑한다.

人皆愛珠玉하되 我愛子孫賢이라.

[총론] 여기에서는 돈보다도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과 교육의 방법은 가장 엄격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가언(嘉言)을 열거했다.

“집에 손님이 자주 오지 않으면 그 집이 속된다.”

“자식이 아무리 어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리 가득 돈을 전해주느니보다는 차라리 책 한 권을 가르쳐주라.”

“심지어 여자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추슬해진다.”

“한 덩어리 주옥보다도 나는 자손 착한 것을 사랑하노라.”

이렇듯 자손 교육의 필요성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성심편(省心篇) 상(上)

성심편(省心篇) 상(上)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보화는 쓰면 없어지지만 충성과 효도는 할수록 끝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寶貨는 用之有盡하고 忠孝는 享之無窮이니라.

[예담] 신라 진덕왕(眞德王) 때의 일이다. 신라와 백제는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잦았다. 이때는 신라가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때라 신라 편이 항상 약하게 마련이었다. 이번에도 백제군은 기세가 등등하여 쳐들어오니 싸움은 역시 신라에 불리하게 되었다. 신라 군사는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목숨을 아껴 달아날 궁리를 하기에만 바빴다.

이때 비녕자(丕寧子)라는 사람이 자기 집 중 합절(合節)을 부르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위급한 지경에 놓였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없는지라 단신으로라도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니 너는 내 아들 거진(擧眞)을 잘 보살펴라. 거진이 비록 나이 어리나 아버가 적진에서 죽게 되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 되면 부자가 함께 죽는 결과가 되리니 남은 식구를 누가 먹여 살리며, 어미는 누가 위로해 주겠느냐? 합절이 네가 거진을 말려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거라.”

하고 당부하고는 칼을 빼어들고 적진으로 달려가 싸우다가 죽었다. 이를 본 거진이 달려 나가려 했으나 합절이 말고삐를 잡고 말렸다.

“아버님 말씀을 거역치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을 봉양함이 효자의 도리인가 하옵니다.”

그러나 거진은,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있는 것이 효란 말인가?”

하고 말을 채쳐 나가려 하였으나 합절이 고삐를 잡고 놓지 않으므로 거진은 칼을 들어 합절의 팔을 자르고 달려 나가 싸우다 죽고 말았다. 이를 바라보던 합절이,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나 홀로 살 수 있으리요?”

하고 피가 뚝뚝 듣는 몸을 이끌고 남은 한 팔로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달려 나가 싸우다가 역시 죽음을 당하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신라 군사들은 저마다 분기 충천하여 죽기로써 맹세하고 백제 군사에게 달려들어 싸우니 마침내 승리는 신라의 것이었다.

이 같은 몇 사람의 효자·충신이 뒷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만일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자가 된들 무엇하리오? 오직 효도하는 아들은 하나만 있어도 좋으니 자손이 많아서 무엇에 쓰리오.

家和貧也好어니와 不義富如何오. 但存一子孝니 何用子孫多리오.

[예담] 중국 진(晉)나라의 배수(裴秀)는 지리학자(地理學者)로서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로서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어렸을 때 몹시 불행하게 자랐으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과 싸우며 살아왔다.

한때 어머니와 더불어 일가 아저씨 휘(徽)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로 있을 때의 일이다.

수(秀)의 아저씨 휘는 당대의 부호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이 집안에 들끓었다.

이때 수는 겨우 열 살 남짓한 소년이었으나 벌써부터 학문이 뛰어났고, 특히 지리학에 있어서는 아무도 따르기 힘들만큼 조예(造詣)가 깊었다.

그런 때문에 배휘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는 일부러 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

누고 가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본 휘의 부인은 은근히 그를 미워하여 수의 어머니를 공연히 혹사하여 마치 종처럼 부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의 실력이 점점 빛나기 시작하자 휘를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는 수의 어머니를 찾아 공손히 예를 베풀고,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다.

이처럼 수의 어머니가 못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니 휘의 부인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우를 고쳐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한 세월을 보냈다.

“착한 아들 하나만 있으면, 자손 많은 게 무슨 소용 있으리요.”

정말 절실한 말이다. 배수의 어머니는 착한 아들 수를 두었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아비가 조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요, 남편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어진 때문이다. 말이 많아서 실수를 하는 것은 모두 술 먹는 때문이요, 좋은 의리가 끊어져서 친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모두 돈 때문인 것이다.

父不憂心은 因子孝요 夫無煩惱는 是妻賢이라 言多語失은 皆因酒요 義斷親疎는 只爲錢이니라.

●이미 심상치 않은 이상스런 즐거움을 가졌거든 앞으로 예측하지 않았던 근심이 생길 것을 방지해야 한다.

既取非常樂이든 須防不測憂니라.

● 남에게 사랑을 받거든 욕이 돌아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편안한 곳에 살거든 앞으로 위험한 일이 있을까 미리 염려할 것이다.

得寵思辱하고 居安慮危니라.

[예담] 이시백(李時白)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주역을 맡아 이를 성공시킨 이귀(李貴)의 아들로써 그도 또한 젊은 몸으로 아버지와 함께 반정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이때부터 그의 능력이 인정되어 효종 때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그가 영의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의 집에는 아주 진귀한 화초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소문이 궁궐 안에까지 알려져 하루는 왕이 이 화초를 구경하러 그의 집에 남신다는 말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이시백은 적잖이 놀랐다. 그는 즉시 정원으로 달려가더니 손수 꽃나무를 꺾어 버리고 뿌리를 뽑아 버리면서 탄식하는 것이었다.

“나라 형편이 다사다난한 이때 상감께서 한가로이 화초 금수에 낙을 두신단 말인가?” 그는 이처럼 높고 귀한 자리에 있을수록 본분을 깨닫고, 부귀영화에 눈 어둡게 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따라서 그의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였고, 때로는 일반 백성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여서 영의정의 신분으로는 민망할 지경이기도 했다.

항상 이 점을 딱하게 여겨오던 그의 부인이 하루는 비단 방석을 만들어 그에게 깔도록 하였다. 이것을 본 이시백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전에 깔던 부들방석(蒲席)을 뜯아래 깔고 부인에게 방석 위에 앉기를 권하더니 자기도 마주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잘 것 없는 내가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음을 항상 두렵게 생각하거늘 거기에 다시

사치까지 하면 뒷날에 어찌 된단 말ियो? 나에게는 이 부들방석도 오히려 과분하오.”

이 말 한 마디로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한 인물이었던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위치가 귀하게 되었을 때일수록 여기에 현혹됨이 없이 몸과 마음을 조심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할 때 그 귀함은 즉시 욕된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화가 가벼우면 욕되는 일이 적고 자기가 받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받는 해도 깊다.

榮輕辱淺이요 利重害深이니라.

● 공자가 말하기를,

“높은 언덕을 보지 않고서야 어찌 자기가 자빠지는 근심을 알며 깊은 못에 가보지 않고서야 어찌 물에 빠져 죽는 조심을 알 것이며 큰 바다에 가보지 않고서야 어찌 풍파가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오.”

하였다.

子曰 不觀高崖면 何以知顛墜之患이며 不臨深淵이면 何以知沒溺之患이며 不觀巨海면 何以知風波之患이리오.

- 앞으로 오는 일을 알고자 하면 먼저 지나간 일을 잘 살필 것이다.

欲知未來면 先察已然이라.

- 공자가 말하기를,

“맑은 거울은 그 사람의 모양을 살필 수 있을 것ियो, 지나간 옛 일은 현재의 일을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子曰 明鏡은 所以察形이요 往古는 所以知今이니라.

- 지나간 일은 밝기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알기가 쉽고 앞으로 오는 일은 어둡기가 검은 옷(漆)과 같아서 알 수가 없다.

過去事는 明如鏡이요 未來事는 暗似漆이니라.

-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생길 일은 오늘 저녁에 꼭 알 수가 없고 오늘 저녁 때 생길 일은 낮에 꼭 알 수가 없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明朝之事는 薄暮에 未可必이요 薄暮之事는 脯時에 不可必이니라.

-
- 포시(脯時): 신시(申時). 점심 후 3시에서 4시경을 말함.

● 하늘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은 아침 저녁 닥쳐오는 화와 복이 있다.

天有不測風雨하고 人有朝夕禍福이니라.

● 석 자 되는 땅 속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백 년 가는 몸을 보전하기가 어렵고 이미 땅속으로 들어간 뒤에는 백 년 가는 무덤을 보전하기가 어렵다.

未歸三尺土하면 難保百年身이요 已歸三尺土하면 難保百年墳이니라.

●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나무를 잘 기르고 보면 뿌리가 굳어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서 기둥이나 들보가 될 만한 재목이 이루어질 것이며, 물을 잘 나오게 한다면 근원이 힘차고 흐르는 것이 길어서 관개(灌溉)의 이로움이 넓을 것이고, 사람을 잘 기르고 보면 뜻하는 바와 기운이 크고 식견(識見)이 밝아서 충의(忠義)의 선비가 될 것이니 어찌 잘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景行錄에 云 木有所養이면 則根本固而枝葉茂하여 棟樑之材成하고 水有所養이면 則泉源壯而流派長하여 灌溉之利博하고 人有所養이면 則志氣大而識見明하여 忠義之士出하나니 可不養哉아.

●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도 역시 자기를 믿어 오(吳)와 월(越)나라 사람끼리라도 모두 형제처럼 될 수가 있고,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남도 역시 자기를 의심해서 자기 일신 이외에는 모두가 적국과 같이 되어버린다.

自信者는 人亦信之하여 吳越이 皆兄弟요 自疑者는 人亦疑之하여 身外에 皆敵國이 나라.

-
- 오(吳) · 월(越): 모두 중국의 나라 이름. 춘추시대(春秋時代)의 강국들로써 오(吳)나라는 지금의 강소성(江蘇域)을 중심으로 한 나라요, 월(越)나라는 지금의 복건(福建) · 절강(浙江) 등지를 중심으로 한 나라. 오나라는 처음 이웃인 월나라를 정복하였으나 얼마 후에 도리어 그에게 멸망 당하여 오랫동안 원수가 되었던 나라들이다.

● 당초부터 의심나는 사람은 쓰지를 말고, 일단 사람을 쓴 연후엔 의심하지 말 것이다.

疑人은 莫用하고 用人이면 勿疑나라.

● 풍간(諷諫)에 말하기를,

“물 속에는 깊이 잠긴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는 나는 기러기가 있다. 높은 것은 쏘아 잡을 수가 있고 얕은 것은 낚시로 낚을 수가 있거니와, 오직 사람의 마음만은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요량할 수가 없도다.”

하였다.

諷諫에 云 水底魚天邊雁은 高可射兮低可釣어니와 惟有人心咫尺間하여 咫尺人心不可料니라.

• 풍간(諷諫): 풍자(諷刺)하는 글.

● 범을 그리는데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그 뼈는 그릴 수가 없고, 사람을 사귀는데 그 얼굴은 알 수 있어도 마음은 알기 어렵다.

畫虎畫皮難畫骨이요 知人知面不知心이니라.

● 얼굴을 대하여 서로 말은 하더라도 마음은 천리나 멀리 있다.

對面共話나 心隔千里니라.

●바다는 물이 마르면 마침내 밑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은 뒤에도 그 마음을 끝끝내 알 수가 없다.

海枯終見底나 人死不知心이니라.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을 미리 판단할 수 없고 바닷물은 말(斗)로 될 수가 없다.” 하였다.

太公이 曰 凡人은 不可逆相이요 海水는 不可斗量이니라.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남과 원한을 맺는다는 것은 화의 씨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착한 일을 버려두고 하지 않는 것은 이야말로 제 일을 제가 해치는 자이다.”
하였다.

結怨於人은 謂之種禍요 捨善不爲는 謂之自賊이니라.

[예담] 고려 때에는 문신(文臣)을 우대하고 무신(武臣)을 멸시하는 풍조가 여간 심하지 않았다. 김돈중(金敦中)은 김부식(金富軾)의 아들로 아버지의 명성과 권세를 믿어 방자한 일이 많았고 특히 무신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태도는 말이 아니었다.

하루는 김돈중이 무신 정중부(鄭仲夫)를 만나자 골탕을 먹일 생각으로 그를 부르

더니, “자네 수염이 참 보기 좋으이 그려.”

하고 말을 붙이고 그 수염에다가 불을 켜대는 것이었다. 나이로 봐도 크게 연장인 정중부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이 분을 참아야 했다.

그 뒤 무신들이 무인들의 괘시에 견디다 못해 난을 일으키자 평소에 무신들을 업신여기던 문신들은 화를 당하였다. 김돈중도 정중부에게 화를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한다. 남에게 원한을 사게 되면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고야 마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이다.

● 만일 한편 말만 듣는다면 문득 친한 사람끼리도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이다.

若聽一面說이면 便見相離別 이니라.

●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나면 공연히 음탕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배를 주리고 춥게 지나야 도의(道義)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飽煖엔 思淫愁 하고 飢寒엔 發道心 이니라.

● 소광(疎廣)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해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하였다.

疏廣이 曰 賢人多財면 則損其志하고 愚人多財면 則益其過니라.

-
- 소광(疎廣): 자는 증웅(仲熊). 중국 전한(前漢) 선제(宣帝) 때 사람으로 벼슬이 태부(太傅)에 이르렀으나 이를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餘生)을 한가롭게 보냈다.

●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자기의 단점을 알 수가 있고 복이 돌아오면 마음도 영특해진다.

人貧知短이요 福至心靈이니라.

● 한 가지 일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도 자라지 않는다.

不經一事면 不長一智니라.

● 옳다 그르다 하는 일이 온종일 있을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아무 일이 없다.

是非終日有라도 不聽이면 自然無니라.

●나한테 와서 남의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남과 시비를 잘하는 사람이다.

來說是非者是 便是是非人이니라.

●《격양시(擊壤詩)》에 말하기를,

“한평생 눈썹 찡그리는 화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를 갈면서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크게 드러난 이름을 어찌 하찮은 돌에 새길 것이라? 길가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하는 말이 오히려 비석보다 나을 것이다.”
하였다.

擊壤詩에 云 平生에 不作皺眉事면 世上에 應無切齒人이라. 大名이 豈在鐫頑石가 路上行人이 口勝碑라.

●사향(麝香)을 가졌으면 저절로 향기가 날 것이니 어찌 반드시 바람 부는 데 서서 향기가 풍기기를 바랄 것인가?

有麝自然香이니 何必當風立가.

• 사향(麝香): 궁노루의 향낭(香囊)을 말려서 만든 향료(香料). 중국 사천성(四川省) · 운남성(雲南省) 등지에서 난다.

●복이 있다고 다 누려버리지 말라. 복이 다 되면 몸이 가난하고 궁해지는 법이다. 또 세력이 있다고 그 세력을 끝까지 부리지 말라. 세력이 다 되면 모두 원수가 되어 서로 만나게 되기 마련이다. 복이 있거든 그 복을 항상 아끼고, 세력을 잡거든 언제나 몸을 공손히 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교만과 사치를 몹시 하고 보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화를 받는 법이다.

有福莫享盡하라. 福盡身貧窮이요 有勢莫使盡하라. 勢盡冤相逢이라. 福兮常自惜하고 勢兮常自恭하라. 人生驕與侈는 有始多無終이니라.

[예담] 신라 제 42대 흥덕왕(興德王)이 돌아가자 왕위 계승 싸움이 일어났다.

균정(均貞)과 계룡(槩隆)과의 싸움이었다. 이 소란에서 균정편의 대장이었던 김양(金陽)은 계룡편의 대장 배훤백(裵萱伯)이 쏜 화살에 다리를 맞아 참패하고 균정은 전사했다.

균정의 아들 우징(祐徵)은 청해진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공격해 들어갔다. 이 싸움에서 우징이 이겨 왕위에 오르니 즉 신무왕(神武王)이다. 이때 배훤백이 김양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나 김양은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김양이 배훤백에게 취한 태도는 온 신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내가 네 화살에 맞았었지만 너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미물인 개도 자기 주인이 아닌 딴 사람을 보면 짖는 법인데 네가 너의 주인 계룡을 위하여 싸운 것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내가 말하겠는가? 그러니 나는 너를 벌 줄 수 없다.”

과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명언이다.

권세를 잡은 후에 몸을 공손히 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참된 도리를 찾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행복의 터전으로 안내하는 앞잡이가 될 것이다.

● 왕참정(王參政)의 《사류명(四留銘)》에 말하기를,

“다 쓰지 않은 재주를 남겨두었다가 만물을 창조한 신(神)에게 돌려보내고, 또 다 쓰지 않은 녹(祿)을 남겨두었다가 조정에 돌려보내라.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겨두었다가 백성에게 돌려보내고, 다 쓰지 않은 복을 남겨두었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도록 하라.”

王參政四留銘에 曰 留有餘不盡之巧하여 以還造物하고 留有餘不盡之祿하여 以還朝廷하고 留有餘不盡之財하여 以還百姓하고 留有餘不盡之福하여 以還子孫이니라.

-
- 왕참정(王參政): 이름은 단(旦). 중국 북송(北宋) 진종(眞宗) 때의 정치가.
 - 사류명(四留銘): 네 가지 남겨두고자 하는 말.

● 황금 천냥이 귀할 것이 없고 남의 좋은 말 한 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나은 것이다.

黃金千兩이 未爲貴요 得人一語가 勝千金이니라.

● 재주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종ियो, 고생하는 것은 즐겁게 지낼 날의 근본이다.

巧者는 拙之奴요 苦者는 樂之母니라.

- 작은 배에는 무거운 물건을 실을 수 없고, 으스스한 길은 혼자서 다니기 어렵다.

小船은 難堪重載요 深逕은 不宜獨行이니라.

-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

黃金이 未是貴요 安樂이 直錢多니라.

-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을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적에 반겨주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在家에 不會邀賓客이면 出外라야 方知少主人이라.

- 가난하면 시끄러운 시장 속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부자로 살면 깊은 산 속에 있어도 먼 일가가 찾아온다.

貧居鬧市無相識이요 富住深山有遠親이라.

- 사람의 의리(義理)는 모두 가난한 데서 끊어지는 것이요, 세속(世俗) 인정은 모르는 동안에 돈 있는 집으로 쏠려간다.

人義는 盡從貧處斷이요 世情은 使向有錢家라.

-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어도 코 아래 가로 있는 것(입)만은 막기 어렵다.

寧塞無底缸이언정 難塞鼻下橫이라.

- 인정은 모두 군색한 데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人情은 皆爲窘中疎라.

- 《사기(史記)》에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사당에 제사 지내는 데도 술이 아니면 신령이 흠향(歆饗)을 하지 않는 것이고, 군신(君臣)과 친구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 좌석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이고,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를 하는데도 술이 아니면 성사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는 일을 성사시키고 망치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하였다.

史記에 曰 郊天禮廟에 非酒不享이요 君臣朋友에 非酒不美요 國爭相和에 非酒不勸이라 故로 酒有成敗나 而不可泛飲之니라.

-
- 사기(史記): 중국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고대(古代)의 역사.
 - 교(郊): 교제(郊祭)를 말한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 천자(天子)가 성 밖 남쪽 들에 나가서 하늘을 받드는 제사.

●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올바른 도(道)를 배우고자 하면서 나쁜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일을 의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子曰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는 未足與議也니라.

● 순자(荀子)가 말하기를,

“선비로써 남을 시기하는 벗이 있으면 어진 친구와 사귄 수가 없고 임금으로써 남을 시기하는 신하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荀子曰 士有妬友면 則賢交不親하고 君有妬臣이면 則賢人이 不至니라.

● 하늘은 녹(祿)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天不生無祿之人하고 地不長無名之草니라.

● 큰 부자는 하늘에 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서 나온다.

大富는 由天하고 小富는 由勤이니라.

● 집을 일으키는 집 아이는 똥오줌 아끼기를 금과 같이 하고, 집을 망쳐놓는 집 아이는 돈을 똥처럼 천하게 여겨 써서 없앤다.

成家之兒는 惜糞如金하고 敗家之兒는 用金如糞이니라.

● 소강절(邵康節)선생이 말하기를,

“한가하게 살면서 내게 아무런 해로울 게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해로울 게 없다고 말하고 나자마자 방해가 생기는 것이다. 입에 시원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침내 병이 생기는 법이요, 마음에 쾌한 일이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생기는 것이다. 병든 뒤에 좋은 약을 마시느니보다는 차라리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邵康節先生이 曰 閒居에 慎勿說無妨하라. 纔說無妨便有妨이라. 爽口物多終作疾이요 快心事過必有殃이라. 與其病後能服藥으론 不若病前能自防이니라.

●자동제군(梓潼帝君)의 훈계에 말하기를,

“아무리 신기한 약이라도 원한으로 생긴 병은 고치기 어렵고, 힘들이지 않고 절로 생긴 재물은 운수 나쁜 사람을 잘 살릴 수가 없다. 자기가 일을 만들고서 일이 많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해치고서 남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욕하지 말라. 천지간의 모든 일이 저절로 보답이 있는 것이니 멀게는 자손에게까지 갈 것이고 가깝게는 자기 몸에 당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梓潼帝君 垂訓에 日 妙藥도 難醫冤債病이요 橫財는 不富命窮人이라. 生事事生을 君莫怨하고 害人害人를 妙休嗔하라. 天地自然皆有報하니 遠在兒孫近在身이니라.

●꽃은 졌다가는 다시 피고 피었다가는 다시 지는 법, 비단옷 무명옷은 철 바뀌어 갈아입네. 화려로운 기와집들 항상 부귀한 것 아니요, 가난한 오막살이 언제까지 쓸쓸하라. 사람을 돕더라도 하늘 끝까지 올 수 없고 남을 해쳐 봐도 구렁이 속에 밀어 넣지 못하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모든 일, 하늘을 원망 말라. 저 하늘 뜻 조금도 열고 두터움(厚薄)이 없네.

花落花開還又落이요 錦衣布衣更換着이라. 豪家도 未必常富貴요 貧家도 未必長寂寞이라. 扶人未必上青霄요 推人未必填邱壑이라. 勸君凡事를 莫怨天하라. 天意於人에 無厚薄이니라.

●사람의 독사 같은 마음 한스럽고, 하늘의 보는 눈 수레바퀴 같은 걸 누가 알리요? 지난 해에 부질없이 동녘 이웃에서 가져온 물건이, 오늘은 다시 북쪽 집으로

가버렸네. 의롭지 않은 돈과 재물은 끓는 물에 눈(雪)이 녹는 것 같고, 우연히 얻은 땅은 물이 모래를 밀어 덮었네. 만일 간소한 피로 생활하는 방법을 삼을 양이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오래가지 못하리.

堪歎人心이 毒如蛇요 誰知天眼이 轉如車오. 去年에 妄取東隣物터니 今日還歸北舍家라. 無義錢財는 湯潑雪이요 儻來田地는 水推沙라 若將狡譎爲生計면 恰似朝開暮落花라.

[예담] 조선 정조(正祖) 때 얘기다.

김종수(金鍾秀)는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그 벼슬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그가 평양감사로 있을 때 청백한 그의 생활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는 결코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기(滿期)가 되어 평양을 떠나 한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한 전별연(錢別宴)이 대동강 위에서 푸짐하게 베풀어졌다.

이 전별연이 절정에 달하자 김종수는 취흥을 돋구느라고 담뱃대로 뱃전을 두드리면서 시조를 읊고 있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흥에 겨워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담뱃대는 슬그머니 강 속으로 빠져 버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린 김종수는 허탈하게 웃고 나서 혼잣소리로,

“그 담뱃대는 내가 평양감사로 있는 동안 애지중지 간직했던 것인데 내 평양을 떠나게 되니 강물이 그것을 알고 빼앗는구나. 감영(監營)의 물건이니까...”

하는 것이었다.

의롭지 않은 재물은 실로 끓는 물에 눈이 녹는 것처럼 언제 자기에게서 떠나버릴지 모르는 것이다.

사람이란 언제나 분에 넘치는 물욕 때문에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 약으로도 정승의 목숨은 늘릴 수 없고 돈 가지고도 자손의 어진 것은 살 수가 없네.

無藥可醫卿相壽요 有錢難買子孫賢이라.

-
- 경상(卿相): 정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 직제(職制)에 판서(判書) · 좌우상(左右相)을 말함.

- 하루라도 마음 맑으면 하룻동안 신선되네.

一日淸閒 一日仙이라.

[총론] 성심편(省心篇)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상(上)·하(下) 둘로 나누었다.

이 상편에서는 우선 “보화보다는 충효를 하라.” “불의(不義)를 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배부르면 음욕(淫愁)을 생각하게 되고 가난해야 도심(道心)이 나온다.” “부귀를 누리는 집도 항상 이 부귀를 누리지 못할 것이요 가난하다 해서 평생토록 가난한 게 아니다.”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성쇠(盛衰)와 흥망이 순환(循環)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가언(嘉言)들을 다량으로 수록하였다.

성심편(省心篇) 하(下)

성심편(省心篇) 하(下)

● 진종황제(眞宗皇帝)의 어제(御製)에 말하기를,

“위태로운 것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법망(法網)에 걸릴 까닭이 없을 것이고, 착한 이를 올려 쓰고 어진 이를 천거하고 보면 저절로 내 몸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어진 것을 풀고 덕(德)을 펴는 것은 곧 대대(代代)로 내려가는 영광(榮光)이요,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을 갚는 것은 자손까지 물려주는 근심이 될 것이다. 남을 해치고 자기 몸을 이롭게 하면 종시 높이 되는 자손을 기를 수 없고, 여러 사람을 해쳐서 자기 집을 이루게 하고 보면 어찌 그렇게 얻은 부귀(富貴)가 오래 갈 수 있리오. 이름을 갖고 모양을 고치는 것은 모두 교묘한 말재주에서 나오게 된 것이요, 화를 일으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일이다.”

眞宗皇帝 御製에 曰 知危識險이면 終無羅網之門이요 舉善薦賢이면 自有安身之路라. 施仁布德은 乃世代之榮昌이요 懷妬報冤은 與子孫之爲患이라. 損人利己면 終無顯達雲仍이요 害衆成家면 豈有久長富貴리요 改名異體는 皆因巧語而生이고 禍起傷衆은 蓋是不仁之召니라.

• 진종황제(眞宗皇帝): 북송(北宋) 제3대의 임금. 이름은 항(恒). 왕위에 있기 25년이었다.

• 어제(御製): 임금이 지은 글.

• 운잉(雲仍): 먼 자손(遠孫).

[예담] 맹상군(孟嘗君)은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사람으로 제(齊)나라 정승을 지냈다. 그가 덕망이 높고 사람을 예로써 대접한다는 소문이 은나라에 퍼지자 그에게 몸을 의탁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래서 맹상군의 식객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 천을 넘고 2천이 지나 결국 3천의 수를 헤아리게까지 되었다. 이 식객 중에 풍완(馮煥)이란 사람이 있었다. 가난에 쪼들려 형편이 말 아니던 풍

완은 맹상군의 소문을 듣는 길로 달려와 그의 하인들과 같이 지내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풍완의 행색이 워낙 초라하고 더러운지라 하인들도 그와 같이 있기를 꺼릴 뿐 아니라 밥도 자기들끼리 따로 먹으며 팔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처럼 업신여김을 받으며 며칠을 지내던 풍완이 하루는 긴 칼을 거문고 삼아 노래를 불렀다.

“장협(長鉞)아! 돌아갈까나? 밥상에 고기 반찬도 없구나.”

이 노래를 들은 맹상군은 자기가食客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뒤로부터食客들에게 고르고루 좋은 반찬을 대접하기에 애를 썼다.

그 후 얼마가 지난 뒤 풍완이 다시 칼을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장협아! 돌아갈까나? 출입하는데 수레도 없구나.”

이 노래가 맹상군의 귀에 들어가자 즉시 그에게 수레를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풍완은 다시 칼을 뜯었다.

“장협아! 돌아갈까나? 집안을 돌봐줄 이도 없구나.”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끼니를 걱정하는 그의 집에 쌀과 나무를 보내주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맹상군은 자기의 지위 높은 것 같은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어 없이 오직 자기 집에 와서 묵는食客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즉시로 이를 해결해 주기에 온갖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어떤 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食客인지조차 분간키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런 일이 있는 얼마 후 맹상군은 설(薛)나라 백성들에게 꾸어준 돈을 받아올 사람을 구한다는 통문을 돌렸다.

이를 본 풍완은 자기가 가서 돈을 받아오겠노라고 나섰다. 맹상군은 기꺼이 이를 허락하고는,

“돈이 다 갚히면 우리집에 귀한 물건을 구해가지고 오도록 하게.”

하고 말하고는 설나라로 그를 떠나 보냈다.

설나라에 도착한 풍완은 채무자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는,

“여러분들의 빚은 모두 탕감해 드린다는 맹상군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고 소리치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채권 증서를 모두 불에 태워 버렸다.

제(齋)나라에 돌아온 풍완은 맹상군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설나라에 가서 사가지고 올 귀한 물건을 백방으로 생각한 끝에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궁중에 없는 것이 없는지라 가장 귀한 의(義)란 물건을 사왔습니다.”

차초지종을 듣고난 맹상군은 머리 숙여 풍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였다.

“진정 의로운 사람이로군!”

그로부터 설나라 사람들은 더욱 맹상군에 대한 칭송이 높아갔으니, 이는 다 자기 지위의 높음을 방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한 맹상군의 어진 행실에서 싹터 나온 열매에 불과한 것이었다.

● 신종황제(神宗皇帝)가 지은 글에 말하기를,

“올바른 도리로 생긴 재물이 아니면 이것을 멀리하고, 양에 지나친 술은 경계할 것이며, 집을 정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먼저 가려서 정하고 친구를 사귄 적에는 언제나 사람을 가려서 사귄 것이다. 또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며, 가까운 일가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이들과 소홀히 지내지 말며, 부귀(富貴)한 사람을 쓸데 없이 두둔할 게 아니다. 언제나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을 제일로 삼아서 자기의 사욕을 누르고, 겸손하고 화목한 것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무리를 사랑할 것이다. 항상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언제나 앞날에 허물이 있을까 조심할 것이다. 만약 나의 말을 좇으면 나라와 집을 다스려 장구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神宗皇帝 御製에 曰 遠非道之財하고 戒過度之酒하며 居必擇隣하고 交必擇友하며 嫉妬를 勿起於心하고 讒言을 勿宣於口하고 骨肉貧者를 莫疎하고 他人富貴를 莫厚하며 克己는 以勤儉爲先하고 愛衆은 以謙和爲首하며 常思既往之非하고 每念未來

之咎하라.若依朕之言이면 治國家而可久니라.

- 신종황제(神宗皇帝): 북송(北宋) 제6대 임금. 이름은 옥(項).
- 골육(骨肉): 가까운 일가.
- 짐(朕): 천자(天子)가 자기를 말할 때 쓰는 말.

[예담] 홍기섭(洪夔)은 젊었을 때 몹시 가난했었다. 조식을 끓이지 못하기도 여러 끼니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계집 종이 사랑으로 뛰어나오더니 돈 꾸러미를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말하는 것이다.

“지금 막 부엌엘 나가보았더니 솥 속에 이게 들어 있지 않겠어요? 이걸 아마 하느님이 주시는 것인가 봐요. 7백 냥이나 되는 돈이오니 쌀 몇 섬 나무 몇 바리를 살 수 있질 않겠어요. 우리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네요.”

계집 종은 얼마나 기쁘던지 주인 앞에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인 홍기섭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허허! 7백 냥이면 이건 큰 돈이로구나. 그 돈에 손도 대지 말고 주인이 찾으러 올 때를 기다리라. 이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는 돈일 게다.”

하더니 돈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찾아가라는 방(榜)을 써 붙이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조금 후에 유모(劉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까닭을 듣고 나더니,

“누가 잃은 돈이면 솥 속에 들어있을 이치가 있겠소. 이는 반드시 하늘이 주는 것이니 꺼내서 쓰시도록 하시오.”

한다.

그러나 홍기섭은 역시 말한다.

“내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손을 댄단 말ियो?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두겠소.”

이 말을 듣고 나자 유모라는 사람은 땅에 부복하고 말한다.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댁에 술을 훔치려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하

도 부엌이 쓸쓸하여 여러 날 끼니를 끓이지 못한 것 같기로 도둑놈의 마음으로도 그 지나친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서 판 데서 훔쳐가지고 왔던 돈을 술 속에 넣어두고 갔던 것이오니 돈은 주인어른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이후로는 맹세코 도둑질을 하지 않고 곁에 모시고 있겠나이다.”

흥기섭은 이 말을 듣고 돈을 그에게 내주면서,

“네가 다시 도둑질을 안 하겠다니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지니와, 이 돈은 내 물건이 아니니 절대로 내가 쓸 수가 없다.”

하고 종시 받지 않았다.

기섭은 후년에 과거에 올라 벼슬이 판서(判書)에까지 이르렀고 그 아들 재룡(在龍)은 현종(憲宗)의 국구(國舅)가 되었다.

유모라는 도둑놈도 마침내 개심해서 홍판서를 모시고 살아서 집이 크게 창성했다.

● 고종황제(高宗皇帝)가 지은 글에 말하기를,

“조그만한 덩어리 불이 능히 산에 가득한 나무를 태울 수 있으며 짧은 한 마디 나쁜 말이 평생의 덕(德)을 그르칠 수 있다. 몸에 한 벌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항상 베 짜는 여자가 수고한 것을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더라도 매양 농사짓는 농부의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라. 진실로 남을 시기하고 구차스러이 재물을 탐하면 마침내 10년 동안 편안한 법이 없고, 착한 일을 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후손에 영화가 있는 것이다. 복이란 착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생기며 마련이고,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은 모두 진실한 데서 얻는 것이다.”

하였다.

高宗皇帝御製에 日 一星之火가 能燒萬頃之薪하고 半句非言이 誤損平生之德이라. 身被一縷나 常思織女之勞하고 日食三殮이나 每念農夫之苦하라. 苟貪妬損이면 終

無十載安康이요 積善存仁이면 必有榮華後裔리라. 福緣善慶은 多因積行而生이요
入聖超凡은 盡是眞實而得이니라.

-
- 고종황제(高宗皇帝): 이름은 구(構). 금(金)나라가 강북(江北)지방을 지배하게 되자 남경(南京)에서 황제(皇帝)의 위에 올라 남송(南宋)의 첫째 임금이었다.
 - 일성(一星): 한 별이란 말로 적은 것을 의미함.
 - 만경(萬頃): 경(頃)이란 중국 고대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 1경은 오늘날의 면적으로 치면 만 평에 해당하는 것이니 만 경이란 꽤 넓은 면적을 뜻한다.

●왕량(王良)이 말하기를,

“그 나라 임금의 사람됨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그 신하를 볼 것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그 사람의 친구를 볼 것이요, 그 아버지된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자식을 볼 것이다. 임금이 거룩하면 신하된 사람은 충성스러울 것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도 따라서 효도할 것이다.”

하였다.

王良이云 欲知其君이면 先視其臣하고 欲知其人이면 先視其友하고 欲知其父면 先視其子니 君聖臣忠하고 父慈子孝니라.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말하기를,

“물이 몹시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일을 분명히 살피면 친구가 없다.”

하였다.

家語에 云 水至淸則無魚하고 人至察則無徒니라.

-
- 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 남긴 언행(言行)을 기록한 책. 위(魏)나라 왕숙(王肅)이란 사람이 편찬했다고 한다.

●허경종(許敬宗)이 말하기를,

“봄비가 기름처럼 소중하지만 길가는 사람은 진흙이 튀는 것을 싫어하고, 가을 달이 빛을 드날리지만 도둑놈은 그 밝게 비치는 것을 미워한다.”
하였다.

許敬宗이 曰 春雨如膏나 行人은 惡其泥濘하고 秋月이 揚輝나 盜者는 惡其照鑑이
니라.

-
- 허경종(許敬宗): 중국 당(唐)나라 때 정치가(政治家).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대장부는 착한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이름과 절개를 태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굳게 쓰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새털보다도 더 가볍게 여긴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大丈夫는 見善明故로 重名節於泰山하고 用心剛故로 輕死生於鴻毛
니라.

- 홍모(鴻毛): 기러기 털은 새 털 중에서도 제일 가볍다는 뜻에서, 몸시 가벼운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 남의 흉한 일을 마음 속으로 민망히 여기고, 남의 착한 것을 즐겁게 여기고, 남의 급한 일을 건져주고, 남의 위험한 것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

悶人之凶하고 樂人之善하고 濟人之急하고 救人之危니라.

● 자기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치 않아 의심이 되는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으랴?

經目之事도 猶恐未皆眞이어든 背後之言을 豈足深信이리오.

● 자기 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한탄하지 않고 공연히 남의 집 우물이 깊어서 고생하는 것만 원망한다.

不恨自家蒲繩短이요 只恨他家苦井深이라.

- 정당하지 못한 뇌물을 탐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데 복 없는 사람만 법에 걸린다.

賊濫滿天下로서 罪拘薄福人이라.

- 하늘이 만일 떳떳한 것을 고치면 바람 아니면 비가 올 것이고, 사람이 만일 떳떳한 것을 고친다면 앓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天若改常이면 不風即雨요 人若改常이면 不病即死니라.

- 장원시(壯元詩)에 말하기를,

“국가가 정치를 바르게 하면 하늘 마음도 순할 것이고, 관청이 맑게 일을 하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다.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화(禍)가 적을 것이고,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壯元詩에 曰 國正天心順이요 官清民自安이라. 妻賢夫禍少요 子孝父心寬이라.

- 공자가 말하기를,

“나무를 먹줄을 좇아 깎으면 곧아질 것이고, 임금된 사람으로써 신하들의 간(諫)하는 말을 좇으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子曰 木從繩則直하고 君從諫則聖이니라.

● 한줄기 푸른 산의 경치는 그윽한데, 전 사람이 갈던 밭을 뒷사람이 거두는도다.
뒷사람이 거두는 것 너무 기뻐하지 말라. 다시 거둘 사람이 앞으로 또 있으리.

一派青山景色幽한데 前人田土後人收라. 後人收得莫歡喜하라. 更有收人在後頭니라.

• 후두(後頭): 앞으로 오는 장래. 이 '後頭(허우허우)'는 중국어식 표현임. '頭'는 허사(虛詞).

● 소동파(蘇東坡)가 말하기를,
“까닭이 많은 돈을 얻으면 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했다.

蘇東坡曰 無故而得千金이면 不有大福이라 必有大禍니라.

• 소동파(蘇東坡): 이름은 식(軾), 자는 자瞻(子瞻). 북송(北宋) 때 사람으로 유명한 문장가(文章家). 당 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예담] 중국 송(宋)나라 때 왕수(王秀)라는 사람이 진평태수(晉平太守)가 되어 임지(任地)에 부임해 왔다. 부임을 하고 보니 진평(晉平)이란 고을은 토지가 비옥(肥沃)하고 산물이 풍부해서 각 처의 돈이 이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시가지가 변화하고 거상(巨商)들의 출입이 빈번했다.

그러므로 기왕에 이곳 태수로 온 사람이면 누구나 거재(巨財)를 모아가지고 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이런 줄은 모르고 부임해 온 왕수는 부임한 지 겨우 1년을 채우고 나서 사직하고 그 고을을 떠났다.

좌우 사람이 묻는다.

“다른 분들은 밀어내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진평 고을인데 태수는 왜 이런 좋은 자리를 스스로 마다하고 버립니까?”

그러나 왕수의 대답은 담담했다.

“허허……. 이 고을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나는 사직하고 가는 것이요. 이 고을이 토지가 기름지고 물화가 풍부해서 사방 돈이 모두 이곳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소. 현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재물이요, 그리고 까닭 없는 재물이 생기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큰 화가 따라다니는 법이요. 그런 까닭에 옛날로부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재물에 눈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이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은데, 탐내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 시기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시기심이 생기면 중상모략이 따르는 것이니 그것도 또한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요.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근실하게 농사나 지으면 굶지 않을 터인데 왜 이 자리에 앉아 화를 부른단 말이요.”

지금 세상의 관리들도 이런 청백(淸白)한 아량(雅量)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까닭 없는 천금을 얻으면 반드시 큰 화가 찾아온다.”

왕수야말로 이러한 이치를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선각자라 아니할 수 없다.

●소강절(邵康節) 선생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떠한 것이 화가 되고 어떠한 것이 복이 되느냐고 묻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내가 남을 해치면 화가 될 것이고 남이 나를 해치면 오히려 복이 되는 수가 있다고 대답했다.”

하였다.

邵康節先生이 曰 有人이 來問卜하되 如何是禍福고 我虧人是禍요 人虧我是福이니
라.

●큰 집 천 칸이 있을지라도 밤에 자기가 누울 곳은 여덟 자(尺)에 지나지 못할 것
이요, 좋은 전답이 만 석(石)거리가 있을지라도 자기가 먹는 곡식은 하루에 두 되
(升)밖에 되지 않는다.

大廈千間이라도 夜臥八尺이요 良田萬頃이라도 日食二升이니라.

●“남의 집에 오랫동안 유숙하고 있으면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법이요, 자주 찾아
오면 친하던 사이도 오히려 소원해지기 마련이다. 사흘이나 닳새 만에 한 번씩 만
나는 것도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만은 못할 것이다.”

久住令人賤이요 頻來親也疎라. 但看三五日에 相見不如初라.

●목마를 때 한 방울 물을 주면 그것은 단 이슬과도 같고, 취한 뒤에 또 한 잔을 주
는 것은 주지 않는 이만 못한 것이다.

渴時一滴은 如甘露하고 醉後添盞는 不如無니라.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취하는 것이요, 미색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를 탐해서 미혹되는 것이다.

酒不醉人人自醉요 色不迷人自迷라.

●“공변(公辨)된 마음이 자기를 위하는 사사로운 마음 같다면 무슨 일이든지 시비를 가리지 못할 게 없으며, 도리(道理)의 마음이 감정의 마음과 같다면 덕(德)을 이룬지 오렐 것이다.”

公心이 若此私心이면 何事不辨이며 道念이 若同情念이면 成德多時나라.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덕이 적으면서 지위가 높거나 또는 지혜가 적으면서 큰 일을 계획하고 보면 화가 생기지 않는 자 적을 것이다.”

하였다.

易에 曰 德微而位尊하고 知小而謀大면 無禍者鮮矣나라.

• 주역(周易): 유학(儒學)의 경전(經典) 중의 하나.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길흉·화복을 기록한 것.

●《설원(說苑)》에 말하기를,

“벼슬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나은 것이 오히려 더해지는 것이다. 화는 지나치게 게으름을 부리는 데서 생기기 마련이고, 효성은 제 처자를 생각하는 때문에 쇠해지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네 가지 일을 살피면 끝까지 삼가는 것이 처음과 같을 것이다.”

하였다.

說苑에 曰 官怠於宦成하고 病加於小愈하며 禍生於懈惰하고 孝衰於妻子니 察此四者면 慎終如始니라.

• 설원(說苑): 중국 전한(前漢) 때 유향(劉向)이 지은 책.

●그릇에 물건이 가득 차면 넘치는 법이고, 사람에게 운수가 차면 기울어지는 법이다.

器滿則溢하고 人滿則虧니라.

●한 자나 되는 구슬을 보배로 여기지 말고, 한 마디 되는 짧은 시간을 귀중히 여기라.

尺璧이 非寶요 寸陰을 是競이니라.

[예담] 조선 광해군(光海君) 때 폐모(廢母)의 의논이 일어나자 영상(領相) 박승종(朴承宗)은 이를 분연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 후 광해(光海)가 쫓겨나고 인조(仁祖)가 반정(反正)을 하자 박승종은 그 아들 경기감사(京畿監司) 자흥(自興)과 더불어 공천(矜川) 삼악사(三嶽寺)에서 자살하면서 유서를 남겨,

“신하로써 임금을 바로잡지 못하여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地下)에 가서 선왕(先王)을 뵈겠는가? 차라리 이 목숨을 끊어 천지신명(天地神明)께 사죄하노라.”

했다.

승종은 영상으로 있으면서 항상 주머니 속에 계란 크기만 한 비상(砥霜)을 넣고 다니며,

“불행한 때를 만나 어느 때 죽을지 모르니 이것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닌다.”

하고 혼자 있을 때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자탄(自嘆)한 것을 보면, 몸은 비록 영상으로 최고의 영화를 누렸건만 항상 자살할 각오만은 서 있었던 것이다.

삼악사(三嶽寺)에 가서 승방(僧房)에 누워 줄로 목을 매고 줄 끝을 문틈으로 내보내서 하인(下人)들을 시켜 잡아당기라고 하니 하인들은 끊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인의 손으로 어찌 차마 상전(上典)의 목을 조를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니 승종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오늘날 죽지 않으면 만고(萬古)에 죄인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주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불충(不忠)한 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준절히 타이르자 하인은 부득이 통곡하면서 줄을 잡아당겼다. 아들 자흥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자흥은 소인(小人) 이이첨(李爾瞻)의 사위로써 처음에는 승종과 이첨은 사돈간이라서 의가 매우 좋았다.

그러다가 승종은 이첨이 폐모의 간계를 품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허실(虛實)을 알

고자 일부러 이점을 찾아 대화(對話)를 하고 있는데 마침 까마귀 한 마리가 뜰 나 무가지에 앉아 펄떡이면서 우는 것이었다.

승종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비록 미물(微物)이기는 하나 반포지효(反哺之孝)가 있는 새이니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하였으나 이점은 묵묵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또 얼마 있다가 벌 하나가 자리에 날아 들어오는 것을 보고 승종은,

“저것도 비록 미물이기는 하지만 군신(君臣)의 의리를 천시(賤視)할 수가 없지요.”

하니 이점은 역시 묵묵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이에 승종은 이점의 폐모의 뜻이 굳은 것을 알고 일체 발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

이러한 박승종은 자신이 최후의 비극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종시 은퇴(隱退)하지 못한 것은 역시 부귀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였는지 혹은 임금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는지 그것은 의논할 바 아니나, 그들 부자의 최후를 볼 적에 부귀(富貴)란 무턱대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된다.

● 양고기 국물이 비록 맛이 좋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의 입에 고루고루 맞을 수는 없다.

羊羹이 雖美나 衆口는 難調니라.

● 《익지서(益智書)》에 말하기를,

“깨끗한 구슬은 아무리 진흙에 던지더라도 그 빛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고, 군자(君子)는 아무리 옳지 못한 곳에 갈지라도 그 마음을 흐려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소나무나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능히 이겨내고, 밝은 지혜가 있는 사람

은 곤란하고 위급한 것을 잘 겪어나가기 마련이다.”
하였다.

益智書에 云 白玉은 投於泥라도 不能汚穢其色하고 君子는 行於獨地라도 不能染亂
其心하나니 故로 松栢은 可以耐雪霜이요 明智는 可以涉難危니라.

●산 속에 들어가 범을 잡기는 쉽고, 입을 열어 사람에게 말하기는 몹시 어려운 일
이다.

入山擒虎易하고 開口告人難이라.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곳에 일어난 화재를 구할 수 없고, 먼데 있는 일가는
가까운 데 사는 이웃만 못한 것이다.

遠水는 不救近火요 遠親은 不如近隣이니라.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해와 달이 제 아무리 밝아도 얹혀 놓은 물동이 밑바닥까지는 비칠 수 없는 것이
고, 칼날이 제 아무리 날카로워도 죄 없는 사람의 목을 베이지 못하는 것이고, 나
쁜 재앙이나 빚나가는 화는 행동을 삼가는 사람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다.” 했다.

太公이 曰 日月이 雖明이나 不照覆盆之下이고 刀刃이 雖快나 不斬無罪之人하고
非災橫禍는 不入愼家之門이니라.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좋은 전답이 일만 경(頃)이나 되어도 자기 몸에 지닌 용렬한 재주만 못한 것이
다.”

하였다.

太公이 曰 良田萬頃이 不如薄藝隨身이니라.

● 《성리서(性理書)》에 말하기를,

“사물(事物)을 처리하는 요점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요구하지 말 것과 자
기가 행동해서 소득이 없거든 반성해서 자기 몸에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였다.

性理書에 云 接物之要是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고 行有不得이어든 反求諸己니라.

[예담] 중국 오(吳)나라 연능계자(延陵季子)는 어진 공자(公子)였다.

말을 타고 교외에 놀러 나가다가 무심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금덩어리를 발견했
다.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자기가 줍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
저할 무렵, 마침 저 쪽에서 오는 나뭇꾼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다 떨어진 옷에 등
에는 나뭇짐을 졌는데 몹시 간구해 보이는 초부(樵夫)였다.

“여보시오! 저걸 주워가지고 가시오!”

하면서 길 가에 구르고 있는 금덩어리를 가리켰다.

그러나 그 초부는 나뭇지계를 벗어놓더니 눈을 부릅뜨고 공자에게 호령을 한다.

“여보! 당신도 그만한 예의 염치는 알 듯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오.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필시 임자가 있을 물건, 당신은 그것을 주워 갖지 않으면서 왜 나더러 가지라는 거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권하다니 젊은 분이 그래가지고야 뭘 한단 말이오.”

공자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즉시 말에서 내려 사죄하고 그의 성명을 물었으나 초부는 종시 말하지 않고 가버렸다.

좀 지나친 이야기일는지 모른다. 아무리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권치 말라고는 했지만 땅에 떨어진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다니 지금 세상 인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다. 하지만 연능계자의 사적에는 분명히 이런 사적이 적혀 있는 것이다.

●“술과 여색(女色)과 재물과 기운의 네 가지로 쌓아놓은 담 안에 잘나고 못한 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사는 것과 같도다. 만일 세상 사람이 이 속에서 뛰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신선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는 방법일세.”

酒色財氣四堵牆에 多少賢愚在內廂이라. 若有世人이 跳得出이면 便是神仙不死方 이니라.

[총론] 이 하편(下篇)에는 북송(北宋)의 진종황제(眞宗皇帝) · 신종황제(神宗皇帝) · 고종황제(高宗皇帝) 등 세 임금의 어제(御製)를 일제히 수록한 것이 특색이다. 위험을 알고 인덕(仁德)을 베풀라, 착하고 어진 이를 천거하고 남을 질투하거나 원한을 갚으려 하지 말라, 자기에게 마땅치 않은 도의 외의 재물이나 정도에 지나는 재물을 탐하지 말라, 심지어는 농사짓는 농부와 길쌈하는 여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라.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명절(名節)의 중한 것을 강조하고 재물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과 주색(酒色)에 빠지지 말라고까지 주장했다.

이 성심편(省心篇)이야말로 이 책의 핵심(核心)인 것으로서, 양으로 보아도 전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록된 내용도 또한 다방면에서 채록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치정편(治政篇)

●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하기를,

“처음으로 벼슬하는 선비가 진실로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간에게 반드시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明道先生이 曰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이면 於人에 必有所濟니라.

●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지은 글에 이런 말이 있다.

“위에는 일을 지시하는 임금이 있고 중간에는 이 지시를 받아 다스리는 관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여기에 따라가기만 하는 백성이 있는데, 모든 관리들은 보수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해 입고 창고에 쌓인 곡식으로 밥을 해먹으니, 알고 보면 너희들이 받는 봉급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짜낸 기름인 것이다. 관리들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푸른 하늘은 속이기 어려울 것이다.”

唐太宗御製에 曰 上有麾之하고 中有乘之하고 下有附之하여 幣帛衣之요 倉廩食之하니 爾俸爾祿이 民膏民脂니라 下民은 易虐이어나와 上蒼은 難欺니라.

• 당태종(唐太宗): 중국 당(唐)나라 태종(太宗)으로서 당나라 둘째 임금. 이름은 세민(世民),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아들이다.

●《동몽훈(童蒙訓)》에 말하기를,

“벼슬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청백한 것과 근신하는 것과 부지런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몸가짐을 안다고 할 것이다.”

하였다.

童蒙訓에 曰 當官之法은 唯有三事하니 曰淸曰愼曰勤이라 知此三者면 知所以持身矣나라.

[예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백설 위로 햇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비치던 1809년 2월 12일,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터전을 닦아놓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태어났다.

그런데 링컨의 집은 여간 가난하지가 않았다. 부지런한 아버지는 황무지를 개척하여 옥수수를 심고 가축을 기르는 등,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도 한가한 시간이 없었으나 생활은 여전히 끼니를 잇기에 바빴고 간신히 살을 가릴 정도의 옷을 마련하기에 급급하였다.

이토록 가정 형편이 곤궁하였으므로 링컨이 어렸을 때에는 타다 남은 숯 토막을 연필로 삼고 널빤지를 종이 대용으로 이용하여 글씨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링컨은 아버지를 도와 도끼를 메고 땅을 개간하는 데에 협력하였고 손이 부르트도록 황무지를 일구고는 다시 그 땅에 곡식을 심어야 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晝耕夜讀)의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었다.

훗날 일국의 대통령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링컨도 어렸을 때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근면하기가 그 누구에 비길 수 없는 생활을 한 대통령으로서 유명하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의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급한 용무로 비서가 중요 서류를 가지고 대통령실로 들어가다가 보니 복도 한 구석에서 웬 사람이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대로 지나

치려다가 다시 눈이 그리로 가서 자세히 본즉 구두를 닦고 있는 이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링컨 대통령이였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동안을 멍하니 서있던 비서는 정색을 하고서,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손수 구두를 닦다니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고 못마땅하게 말하였으나 링컨은 태연하게,

“내가 구두를 닦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인가? 왜 대통령은 구두를 닦아서는 안될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잘못된 생각이야. 자네 생각에는 이러한 일이 대통령의 체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모양이네만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닌가? 구두닦이나 대통령이나 일꾼이기는 마찬가지야.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는 법일세.”

하고 말하고는 여전히 구두 닦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시종 미소가 가시지 않았고 그의 손이 바빠 움직일 때마다 구두는 빛을 더해갔다. 비서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링컨은 말없이 구두약 묻은 손으로 서류를 받아 구두를 닦을 때 열심히 읽는 것이었다.

이것은 학교라고는 일 년도 채 못 다녀 보고, 겨우 열두 살 때부터 품팔이 노동을 하기 시작하여 자활과 독학의 길을 걸어온 링컨이 산 체험에서 얻은 좋은 교훈이었다.

“바쁜 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는 교훈을 누구보다 앞장 서서 온 인류에게 웅변으로 외친 산 경전(經典)이었다.

● “벼슬하는 사람은 만드시 사납게 성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있거든 마땅히 자세하게 알아서 처리한다면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먼저 성내기부터 한다면 이는 오직 자신을 해칠 것이니, 어찌 남을 해칠 뿐이리오.”

當官者는 必以暴怒爲戒하여 事有不可어든 當詳處之면 必不無中이어나와 若先暴怒면 只能自害라 豈能害人이리오.

●임금 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윗 관리를 섬기기를 형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동료(同僚)들과 사귀기를 가족끼리 지내듯이 하고, 여러 아전들을 대접하기를 자기집 종과 같이 하고, 백성 사랑하기를 자기 처자를 사랑하듯 하고, 관청 일을 처리하기를 자기집 일을 처리하듯 한 뒤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할 것이니,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두 내 마음에 미진(未盡)한 점이 있는 까닭이다.

事君을 如事親하고 事官長을 如事兄하고 與同僚를 如家人하고 待群吏를 如奴僕하고 愛百姓을 如妻子하고 處官事를 如家事然後에 能盡吾之心이니 如有毫末不至면 皆吾心에 有所未盡也니라.

●어떤 사람이 정이천(程伊川) 선생에게 묻기를,

“부(簿)라는 것은 영(令)을 돕는 것인데 부(簿)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영(令)이 혹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였다.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선의로 그를 감동시킬 것이다. 지금 영(令)이 부(簿)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니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인데, 영(令)은 한 고을의 어른이니 부(簿)는 부형(父兄)을 섬기는 도리로 섬겨서 만일 잘못이 있으면 이것은 자기가 잘못된 것으로 만들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영(令)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

려하여 영에게로 돌려서 이 같은 성의를 쌓고 보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리오.”

하였다.

或問 簿는 佐令者也라 簿所欲爲를 令或不從이면 奈何잇고 伊川先生이 曰 當以誠意動之나라. 今令與簿不和는 便是爭私意요 令은 是邑之長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로 事之하여 過則歸己하고 善則唯恐不歸於令하여 積此誠意면 豈有不動得人이리오.

-
- 부(簿): 원님을 보좌하는 원님 다음 가는 벼슬자리.
 - 영(令): 원. 지금으로 치면 군수 같은 벼슬.
 - 정이천(程伊川): 이름은 이(頤), 자는 정숙(正叔), 이천(伊川)은 그의 별호. 북송(北宋)의 대유(大儒)로서 뒤에 나온 주자(朱子)와 함께 송학(宋學)의 대표적인 학자.

● 유안례(劉安禮)가 명도 선생(明道先生)에게 백성 다스리는 법을 물었다.

명도 선생은 대답하기를,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다.

또 부하를 거느리는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먼저 내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모든 물건을 바로잡게 하라.”

하였다.

劉安禮 問 臨民한데 明道先生이 曰 使民各得輸其情이나라. 問御吏한데 曰 正己以格物이나라.

-
- 유안례(劉安禮): 자는 원소(元素). 중국 북송(北宋) 때 사람.

●《포박자(抱朴子)》에 말하기를,

“비록 형벌을 당하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굳게 임금의 잘못을 간(諫)할 것이며 기
름 술에 삶겨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다한다면 이는 충신이라
하는 것이다.”

하였다.

抱朴子에 曰 迎斧鉞而正諫하며 據鼎鑊而盡言이면 此謂忠臣也니라.

-
- 포박자(抱朴子): 중국 진(晉)나라 갈홍(葛洪)이란 사람이 지은 책. 내외 두 편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신
선이 되는 법과 시세(時世)의 득실(得失)과 인사(人事)의 시비(是非) 등이 기록되어 있다.
 - 부월(斧鉞): 큰 도끼. 무거운 형벌. 목 베어 죽임.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다는 뜻.

[총론] 정치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야 한다. 또한 정치는 청렴 · 신중 · 근면의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여기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임금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고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 사랑하듯 하라.”

이 얼마나 절실한 교훈인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한다면 거의 과오가 없을 것이다.

입교편(立教篇)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몸을 세우는 의(義)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근본이요, 장사지내고 제사지내는 예법은 슬퍼하는 것이 근본이요,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 데는 용맹스러운 것이 근본이요, 정치하는 이치에 있어서는 농사가 근본이 되는 것이요, 국가를 보전하는 도리는 대를 잘 잇게 하는 것이 근본이요, 재물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노력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였다.

子曰 立身有義하니 而孝爲本이요 喪祀有禮하니 而哀爲本이요 戰陣有列하니 而勇爲本이요 治政有理하니 而農爲本이요 居國有道하니 而嗣爲本이요 生財有時하니 而力爲本이니라.

• 사(嗣): 자손에게 대를 잇게 한다는 뜻.

●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정치하는 요점은 공정한 것과 청백한 것이요, 자기 집을 일으키는 도리는 검소한 것과 부지런한 것이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爲政之要是 曰 公與淸이요 成家之道는 曰 儉與勤이니라.

●글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올바른 이치에 따르는 것은 자기 집을 보전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근본이다.

讀書는 起家之本이요 循理는 保家之本이요 勤儉은 治家之本이요 和順은 齊家之本이 아니라.

[예담] 정유성(鄭維城)이라면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9대손으로, 현종(顯宗) 때의 정승이었다. 그의 손자 제현(齊賢)이 숙휘공주(淑徽公主)에게 장가들어 인평위(寅平尉)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대신이요, 더욱이 국혼(國婚)까지 해서 집안이 너무 갑자기 혁혁해지는 것을 은근히 마음 속으로 걱정한 그는 언제나 근신하고 근검(勤儉)하려고 애썼다.

하루는 공주를 보고 말하기를,

“공주께서는 내 손자의 죽음을 재촉하지 마시오.”

하니 공주는 말뜻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정유성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이란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법이오. 우리는 대대로 청빈하고 근검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지나치게 사치가 심하고 보니 이러다가는 불원해서 화가 생길까 걱정이니 좀 자숙(自肅)해 주시오.”

하였다.

그 후에 손자 인평위(寅平尉)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공은 그의 거실(居室)에 들어가서 궁중에서 보내온 사치스러운 의복과 기구를 보고 나와서 탄식하는 것이었다.

“저것들이 필경 내 손자를 죽이고 말았구나!”

올바른 이치를 좇는 것만이 집을 보전하는 근본이 되고 근검하는 것만이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

● 공자의 《삼계도(三計圖)》에 쓰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는 것이니, 어려서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 수확할 가망이 없을 것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 할 일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孔子三計圖에 云 一生之計는 在於幼하고 一年之計는 在於春하고 一日之計는 在於寅이니 幼而不學이면 老無所知요 春若不耕이면 秋無所望이요 寅若不起면 日無所辦이니라.

● 삼계도(三計圖): 1생 · 1년 · 1일의 세 가지 계획도.

● 인(寅): 방위로는 동쪽. 여기서는 시간을 말한 것으로 밤 12시를 자시(子時) 정각으로 정하고 2시~3시를 축시(丑時), 4시~5시를 인시(寅時), 6시~7시를 묘시(卯時), 8시~9시를 진시(辰時), 10시~11시를 사시(巳時), 낮 12시~1시를 오시(午時), 2시~3시를 미시(未時), 4시~5시를 신시(申時), 6시~7시를 유시(酉時), 10시~11시를 해시(亥時)로 따지고 보면 밤 12시~1시는 다시 자시(子時)가 된다.

● 《성리서(性理書)》에 말하기를,

“다섯 가지 가르침의 종목이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친구와 친구끼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였다.

性理書에 云 五教之目은 父子有親하고 君臣有義하고 夫婦有別하고, 長幼有序하고 朋友有信이니라.

-
- 오교지목(五敎之目): 여기에 쓴 다섯 가지 가르침이란 곧 오륜(五倫)을 말한 것이다. 유교(儒敎)에서 말하는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있는데 위에 쓴 것이 곧 오륜이고, 삼강이란 다음 구절에 나온다.

● 세 가지 버리(三綱)란 임금은 신하의 버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버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버리가 되는 것이다.

三綱은 君爲臣綱이요 父爲子綱이요 夫爲婦綱이니라.

-
- 버리(綱): 일의 으뜸되는 줄거리. 사람이 행해야 할 도덕.

● 왕촉(王觸)이 말하기를,

“충성된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개가 곧은 여자는 남편을 바꿔 섬기지 않는다.”

하였다.

王觸이 曰 忠臣은 不事二君이요 烈女는 不更二夫니라.

-
- 왕촉(王觸):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때 제(齊)나라 사람. 제(齊)나라가 이웃 연(燕)나라에게 패하게 되자 항복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살했다.

[예담] 신라(新羅) 제19대 눌지왕(訥祗王) 때의 일이다.

눌지왕의 큰 아우 보해(寶海)는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가 있고, 끝의 아우 미해(美

海)는 왜국에 볼모로 가 있었다. 놀지왕은 왕위에 있으나 항상 두 아우들을 생각하여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놀지왕의 고민을 보자 이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선뜻 나선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박제상(朴堤上)이었다.

박제상은 우선 고구려에 가서 은밀한 수단을 써서 고구려의 총신(寵臣)들을 매수해 가지고 효정의 눈을 속여 보해(寶海)를 데리고 빠져 돌아오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보해를 보자 놀지왕은 더욱 서러워한다.

“이제 보해를 만나 보니 미해(美海)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고나. 마치 한 몸에 한 팔이나 한 눈만 있는 것과 같구나.”

하면서 놀지왕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대해도 아름다운 여색(女色)을 보아도 놀지왕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자 박제상은 곧 왜국으로 건너갔다.

여기에서도 박제상은 교묘한 수단을 써서 미해를 빼내어 배를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나 그 대신 자기 자신이 왜국 군대에게 잡혀 끌려가는 몸이 되었다.

왜국 왕은 박제상을 보자 크게 노해서 꾸짖는다.

“내 너희 태자를 예의로 대접해왔거늘 어찌 감히 이런 짓을 한단 말이나?”

박제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왕은 무쇠에 불을 달여 박제상의 몸뚱이를 지지는 등 갖은 악형을 가한다. 제상은 조금도 두려운 빛이 없이,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형벌을 한대도 나는 우리 신라를 위해서 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했으니 이제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 어서 나를 죽여라!”

하면서 자못 의기당당하다.

이것을 본 왜왕은 그의 의기에 감탄했다. 잠시 형벌을 멈추게 하고 넌지시 말한다.

“네 만일 우리 왜국 신하라고 한 마디만 하면 살려주리라.”

그러나 박제상은 눈을 부릅뜨고 왜왕을 꾸짖는다.

“내 비록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어찌 너희 나라 신하가 되겠느냐?”

결국 박제상은 왜왕의 극형 끝에 “나는 신라의 신하다!”하고 외치면서 죽음을 당했으니 그 얼마나 거룩한 애국심이었던가?

“충신이 어찌 두 임금을 섬기리오?”

박제상에게서 이 글귀를 다시 한 번 찾아볼 수가 있다.

● 충자(忠子)가 말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요, 재물에 당해서는 청렴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

하였다.

忠子曰 治政은 莫若平이고 臨財에 莫若廉이니라.

● 장사숙(張思叔)의 좌우명(座右銘)에 말하기를,

“모든 말은 반드시 충성되고 신용 있게 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돈독(敦篤)하고 공경해야하며, 음식은 반드시 조심하고 절조 있게 해야하며, 글씨를 쓰는 데는 반드시 똑똑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 얼굴 모습은 반드시 단정하고 씩씩히 가져야 하며 의관(衣冠)은 반드시 반듯하고 엄숙히 해야 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전하고 점잖게 해야 한다.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조용하게 해야 하며, 일하는 것은 반드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며 말을 입 밖에 낼 적에는 반드시 자기가 실천할 것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 항상 마음 속에 간수하는 덕(德)을 반드시 굳게 가져야 하며 남에게 일을 허락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의 성패를 소중히 보고 해야 한다. 착한 것을 보거든 내가 한 일처럼 여기고, 악한 것을 보거든 내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라. 대체 이 열네 가지 일은 모두 내가 깊이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자리 바른 편에 써두고 아침저녁으로 보고 경계코자 하노라.”

하였다.

張思叔座右銘을 曰 凡語를 必忠信하며 凡行을 必篤敬하며 飲食을 必愼節하며 字劃을 必楷正하며 容貌을 必端正하며 衣冠을 必整肅하며 步趨를 必安詳하며 居處를 必正靜하며 作事를 必謀始하며 出言을 必顧行하며 常德을 必固持하며 然諾을 必重慮하며 見善如己出하며 見惡如己病하라. 凡此十四者是 皆我未深省이라 書此座右하여 朝夕視爲警하노라.

• 장사숙(張思叔): 중국 북송(北宋) 사람으로 정이천(程伊川)의 제자.

● 범익겸(范益謙)의 좌우명(座右銘)에 말하기를,

“첫째, 정부의 이름과 해로운 일과 변방의 보고와 누가 벼슬에 임명된 일 등을 말하지 말 것. 둘째, 고을살이하는 관리들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 것. 셋째, 여러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말 것. 넷째, 누가 관직에 임명되었다거나 누가 세력에 아부해서 출세한다는 일들을 말하지 말 것. 다섯째,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이나 가난한 게 싫다거나 부자를 바란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말 것.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스러운 말이나 여색에 대한 평판을 하지 말 것. 일곱째, 사람을 찾아가서 술이나 음식을 토색(討索)하지 말며, 또 남이 부치는 편지가 있으면 이것을 뜯어보거나 묵혀 두지 말며, 사람과 같이 앉았을 때에는 남의 사신(私言)을 엿보지 말 것. 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문자를 보지 말고 남의 물건을 빌렸거든 이것을 결판내거나 묵혀 두지 말고, 음식을 먹을 적에는 가려서 먹거나 나쁜 것을 버리거나 하지 말고, 남과 같이 있을 적에는 자기만 편한 것을 취하지 말고,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 것. 이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하여 범한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자기 마음 쓰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을 알 것이니, 바른 마음을 갖고 몸을 닦는 데 크게 해로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했다.

范益謙座右銘에 日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하고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하고 三不言衆人所作 過惡之事하고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하고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하고 六不言淫媾戲慢評論 女色하고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하고 又人付書信을 不可開拆祈沈滯하고 與之並坐에 不可窺人私書하고 凡入人家에 不可看人文字하고 凡借人物에 不可損壞不還하고 凡喫飲食에 不可揀擇去取하고 與人同處에 不可自擇便利하고 凡人富貴를 不可歎羨詆毀니라 凡此數事에 有犯之者면 足以見用意之 不肖니 於正心修身에 大有所害라 因書以自警하노라.

●주(周) 무왕(武王)이 강태공(姜太公)에게 묻는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어찌해서 귀하고 천한 것이나 가난하고 부자로 사는 차이가 생기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오.”

태공(太公)이 대답한다.

“부하고 귀한 것은 성인(聖人)의 덕(德)과 같아서 모두 하늘이 준 운명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은 쓰는 것을 절조 있게 쓰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 집에 열 가지 도둑이 있는 까닭입니다.

武王이 問太公 日 人居世上에 何得富貴貧賤不等고 願聞說之하여 欲知是矣로다. 太公이 日 富貴는 如聖人之德하여 皆由天命이나 富者는 用之有節하고 不富者는 家有十盜니이다.

-
- 주(周) 무왕(武王): 중국 주나라의 첫 임금인 문왕(文王)의 아들. 이름은 발(發). 은(殷)나라를 정복하고 주나라를 세워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장안(長安)에 도읍함.

●무왕(武王)이 다시 묻는다.

“그 열 가지 도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태공(太公)이 대답한다.

“곡식이 익었는데 이것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첫째 도둑입니다. 다음으로 거두기를 시작했더라도 이것을 창고에 들여다가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 도둑이고 아무 일도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셋째 도둑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을러서 농사를 짓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이 넷째 도둑이요, 아무런 공력(功力)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다섯째 도둑이요, 교묘한 일과 남에게 해가 되는 일만 골라서 행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입니다. 계집만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 도둑이요, 낮잠 자고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요, 술을 몹시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요, 지나치게 남을 시기하는 것이 열 번째 도둑입니다.”

武王이 曰 何謂十盜이고, 太公이 曰 時熟不收爲一盜요 收積不了爲二盜요 無事燃燈寢睡爲三盜요 慵懶不耕이 爲四盜요 不施功力이 爲五盜요 專行巧害爲六盜요 養女太多爲七盜요 晝眠懶起爲八盜요 貪酒嗜慾이 爲九盜요 強行嫉妬爲十盜니이다.

●무왕(武王)은 또 묻는다.

“그렇다면 집에 이런 열 가지 도둑이 없어도 부자가 못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태공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 집에 반드시 재물을 소모하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소모하는 것이란 또 무엇인지 말해 주시오.”

“창고에 비가 새어도 지붕을 덮지 않아서 쥐나 새들이 마냥 까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첫 번째 소모하는 것이요, 밭에 씨를 제 때에 뿌리지 못하거나 제 때에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소모하는 것이요, 곡식을 땅에 흘려 더럽고 천한 물

건처럼 여기는 것이 세 번째 소모입니다.”

武王이 曰 家無十盜而不富者는 何如오, 太公이 曰 人家에 必有三耗니이다. 武王이 曰 何名三耗니이꼬, 太公이 曰 倉庫漏滯不蓋하여 鼠雀亂食이 爲耗요 收種失時爲二耗요 拋散米穀穢賤이 爲三耗니이다.

●무왕(武王)은 또 묻는다.

“그렇다고 하면 집에 세 가지 소모하는 것도 없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태공이 대답한다.

“그것은 집에 반드시 열 가지 나쁜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오니, 그것은 첫째, 일을 그르치는 것. 둘째,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 셋째, 미련한 것. 넷째, 매사에 실수하는 것. 다섯째, 인륜을 거역하는 처사. 여섯째, 상서롭지 못한 일. 일곱째, 종(奴)의 행색을 하는 것. 여덟째, 천격(賤格)의 일을 하는 것. 아홉째, 어리석은 것. 열째, 지나치게 강한 것 등으로서, 이런 일들은 저절로 화를 부르는 것이옵고 하늘이 주는 재앙은 아닙니다.”

武王이 曰 家無三耗而不富者는 何如오, 太公이 曰 人家에 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强하여 自招其禍오 非天降殃이니이다.

●무왕(武王)이 또 말한다.

“그 자세한 내용을 모두 듣고자 합니다.”

태공(太公)이 말한다.

“자식을 낳아 기르지만 하고 교육시키지 않는 것이 첫번째의 일을 그르친 것이요, 어린아이 때부터 교훈시키지 않는 것이 두번째의 잘못 처리한 것이요, 처음에 새 아내를 맞아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세번째의 미련한 것이요, 남이 말하기 전에 웃음부터 웃는 것이 네번째의 실수요, 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번째의 인륜을 거슬리는 일이요, 밤중에 알몸으로 일어나 밖에 나가는 것이 여섯번째 상서롭지 못한 것이요, 남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가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번째 종의 행색을 하는 것이요, 남의 말(馬)을 빌려다가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번째 천격의 일이요, 남의 술을 얻어먹으면서 그 술을 딴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번째의 어리석은 것이요, 남의 밥을 먹고 지내면서 친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열번째의 지나치게 강한 것입니다.”

무왕(武王)이 듣고 나자,

“참으로 아름답고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했다.

武王이 曰 願聞悉之하노라. 太公이 曰 養男不敎訓이 爲一錯이요 嬰孩不訓이 爲二誤요 初迎新婦不行嚴訓이 爲三痴요 未語先笑爲四失이요 不養父母爲五逆이요 夜起赤身이 爲六不祥이요 好挽他弓이 爲七奴요 愛騎他馬爲八賤이요 喫他酒勸他人이 爲九愚요 喫他飯命朋友爲十强이니이다. 武王이 曰 甚美誠哉라 是言也여.

[총론] 여기에서는 오륜(五倫)과 삼강(三綱)을 위시해서, 사람은 학문과 사업과 처신에 항상 올바르기를 노력할 것과, 나아가서 언충신(言忠信)·행독경(行篤敬)의 덕을 쌓으며 충성과 효도를 주장으로 하라는 교훈을 강조했다.

치가편(治家篇)

치가편(治家篇)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모든 어린 사람들은 일이 크고 작고 간에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집 어른에게 물어서 해야 한다.”

하였다.

司馬溫公이 曰 凡諸幼卑는 事無大小히 毋得專行하고 必咨稟於家長이니라.

●손을 대접하는 것은 넉넉히 해야 하고 집 살림은 검소하게 해야 한다.

待客은 不得不豐이요 治家는 不得不儉이니라.

[예담] 고려(高麗) 의종(毅宗) 때의 일이다. 임금은 날마다 잔치를 벌여 놀기를 좋아하고 불도(佛道)를 믿어 올해에는 무슨 궁(宮)을 짓는다, 내년에는 절을 짓는다 하여 백성들은 굶어가면서도 부역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는 청령재(淸寧齋)라는 큰 재실(齋室)을 짓더니 그 다음에는 그 남쪽으로 중미정(衆美亭)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나서 또다시 그 앞에다가 커다란 호수를 만드는 등 연달은 부역에 백성들은 마침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다.

이때 부역에 나오는 역군(役軍)들은 제각기 점심밥을 싸가지고 와서 일들을 하는데 한 역군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점심밥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날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서 한 숟가락씩 얻어먹고 일을 해왔다.

그는 심중이 몹시 불안했다.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하는 말이다.

“오늘도 그 친구들한테 점심을 얻어먹었으니 이렇게 날마다 신세만 저서 어쩐단 말ियो? 우리도 한 번 갚는 날이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그저 한숨만 내쉬 뿐 아무런 신통한 대답을 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점심시간쯤 하여 큰 광주리에 맛있는 음식과 더운 쌀밥을 지어가지고 와서 남편을 부르더니,

“오늘은 당신이 신세진 친구분들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시오. 어떻게 남의 것만 얻어 드시고 갚지 않을 수가 있단 말ियो?”

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한편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도 했다. 뻔히 아는 자기 집 살림에 어디서 이런 훌륭한 음식이 났나 그것이 의심스러웠다.

남편은 부인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묻는 것이었다.

“여보 부인! 사람으로서 저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건 당연하고도 떳떳한 일이오. 하지만 당신은 도대체 이 음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단 말ियो? 그 까닭이나 알고 먹읍시다 그러.”

남편이 정중히 묻는 바람에 아내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부끄러운 듯이 말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겠수? 다만 여러분에게 늘 신세만 진다하시기에 비록 한 끼나마 그 호의에 보답하려고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과연 부인이 쓴 수건을 벗기고 보니 아내의 머리는 일조(一朝)에 여승(女僧)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아무런 일도 없는 체 친구들을 청해다가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대접했다.

아무리 손님을 풍성히 잘 대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을까? 아니다. 지금 세상 안목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당시 사회의 풍조로 보아 이것은 있을 법한 일이고, 동시에 훌륭한 현처(賢妻)의 소행이 아닐 수 없다.

-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제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한다.”
하였다.

太公이 曰 痴人은 畏婦하고 賢女는 敬夫니라.

- 종을 부리는 데는 먼저 그들의 배고픈 것과 추운 것을 알아주어야 한다.

凡使奴僕에 先念飢寒이니라.

- 아들이 효도를 하니 양친이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하니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子孝雙親樂이요 家和萬事成이라.

- 때때로 혹시 불이 날까 미리 방지하고, 밤마다 도둑이 들까 걱정하여 예비해야 한다.

時時火發이요 夜夜備賊來라.

●《경행록(景行錄)》에 말하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것을 보면 그 집이 흥하고 쇠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다.”

하였다.

景行錄에 云 觀朝夕之早晏하여 可以卜人家之興替니라.

●문중자(文仲子)가 말하기를,

시집가고 장가 드는 데 재물을 말하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일이다.”

하였다.

文仲子 曰 婚娶而論財는 夷虜之道也니라.

-
- 문중자(文仲子): 중국 수(隋)나라 때 유명한 학자로 성은 왕(王), 이름은 통(通). 문중자(文仲子)는 그의 죽은 뒤에 제자들이 부른 사사로운 시호(諡號). 시호란 원래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문중자의 제자들이 저희들끼리 사사로이 자기 스승을 문중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사로운 시호라고 여기에서 말한다.

[총론] “가정을 다스리는 데 손님 접대는 풍족하게 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집안이 화락하다.”는 것으로부터, 심지어 화재를 방지하고 도둑을 막으라는 것, 또는 혼인 지내는 데에는 재물을 논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소상히 말했다.

부부의 화(和)와 부자(父子)의 의(義)를 돈독하게 하라고 이 치가편(治家篇)에서는 강조했다.

안의편(安義篇)

●《안씨가훈(顔氏家訓)》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있는 뒤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뒤에 아버지와 자식이 있고,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 뒤에 형과 아우가 있나니, 한 집안에 가장 친한 것은 이 세 가지뿐이다. 여기에서부터 나아가 모든 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륜(人倫)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인즉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顔氏家訓에 日 夫有人民而後에 有夫婦하고 有夫婦而後에 有父子하고 有父子而後에 有兄弟하니 一家之親이 此三者而已矣요 自茲以往으로 至于九族히 皆本於三親焉故로 於人倫에 爲重也니 不可不篤이니라.

-
- 안씨가훈(顔氏家訓): 중국 북제(北齊)때 안지추(顔之推)란 사람이 지은 책. 주로 몸을 출세시키고 집안을 다스리는 법을 기록했다.
 - 구족(九族): 고조(高祖) · 증조(曾祖) · 조(祖) · 부(父) · 자기 · 아들 · 손자 · 증손(曾孫) · 현손(玄孫)의 아홉 계층을 말함.

●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형제란 수족(手足)과 같고 부부란 의복(衣服)과 같으니 의복이 찢어졌을 때에는 다시 새로 만들어 입을 수도 있지만 수족이 한 번 끊어지고 보면 다시 잇기가 어렵다.”

하였다.

莊子 曰 兄弟는 爲手足이요 夫婦는 爲衣服이니 衣服破時엔 更得新이어나와 手足斷時엔 難可續이니라.

[예담] 삼국시대(三國時代) 때 당나라는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매번 당나라 대군을 격퇴시켰다.

연개소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다. 큰아들은 남생(男生), 그 다음은 남건(男建), 남산(男產)이다. 연개소문이 죽자 큰아들 남생이 계승하여 전권을 쥐고 나랏일을 통솔하고있었다. 그런데 큰아들 남생의 편에 서는 무리가 생기고 또한 작은아들 남건과 남산 편에 서는 무리가 생겨 그들 형제 사이를 이간했다.

그러던 중 남생이 지방을 순찰할 일이 생겨 수도를 비우게 되었다.

남건과 남산 편인 무리들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모책을 꾸몄다.

그들은 남건·남산에게 가서

“남생이 두 아우를 믿지 못하고 늘 꺼려 왔으며 이에 지방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그들을 없애려 한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남건과 남산은 형을 증오하게 되었다.

한편 남생의 편 무리들은 남건과 남산이 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였다. 남생은 그를 두려워하여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그러나 남생이 보낸 사람은 남건·남산에게 잡히고 말았다. 남건·남산은 형의 행동으로 보아 틀림없이 자기들을 해칠 것으로 믿고 남생의 아들 헌충(獻忠)을 죽였다.

드디어 형제간의 싸움은 벌어졌다. 지방에 있던 남생은 이 싸움이 힘에 부쳐 드디어는 원수의 나라 당에게 구원병을 청하게 되었다.

물론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으나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형제간의 싸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골육상쟁이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다.

한 국가 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형제가 화합하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는 법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권을 잡은 형제들이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 나라가 바로 될 리 없는 건 사실이다.

형제란 수족과 같다. 수족이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있겠는가? 형제끼리 싸우다가는 그 집을 망칠 것은 물론, 크게는 국가까지 망치는 결과가 된다.

●소동파(蘇東坡)가 말하기를,

“부자로 산다고 친하게 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멀리 하지 않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대장부다운 일이요, 부자로 살면 찾아가고 가난하면 돌아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소인배(小人輩)의 하는 짓이다.”

하였다.

蘇東坡 云 富不親兮貧不疎는 此是人間大丈夫요 富則進兮貧則退는 此是人間眞小輩니라.

[총론] 인륜(人倫)의 시작은 부부, 부부가 있는 이후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는 이후에 형제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삼친(三親)이라고 했다. 또한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귀는 데는 빈(貧)과 부(富)를 초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준례편(遵禮篇)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집에서는 예가 있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의 분별이 서고, 집안 사이에 예가 있기 때문에 삼족(三族)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조정예 예가 있기 때문에 벼슬 지위에 차서(次序)가 있고, 사냥하는 데 예가 있기 때문에 군사가 한가하고(싸우는 훈련을 이길 수가 있고), 군대에 예가 있기 때문에 무공(武功)을 이룰 수가 있다.” 하였다.

子曰 居家有禮故로 長幼辨하고 閨門有禮故로 三族和하고 朝廷有禮故로 官爵序하고 田獵有禮故로 戎事閑하고 軍旅有禮故로 武功成이니라.

-
- 삼족(三族): 아버지 · 어머니 · 아내의 세 친족.
 - 사냥(田獵): 중국 고대(古代)에 새나 짐승을 잡는 사냥을 함으로써 군사 훈련을 시켰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小人)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하였다.

子曰 君子有勇而無禮면 爲亂하고 少人이 有勇而無禮면 爲盜니라.

●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정부에 있어서는 벼슬 지위 높은 것이 제일이요, 고장에서는 나이 많은 것이 제일
이요,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德)이 많은 것이 제일이다.”
하였다.

曾子 曰 朝廷엔 莫如爵이요 鄉黨엔 莫如齒요 輔世長民엔 莫如德이니라.

-
- 향당(鄉黨): 시골. 옛날 중국의 지방 구분의 명칭으로써 2천 5백 호를 향(鄉)이라 하고 5백 호를 당(黨)이라고 했다.

●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해 놓은 질서(秩序)이니 이치에
어긋나게 해서 도의를 상하지 말 것이다.”

老少長幼는 天分秩序니 不可悖理而傷道也니라.

● “문밖에 나서거든 마치 큰 손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고, 집 안에 들어서서는 마치
큰 제사를 지내듯이 조심조심 할 것이다.”

出門에 如見大賓하고 入室에 如見大祭니라.

● 만일 남이 나를 중히 여기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만 할 것이다.

若要人重我면 無過我重人이니라.

[예담] 인조반정(仁祖反正) 때의 일이다. 김준(金峻)이란 사람은 광해군(光海君) 때 병조(兵曹)에서 늙은 이속(吏屬)으로서 그가 반정(反正) 때 목도(目睹)한 일을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倫)에게 이야기하더라는 내용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광해군(光海君)의 포악무도한 것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철모르는 부녀자나 가동주졸(街童走卒)까지도 원망치 않는 이가 없었지만 막상 의거(義擧)가 있던 날 그가 강화도(江華島)로 쫓겨 가는 꼴이란 어찌나 행색(行色)이 비참한지, 보는 사람이면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까지 그 밑에서 신하로 있던 훈신(勳臣)들 중에는 슬퍼하거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몇 명이 없고 모두 희희낙락해 하더니, 그 일이 지나간 뒷날에 가서 보니 슬퍼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어서 새 조정에 충성을 바쳤지만 지나치게 기뻐하던 사람 쳐놓고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없더라는 것이다. 아마도 전 임금에 대해서 의리가 없던 신하는 새 임금에게 대해서도 충성을 다할 리가 없는 모양이다.

여기 당시의 표본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반정(反正)하던 날 밤 입직(入直)하던 신하들은 모두가 혼비백산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제각기 제 목숨을 도망하여 살 길을 찾는데 그 수라장(修羅場)속에서도 인조(仁祖)를 붙들고 구주(舊主)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신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입직승지(入直承旨)였던 죽천(竹泉) 이덕형(李德炯)이었다.

뒷날 인조(仁祖)는 특별히 교지(敎旨)를 내려 말하기를,

“이덕형의 충의(忠義)는 내가 의거(義擧)하던 날 이미 알았노라.”

하고 그를 중용(重用)하여 벼슬이 판서(判書)에 이르렀다.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나도 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반정의 의거가 일어나 조정이 온통 수라장이 된 판국에,
“구주(舊主)를 살려 주십시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할 수가 있을까? 지극한 충성과 지극한 의리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 아버지는 자식이 잘 한다고 자랑하지 말 것이고 자식은 아버지의 과실을 말하지 말 것이다.

父不言子之德하고 子不言父之過니라.

[총론] 이 준례편(遵禮篇)에서는 집안에 있어서의 예의, 친척끼리의 예의와 그리고 조정에 있어서의 예의, 심지어 전쟁에 있어서까지도 예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 또한 부자간에 예의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편(言語篇)

- 유회(劉會)가 말하기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劉會 曰 言不中理면 不如不言이니라.

-
- 유회(劉會): 사적 미상.

-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한대도 소용이 없다.

一言不中이면 千語無用이니라.

- 엄군평(嚴君平)은 말하기를,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몸뚱이를 망치는 도끼와도 같다.”

君平이 曰 口舌者는 禍患之門이요 滅身之斧也니라.

-
- 엄군평(嚴君平): 중국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사람으로 점치기를 잘했다.

-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

운 것이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한 마디 말은 그 중한 값이 천금(千金)이나 되고, 사람을 해치는 한 마디 말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利人之言은 緩如綿絮하고 傷人之言은 利如荊棘하니 一言利人에 重直千金이요 一語傷人에 痛如刀割이니라.

● 입이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와 같고, 말은 혀를 끊는 칼과도 같으니, 입을 닫고 깊이 혀를 감춘다면 몸이 편안하고 어딜 가나 안전할 것이다.

口是傷人斧요 言是割舌刀니 閉口深藏舌하면 安身處處牢니라.

[예담] 중국 수(隋)나라에 하돈(賀敦)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임금에게 한 말이 화근이 되어 마침내는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는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아들 하약필(賀若弼)을 불러 유언을 한다.

“내 평생에 후회스러운 일을 함이 없더니 그만 잠시 혀를 잘못 놀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구나. 내 너에게 부탁하노니 부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아버가 죽음에 임하여 간곡히 하는 이 부탁을 너희는 평생토록 잊지 말고 명심하여라.”

말을 마치자 그는 몸 속에 감추었던 날카로운 송곳을 꺼내어 아들의 혀를 찔렀다. 그곳에 모여 섰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웬일인가 하였으나 하돈은 다시 침착한 어조로,

“말을 할 때마다 부디 아버가 네 혀 찔른 일을 잊지 말아라.”

하고 드디어 사형을 당하였다.

그 후로 하약필은 일생을 두고 혀튼 말 한 마디 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오직 혀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라는 아버지의 유언과 아버지의 송곳에 찔리던 옛일이 말을 하려 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하악필은 말이 없는 어진 신하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수나라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 사람을 만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해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이니 범의 아가리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다.

逢人且說三分話되 未可全拋一片心이라 不怕虎生三箇口하고 只恐人懷兩樣心이 나라.

● 지기(知己)를 만나 마시는 술은 천 잔을 마셔도 오히려 적을 것이요,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는 말은 한 마디도 오히려 많은 것이다.

酒逢知己千鍾少하고 活不投機一句多라.

-
- 종(鍾): 열 말 들이 그릇을 말한 것으로, 천종(千鍾)이라면 굉장히 많은 술이다.

[총론] 말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천 마디 만 마디를 한대도 소용이 없다. 또한 입이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 되고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된다. 그러니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것이 몸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까지 말한다. 전체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우편(交友篇)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마치 지초(芝草)나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향기를 맡을 수 없으리만큼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이 변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살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 되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으리만큼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이 변해버린다. 주사(朱砂)를 간직한 곳은 붉어지고 옷(漆)을 간직한 곳은 검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을 삼가야 한다.”

하였다.

子曰 與善人居에 如入芝蘭之室하여 久而不聞其香이라도 即與之化矣요 與不善人居에 如入鮑魚之肆하여 久而不聞其臭라도 亦與之化矣니 丹之所藏者赤하고 漆之所藏者黑이라 是以로 君子는 必慎其所與處者矣나라.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말하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물기운이 배어 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무식한 사람과 함께 가면 마치 변소에 앉은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때로 나쁜 냄새를 맡게 된다.”

하였다.

家語에 云 與好人同行이면 如霧中行하여 雖不濕衣라도 時時有潤하고 與無識人同行이면 如廁中坐하여 雖不污衣라도 時時聞臭나라.

● 공자가 말하기를,

“안평중(晏平仲)은 사람과 잘 사귀는도다. 오래 가도 변치 않고 공경했었다.”
하였다.

子曰 晏平仲은 善與人交로다. 久而敬之온여.

-
- 안평중(晏平中): 이름은 영(嬰). 평중(平仲)은 그의 자(字)다.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 경공(景公)을 도와 나라를 흥하게 한 정치가이다.

[예담] 이옥견(李玉堅)은 왕손(王孫)의 한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흥안군(興安君)과 그의 조부 한남군(漢南君)이 모두 폐함을 입자 옥견은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옥견은 사람됨이 순정하고 착해서 판 생업을 구하지는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이웃집에 사는 짚신 장수에게 짚신 삼는 것을 배워가지고 날마다 그와 함께 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지냈다.

세월이 흘러 옥견이 신 삼기를 시작한 지 5년, 워낙 재주가 있고 총명한지라, 손재주도 보통이 아니고 보니 이제 신 삼는 기술도 여간 출중해지질 않았다. 어찌나 옥견의 솜씨가 용하던지 장안(長安)의 명기(名妓)들은 이제 옥견이 삼은 신이 아니면 사 신지 않을 만큼 솜씨가 놀라워졌다. 모양을 내기에만 몰두한 기생 아가씨들은 다투어가면서 옥견의 신만 찾게 되니 자연 옥견의 생계는 조금쯤은 피어가기 시작했다.

옥견이 신을 삼기 시작한 지 8년, 마침내 그에게도 운수가 돌아와 부(父) · 조(祖)의 관작이 회복되고 옥견도 회천정(懷川正)이란 종실(宗室)벼슬을 제수(陞授)받게 되었다. 비황(飛黃)을 타고 초모(貂帽)를 쓴 채 날마다 조정에 출입하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옥견은 옛날 신 삼을 때 사귀 이웃 친구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길에서 그들을 만나면 언제나 말에서 내려 반가이 인사하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당시의 선배를 만나면 진흙 위에서라도 으레 절을 한다.

혜공(鞋工)들은 황송하기 이를 데 없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심지어는 옥견의 행차를 먼빛으로 보고는 미리 겁을 내고 골목길로 숨기까지 했다.

옥견은 이런 눈치를 알고 옛날 친구들을 모조리 찾아 같이 손을 잡고 술집으로 갔다. “여보! 내 몸이 조금 귀하게 되었다고 해서 어찌 옛날 사귄 친구를 잊을 이치가 있소. 여러분도 조금도 달리 생각지 말고 내 마음을 알아서 전과 같이 사귀어 주시오! 자! 어서 술을 들고 흥겹게 노래도 부릅시다.”

옥견은 조금도 가식(假飾)이 없는 진정 그대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역시 옥견의 의리에 감동하여 마음 놓고 술을 마셨다.

옛말에 “빈천했을 때 사귄 친구를 저버리지 말라”는 구절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옥견이다.

●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相識은 滿天下호대 知心은 能幾人가.

[예담] 사람과 사람이 사귀되 지기(知己)를 얻기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백 명 중에 두세 사람도 지기(知己)의 벗은 없고, 열 중에 8, 9명은 모두 나를 해치는 사람. 술잔 들어 권할 땐 모두 다 형제 같건만 일에 임해 의논할 땐 모두 원수 같네.”

〔百無二三知己友，十常八九害吾人。舉盃當局皆兄弟，臨事論心總越秦。〕

라고 했다.

이 글의 뜻을 풀어보면, 아무리 친한 벗이라고 사귀기는 하지만 백 명 중에 단지 3명도 진정으로 의사를 통하고 환난을 같이 할 친구는 없고, 열 명 중에 8, 9명은

으레 나를 해칠 사람들이기 마련이다. 술자리에 앉아서 잔을 들고 서로 권하며 얼굴을 대할 때는 모두가 형제처럼 친밀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일단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을 털어놓고 말해보면 수만 리 먼 곳에 있는 월(越)나라와 진(秦)나라 사람처럼 소원(疎遠)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진정한 지기(知己)라는 것은 표면으로만 다정하게 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담담(淡淡)한 가운데 마음으로 서로 돕고 아끼는 사이인 것이다.

옛날 중국에 최호(崔浩)와 규과(圭夸)라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규과는 젊어서부터 뜻이 고상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세상일에 전연 뜻이 없어 벼슬도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호는 일찍부터 벼슬길에 올라 사도(司徒)(지금의 교육부장관 같은 것)가 되었다. 최호의 생각에 규과 같이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벼슬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운 일이요, 자기 자신이 고관으로 있으면서 친한 친구 하나를 출세시키지 못하는 것은 평소의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즉시 조정에 천거해서 중랑장(中郎將)이란 벼슬을 주어 억지로 불러 들었다.

규과는 조정에서 부른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서울로 와서 최호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서로 지난날의 정회를 풀었다. 최호는 마침내 중랑장의 사령장을 쥐어주면서,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일을 보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규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친구에게 괴로운 일을 끼쳐주는 것이 우정(友情)이란 말이나?”

하고 호통을 치더니 타고 온 조그만 나귀에 올라 표연히 시골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 때는 법령이 엄하여 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규과의 행동은 규탄을 받아 엄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최호가 여러모로 주선하고 운동해서 아무 일도 없도록 규과를 숨겨 보내 주었다.

그 후 몇 해가 지나 규과의 이런 죄목이 깨끗이 무마된 어느 날 최호는 좋은 말 한 필에 식량과 음식을 곁해서 보내주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회(叙懷)하기를 청하는 글을 보냈다. 하지만 규과는 최호가 보내준 물건을 낱알이 도로 돌려보내면서 편지에는 답장도 하지 않아 마치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 듯이 보였다.

그 후 최호가 신병으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규과는 달려가 복을 입고 통곡하면서, “최공(崔公)이 죽었으니 이 세상에 이 규과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고 슬퍼했다.

●술이나 음식을 먹을 적에 형이니 아우니 하고 친하게 사귀 친구는 천 명이나 있지만 위급한 환난을 당했을 적에 이것을 도와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

酒食兄弟는 千個有라도 急難之朋은 一個無니라.

●군자(君子)의 사귀는 덤덤하기가 마치 맹물과 같고, 소인(小人)들의 사귀는 달기가 꿀과 같다.

君子之交는 淡如水하고 小人之友는 甘如蜜이니라.

●가는 길이 멀어야만 타고 가는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사귀 지가 오래 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路遙에 知馬力하고 日久에 見人心이니라.

[총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반드시 착한 사람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그리고 술이나 음식자리에서 형이니 아우니 하는 친구는 수없이 많아도 급한 때를 당해서 도와주는 친구란 그리 흔치 못하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을 서로 알 만한 친구란 평생에 그리 많이 사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자(君子)의 사귄과 소인(小人)의 사귄을 구별해서 지나치게 달콤한 교제는 반드시 병통이 있다고 이 교우편(交友篇)에서 제시한다.

부행편(婦行篇)

●《익지서(益智書)》에 말하기를,

“여자에게 훌륭한 네 가지 덕(德)이 있으니 첫째는 부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이요, 둘째는 부인으로서의 안전한 얼굴 모습이요, 셋째는 부인으로서의 안상(安詳)한 말이요, 넷째는 부인으로서의 좋은 솜씨이다.”

하였다.

益智書에 云 女有四德之譽하니 一曰婦德이요 二曰婦容이요 三曰婦言이요 四曰婦工也니라.

●여기 부인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재주나 이름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인의 안전한 얼굴 모습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얼굴이 예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부인의 안상한 말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언변을 잘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 부인의 좋은 솜씨라 한 것은 반드시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婦德者는 不必才名이 絕異요 婦容者는 不必顔色이 美麗요 婦言者는 不必辨口利說이요 婦工者는 不必伎巧過人也니라.

●그렇다면 대체 부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조를 깨끗이 하고 절개를 굳게 가져 분수를 지키고 몸가짐을 정당하게 하며, 자기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고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법도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

로 부덕(婦德)이라는 것이다. 부인으로서의 얌전한 얼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먼지와 때를 닦고 빨아 의복을 깨끗이 하며 목욕을 때때로 해서 온 몸에 더러운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용(婦容)이라는 것이다. 부인으로서의 안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을 가려서 하며 예의에 벗어난 말은 하지 말고, 때가 된 뒤에야 말하여 남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바로 부언(婦言)이다. 부인으로서의 좋은 솜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술을 좋아하지 말며, 좋은 음식을 갖추어 만들어서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공(婦工)인 것이다. 이 네 가지 덕이야말로 참으로 부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하기가 몹시 쉽고 올바르게 하도록 힘을 것이니, 여기에 의지해서 행한다면 이는 부인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범절인 것이다.

其婦德者是 清貞廉節하여 守分整齊하고 行止有耻하며 動靜有法이니 此爲婦德也
요 婦容者是 洗浣塵垢하여 衣服鮮潔하며 沐浴及時하여 一身無穢니 此爲婦容也
요 婦言者是 擇詞而說하여 不談非禮하고 時然後言하여 人不厭其言하나니 此爲婦言
也 婦工者是 專勤紡織하고 勿好暈洒하며 供俱甘旨하여 以奉實客이니 此爲婦工
也니라. 此四德者是 是婦人之大德也니 爲之易하고 務在正하니 依此而行이면 是爲
婦節이니라.

●강태공(姜太公)이 말하기를,
“부인의 예법은 말 소리가 반드시 가늘어야 한다.”
하였다.

太公이 曰 婦人之禮는 語必細니라.

-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하고, 아첨하는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한다.

賢婦는 令夫貴하고 佞婦는 令夫賤이니라

[예담] 옛날 중국에 악양자(樂羊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되는 악양자는 신희의 단꿈에 젖어 잠시도 아내의 곁을 떠날 줄 몰랐다.

이때 그의 아리따운 젊은 부인이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공자는 잠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생각하였으나 학문을 배우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였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악양자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공부를 하되 꼭 학업이 성취된 후에야 집에 돌아오기로 아내와 단단히 약속하고 집을 나섰다.

깊은 산속 고요한 절간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어언 일 년이 다 되었다. 자나 깨나 그리운 건 아내 생각이요 고향 집에 돌아가고 싶은 일념 뿐인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아내와의 약속을 상기하며 마음을 달래던 악양자는 마침 설달 그믐을 당하였다. 명절 때면 더욱 간절하게 생각되는 것이 고향 집이요 가정인 것이다.

그는 잠시 집에 돌아가 설이나 쇠고 다시 오리라 마음먹고 집으로 향하였다. 먼 길을 걸어 저녁 늦게야 집에 다다르니 아내는 깜짝 놀라며 그를 맞아들인다.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벌써 공부를 다 마치셨나요?”

“아니오. 집을 떠난 지도 하도 오래고 또 내일이 설이니 당신과 함께 과세나 할까 하고 돌아왔소이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반가워하는 얼굴빛이 싹 가시더니 가위를 들고 베틀로 올라가더니 짜고 있던 명주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명주를 보세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나 여러 날 만에 고치를 짓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이렇게 한 치 한 치 짜서 결국은 옷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짜다 말고 중도에서 끊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서부터 시작한 오랜 동안의 노고가 헛일이 되고 말 것은 자명한 일이니, 당신도 하시

던 공부를 중단하시면 이와 꼭 같은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의 아내는 남편더러 들어오란 말 한마디 없이 방문을 닫더니 부지런히 명주를 짜는 것이었다.

명하니 서서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벼들의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한참이나 듣고 있던 악양자는,

“미안하오. 내가 너무 경솔하였구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학업을 성취시킨 뒤라야 당신을 만나리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발길을 돌렸다. 그가 그 후 칠 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하여 크게 출세할 수 있었음은 오로지 어진 아내의 덕이었다.

●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당치 않은 화를 입지 않는다.

家有賢妻면 夫不遭橫禍니라.

[예담] 한양에 살던 강남덕(江南德)의 어머니의 이야기다.

강남덕의 어머니는 서강(西江) 사람 황봉(黃鳳)의 아내다. 황봉은 강사람으로 매일 같이 강에 나가 물고기 잡는 것이 일ियो, 때로는 인천 앞바다 먼 데까지 가서 며칠씩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두 식구가 호구하고 살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황봉은 풍랑을 만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황봉의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소복으로 상을 입고 3년을 치르고 나서 과부로 혼자 산 지 몇 해가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실로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자칭 중국에서 왔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 황봉의 친필로 쓴 편지를 내놓는 것이다. 편지의 내용인즉 얼마 동안을 바다 위에 표류(漂流)하다 보니 중국 강남(江南) 땅에 닿아 지금은 그곳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노라면서 자상하게 지명(地名)과 주인의 성명까지 톡톡히 적어 보냈다.

황봉의 아내는 이 편지를 보자 반쯤 실신했다. 울다가 웃다가 이진 꿈이나? 생시냐? 소리소리 치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인천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자 그는 필경 물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숯제 단념해버렸던 터인데 이제 5년째 접어드는 오늘날 살아 있다는 편지가 날아 들었으니 미칠 일이 아닌가?

그녀는 여기서 엄청난 용기를 냈다.

“내 비록 빌어먹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원천리하고 남편을 찾아가리라.”

이튿날 그녀는 짚신 감발에 아무런 행장도 없이 표연히 집을 나섰다. 이웃사람들이 가만히 와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국경을 함부로 넘지 못하는 국법이 있을 뿐 아니라, 만리가 넘는 길을 방향도 모르고 노자 한 푼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요?”

하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종시 듣지 않고 소매를 뿌리치고 동네를 떠나 북쪽만 향하고 길을 걸었다. 밤이 되면 아무 집이나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고 찬밥을 얻어 먹으면서 실로 천신만고, 1년이 넘어 중국 강남(江南)땅에 당도했다. 강남 땅에 닿자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들고 남편이 있다는 곳을 찾으니 과연 황봉은 그곳에서 품팔이를 하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외는 부둥켜안고 반가움에 얼마동안 울었다. 이제 그들은 주인이 주는 후한 품삯으로 노자를 삼아 일로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왔다. 도중에 태기가 있어 낳은 것이 바로 강남덕(江南德). 여기에서는 강남덕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횡액에 걸리지 않는다”는 격훈(格訓)을 증명해 주는 강남덕의 어머니의 가특한 행동만 소개하면 된다.

● 어진 아내는 육친(六親)을 화목하게 하고 아침하는 아내는 육친의 화목을 도리어 깨뜨려 놓는다.

賢婦는 和六親하고 佞婦는 破六親이니라.

-
- 육친(六親): 부모(父母) · 형제(兄弟) · 처자(妻子)의 여섯 가지 친족을 말함.

[총론] 부인으로서의 덕(德), 곧 부덕(婦德) · 부용(婦容) · 부언(婦言) · 부공(婦工)이 있어야 훌륭한 부인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덕(德)이란 물론 재주가 뛰어나거나 얼굴이 천하일색으로 아름답다거나 청산유수로 말을 씩 잘하거나 손재주가 특출한 것을 말함은 아니다. 곧은 지조와 청렴한 절개, 깨끗한 의복과 티 없는 몸, 꼭 말해야 할 말만 하는 것, 길쌈을 하고 음식을 깨끗이 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만이 위에 말한 사덕(四德)을 구비한 것이라고 소상히 설명했다.

팔반가(八反歌)

팔반가(八反歌)

●어린애는 혹시 나를 보고 욕한대도 내 마음 도리어 기쁘고,
부모가 날 보고 걱정하시면 내 마음 도리어 달지 못하네.
한쪽 말은 기쁘고 한쪽 말은 도리어 달지 못하니
자식 대하는 것과 부모 대하는 마음 어찌 이리 현저한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만일 부모께서 성을 내시거든,
그 부모의 성내심 어린애의 하는 말로 들어 넘기게.

幼兒는 或罵我하되 我心에 覺權喜하고 父母는 嗔怒我하면 我心에 反不甘이라. 一
喜權 一不甘하니 待兒待父心何懸고 勸君今日逢親怒어든 也應將親作兒看하라.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듣고 나서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부모가 한마
디만 하면 공연히 쓸데없는 일에 관계한다 하네.
공연히 쓸데없이 일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고 머리 세어 아는 것이 많은 까닭일세.
그대여 부디 공경하여 노인의 말을 받들어 듣고,
젖네 나는 어린 것들 부질없이 시비를 따지지 못하게 하소.

兒曹는 出千言하되 君聽尙不厭하고 父母는 一開口하면 便道多閑管이라 非閑管親
掛牽이라 皓首白頭에 多諳諫이라 勸君敬奉老人言하고 莫教乳口爭長短하라.

●어린 아이 퐁오줌 더러운 건 그대 마음에 싫지 않지만,

늙은 부모 짐 홀린 건 도리어 미워하고 꺼리네.
그대의 6척 되는 몸통이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의 정력과 어머니의 피로 그 몸통이 생겨났네.
그대여, 부디 늙어가는 부모를 잘 대접하라.
젊었을 때 그들은 너를 위해서 힘줄과 뼈가 헤어졌나니.

幼兒尿糞穢는 君心에 無厭忌로대 老親涕唾零은 反有憎嫌意라. 六尺軀來何處오 父
精母血成汝體라 勸君敬待老來人하라. 壯時爲爾筋骨敝니라.

●그대 일찌감치 시장에 가서 떡 사고 과자 사는 것 보면,
부모에게 준다는 말은 적고 항상 아이들 먹인다 하네.
부모는 맛도 보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만 배불리 먹으니,
이는 자식된 마음 부모의 마음만 못함이로세.
그대여 떡 사는 돈 아끼지 말고 많이 쓰되,
세월이 많이 남지 않은 늙은 부모를 공양하게.

看君晨入市하여 買餅又買饅하니 少聞供父母하고 多說供兒曹라 親未啖兒先飽하니
子心이 不比親心好라 勸君多出買餅錢하여 供養白頭少光陰하라.

●시장 속 약 파는 가게에 다만 아이들 살찌는 약만 있고
부모 건강케 하는 약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아이나 부모나 병 들기는 매한가지인데,
아이들만 고쳐주고 부모는 내버려두라는 겐가?

제 다리 살을 베어도 역시 부모의 살이어나,
그대여 부디 두 아버지의 명을 보전케 하라.

市間買藥肆에 惟有肥兒丸하고 未有壯親者하니 何故兩般看고 兒亦病親亦病에 醫
兒不比醫親症이라 割股라도 還是親的肉이니 勸君亟保雙親命하라.

●부귀롭게 살 적엔 부모 공양하기 쉽건만 부모는 항상 편치 못하고,
빈천할 적엔 아이 기르기 어려워도 그 아이 주리지 않네.
한 줄기 마음에 두 가지 길이 있거니,
아이 기르는 것이 부모 위함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네. 그대여! 부모 공양 아이 기
르듯 하고, 모든 일을 집 가난하다 미루지 말게.

富貴엔 養親易로대 親常有未安하고 貧賤엔 養兒難하되 兒不受饑寒이라. 一條心兩
條路에 爲兒終不如爲父라 勸君養親如養兒하고 凡事莫推家不富하라.

●부모 공양하는 덴 두 사람뿐이언만 항상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자식 기르는 덴 열 명이 있어도 모두 다 자기 혼자 맡아 기르네.
아이가 배부른지 춥지 않은지 항상 물어도,
부모의 주림과 추운 건 묻지도 않네.
그대여, 부모 공양하는 데 모름지기 힘을 다하라.
당초에는 옷 입고 밥 먹는 것 모두 부모의 것이었네.

養親엔 只二人이로대 常與兄弟爭하고 養兒엔 雖十人이나 君皆獨自任이라 兒飽煖

親常問하되 父母饑寒은 不在心이라. 勸君養親을 須竭力하라. 當初衣食이 被君侵 아니라.

● 부모는 10분이나 사랑컨만 그대는 그 은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은 한 톨 어치 효도를 하건만 그댄 그 이름 자랑하고 있네.
부모 대접은 어둡게 하고 자식 대접은 밝게 하니,
누가 높은 집에 자식 기르는 마음 알 것인가?
그대여! 부질없이 자식이 효도한다 믿지 말라.
아이들의 하는 행동 모두 그대에게 달려 있네.

親有十分慈하되 君不念其恩하고 兒有一分孝면 君就揚其名이라. 待親暗待兒明하
니 誰識高堂養子心고 勸君漫信兒曹孝어든 兒曹親子在君身이니라.

[총론] 이 팔반가(八反歌) 편은 전편이 모두 “자식은 사랑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갈파(喝破)하여 사람들에게 효도를 하도록 권했다.

또한 이 팔반가 전편은 원래 명심보감 본집에 수록된 것이 아니고 《녹계궁지(錄桂宮誌)》라는 책 속에 있는 것을 아울러 여기에 합쳤던 것이다.

엮은이 소개 | 추적 (秋適) | 1246~1317

※ 편집자 주 | p. 9 주석 참조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자는 관중(貫中), 호는 노당(露堂), 시호는 문헌(文憲). 15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후 안동서기와 직사관 등을 거쳐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인 좌사간이 되었다.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소신껏 간관(諫官)의 일을 수행했다. 후에 예문관제학의 자리에 오른다.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당대의 선비였으며, 시랑국학교수로 있을 때 《명심보감》을 엮어 가르쳤다.

옮긴이 소개 | 이민수 (李民樹)

충남 예산 출생.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집필위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국역위원, 사서연역회 편집위원 역임. 저서로 《학계선생약전》 《윤봉길의사약전》 등이 있고, 역서로는 《삼국유사》 《격몽요결》 《징비록》 《동의수세보원》 《연려실기술》 《당의통략》 《연암선집》 《효경》 《순오지》 《공자가어》 《주역》 외 다수가 있다.

명심보감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3년 10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18-1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